

전라북도 탄소중립을 위한 식생활 개선방안 연구

Dietary Habit Improvements for Carbon Neutrality in Jeollabuk-do

장남정 황영모 조하진



설립목적

전라북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과 여성정책 등에
관련된 정책과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 지역여성에 관한 연구 및 정책 대안의 모색
- 정부, 전라북도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의 각종 용역 수탁
- 연구 관련도서 및 간행물 출간
- 국내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및 정보 교류·협력

연구진 소개

장남정

광주과학기술원 공학박사(환경공학)
(주)도화종합기술공사 기술개발연구원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영모

전북대학교 경제학박사
일본 홋카이도대학 연구원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하진

일본 나가사키대학교 공학석사(환경공학)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23-25

전라북도 탄소중립을 위한 식생활 개선방안 연구

Dietary Habit Improvements for Carbon Neutrality in Jeollabuk-do

장남정 황영모 조하진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책임	장남정	선임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 2장, 3장, 4장, 5장
공동연구	황영모	선임연구위원	제2장(3절 일부), 5장(2절 일부)
	조하진	전문연구원	제1장(3절 일부), 2장(2절, 3절), 3장, 4장(1절 일부)

연구관리 코드 : 23JU15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구목적 및 방법

■ 연구배경 및 목적

- 식생활은 개인의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생산, 소비, 유통 등의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저탄소 식생활 정책 모색이 필요함
- 그러나, 식생활은 생물학적,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요인에 따라 결정하는 개인 습관으로 저탄소 식생활 전환의 정책 수용성은 매우 낮을 수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1)탄소중립 정책대안으로 전라북도 식생활 전환의 현황 및 쟁점을 조사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지역 여건을 분석하고,
- 2)채식환경 조성 등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전라북도가 선도할 수 있는 저탄소 식생활 전환 정책사업을 제시하는데 있음

■ 연구방법

- 전라북도 식생활 현황 및 특성분석을 위해 선행연구 실태조사(양적조사) 문헌분석을 수행하고, 식생활 관련 온실가스 배출특성을 분석하였음
- 전라북도 식생활 이슈 및 정책수요 조사를 위해 공급자, 소비자, 관리자 등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질적조사)를 수행하고 인터뷰 의견을 정리하였음
- 탄소중립 식생활 전환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을 위해 식생활 관련 전라북도 여건을 조사하고 SWOT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정책목표 및 전략을 설정하였음
- 인터뷰 분석결과, SWOT분석결과, 목표 및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소중립 식생활 전환을 위한 정책사업(안)을 제안하였음

2. 결론 및 정책제언

■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 식생활 전환에 따른 건강상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지만, 경제적, 물리적, 심리적, 사회관계 변화 측면에서 지속적인 실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응답이 많았음
- 식생활 전환의 계기는 건강, 동물복지, 외부매체, 종교 등 개인여건에 따라 다양하나, 기후위기 대응을 식생활 전환의 주요요인으로 설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전라북도의 식생활 전환 여건은 타 지역보다 우수하나, 기존의 선입견을 불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저탄소 식생활 활성화 전망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견해와 낮은 인식으로 가치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가 공존함
- 저탄소 식생활 정책은 경제적 지원보다는 강압적이지 않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인식개선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축산과의 갈등 조정이 필요함
- 정책제언 응답에서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올바른 정보제공,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체험기회 제공, 푸드시스템과 연계한 정책협력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음

■ SWOT분석

- 강점(S) : 식생활 정책 및 전환 기반이 타지역 대비 우수하고, 담당행정의 정책의지가 강하며, 환경과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거버넌스 활동이 활발함
- 약점(W) : 축산업과의 갈등유발 우려가 있으며, 식생활 관련 기존 선입견과 낮은 관심도, 온실가스 관점의 식생활 정책의 한계가 존재함
- 기회(O) : 다양한 매체의 식생활 이슈가 증가하고, 식생활 전환의 가치가 증대하고 있으며, 기존 푸드시스템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위협(T) : 올바른 정보선택이 어렵고, 지속적 식생활 전환 실천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정책적 강요는 오히려 반발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



■ 저탄소 식생활 정책 기본방향 및 정책사업

○ 심층인터뷰 및 SWOT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목표를 설정하였음

- 목표1 :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한 저탄소 식생활 인식 및 가치증진
- 목표2 :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식생활 문화조성
- 목표3 : 지역과 상생하는 푸드시스템의 단계별 순환체계 정립
- 목표4 : 담당부서별 협업을 통한 효율적 식생활 전환 기반구축

○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으며, 총 23건의 전략별 세부사업을 제안하였음

1. 인식개선 :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식생활은 강제하기 어려운 만큼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시범사업 등의 생활실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함
2. 정보제공 : 저탄소를 포함한 식생활 전환 실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속적인 실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적 정보와 입문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조리법 등 안내서를 제공함
3. 문화조성 :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저탄소 식생활 전환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이 선순환하며 식생활 전환 정책을 선도하고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4. 지역상생 먹거리 순환 : 지역의 먹거리 체계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의 푸드플랜과 연계한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 등 단계별 순환을 고려한 정책을 제시함
5. 기반구축 :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서간 협력 및 이해당사자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농생명 수도' 전라북도의 아이টে으로 대체식품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함

■ 저탄소 식생활 개선을 위한 전략 및 세부사업 목록(안)

전략	NO.	세부사업	담당부서	시스템 단계	대상
인식 전환	1	생애주기별 식생활 교육 확대	기후환경정책과, 농생명식품과	전주기	전체
	2	공공기관 저탄소 식생활 교육의무 시범사업	기후환경정책과	전주기	관리자
	3	저탄소 식생활 홍보 강화	기후환경정책과	전주기	전체
	4	도민참여 저탄소 식생활 리빙랩 운영	기후환경정책과	소비	이용자
	5	저탄소 채식 시범학교 운영 (계속)	전라북도교육청	소비	이용자
정보 제공	6	저탄소 식생활 가이드 및 조리법 공유	기후환경정책과, 농생명식품과	소비	이용자
	7	온실가스 감축효과 원단위 정보제공	기후환경정책과	소비	전체
	8	전라북도 올바른 식생활 지도제작	기후환경정책과	소비	이용자
	9	기존식당 메뉴정보 표기지원	기후환경정책과	소비	이용자/공급자
	10	저탄소 실천음식점 인증관리	기후환경정책과	소비	공급자
문화 조성	11	저탄소 식생활 소모임 활성화	기후환경정책과	소비	이용자
	12	저탄소 식생활 체험부스 운영 및 페스티벌 개최	기후환경정책과	전주기	전체
	13	저탄소 식생활 인센티브 지급	기후환경정책과	소비	이용자
	14	공공기관 급식 채식의 날 지정	기후환경정책과	소비	관리자/이용자
	15	저탄소 채식 캠퍼스 운영	기후환경정책과	소비	이용자
지역 상생 먹거리 순환	16	저탄소/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활성화	농산유통과	생산	공급자
	17	지역농산물 저탄소 특화브랜드 개발	농생명식품과	가공	관리자
	18	로컬푸드 활성화	농생명식품과	생산/유통	공급자
	19	못난이 농산물 소비촉진	농생명식품과	생산/소비/폐기	전체
	20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지원	기후환경정책과	폐기	이용자
기반 구축	21	저탄소 식생활 조례 제정(시군)	기후환경정책과, 농생명식품과	전주기	관리자
	22	대체식품 산업화 기반조성 및 연구지원	농생명식품과	가공	공급자
	23	저탄소 식생활 협력 거버넌스 운영	기후환경정책과, 농생명식품과	전주기	전체

차 례

CONTENTS

요약	i
----------	---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가. 연구 배경	3
나. 연구목적	4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5
가. 연구 범위	5
나. 주요 연구 내용	5
3. 연구 방법 및 차별성	6
4. 연구 기대효과	9
5. 연구진 및 연구 추진체계	9
6. 용어정리	11

제2장 전라북도 식생활 현황 및 특성 분석

1. 전라북도 탄소중립 채식환경 실태	15
가. 전라북도 채식환경 인식조사(선행연구)	15
나. 실태조사 연구결과 시사점	17

2. 온실가스 배출특성	18
가.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18
나. 푸드시스템 배출량 추정	21
다. 식생활 관련 온실가스 감축효과(원단위 검토)	24
3. 지역먹거리 체계 현황	27
가. 현황분석	27
나. 식생활 관련 지역 먹거리 전략	39

제3장 탄소중립 식생활 이슈 도출

1. 식생활 전환 심층 인터뷰 개요	43
가. 인터뷰 목적 및 방법	43
나. 심층 인터뷰 내용	45
2. 심층 인터뷰 결과	49
가. 심층 인터뷰 분석	49
나. 분석결과 요약	77

제4장 탄소중립 식생활 전환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1. 국내외 정책동향	81
2. 전라북도 식생활 전환 여건 종합분석(SWOT)	85
가. 내부요인	85

차 례

CONTENTS

나. 외부요인	85
다. 기본방향	86
3. 목표 및 전략 설정	88
가. 저탄소 식생활 전환 정책범위 및 목표	88
나. 정책전략 설정	90

제5장 탄소중립 식생활 전환을 위한 정책사업 제안

1. 전략별 정책사업 목록	95
2. 정책사업 세부내용	97

제6장 결론 및 후속 과제

1. 결론	113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과제	116

참고문헌	120
------------	-----

영문요약 (Summary)	122
----------------------	-----

부록	127
----------	-----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1-1] 선행연구 주요결과 및 연구의 차별성	7
[표 1-2] 연구진 및 주요 역할	9
[표 1-3] 채식주의 유형	12
[표 2-1] 국가전체 지역 농업부문 온실가스 직접배출량(2016~2020)	18
[표 2-2] 전라북도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전국비중(2016~2020)	20
[표 2-3] 국가 푸드시스템 온실가스 배출량 및 비율(2019년 기준)	21
[표 2-4] 전라북도 푸드시스템 배출량 추정 결과	23
[표 2-5] 우리나라, 우리 지역 식재료 이용하기 실천내용 및 감축 원단위	24
[표 2-6]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이용하기 실천내용 및 감축 원단위	25
[표 2-7] 저탄소 식단 운영하기 실천내용 및 감축 원단위	25
[표 2-8]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내용 및 감축 원단위	26
[표 2-9] 교육 정보효과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실천내용 및 감축 원단위	26
[표 2-10] 전라북도 농가수 및 농가인구(2022년 기준)	27
[표 2-11] 전라북도 농산물 생산현황(2022년 기준)	28
[표 2-12] 전라북도 주요 가축 사육현황(2022.4분기)	28
[표 2-13] 전라북도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2022년 기준)	29
[표 2-14] 전라북도 친환경축산물 인증현황(2022년 기준)	29
[표 2-15] 전라북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현황(2020년 기준)	30
[표 2-16] 전라북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사용실적 (2018.3~2019.2)	31
[표 2-17] 전라북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구축 및 농가조직화 현황	31
[표 2-18] 전라북도 식품제조업체 현황(2021년 기준)	33
[표 2-19] 전라북도 시군별 식품산업 현황(2021년 기준)	33
[표 2-20] 전라북도 식품산업 업종 현황(소분류)	34
[표 2-21] 전라북도 공공급식 규모	34
[표 2-22] 전국 연간 육류 소비량(2000~2021)	35
[표 2-23] 전라북도교육청 ‘저탄소 채식의 날’ 시범학교 운영현황	36
[표 2-24] 전라북도 시군별 생활계폐기물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20년 기준)	37

표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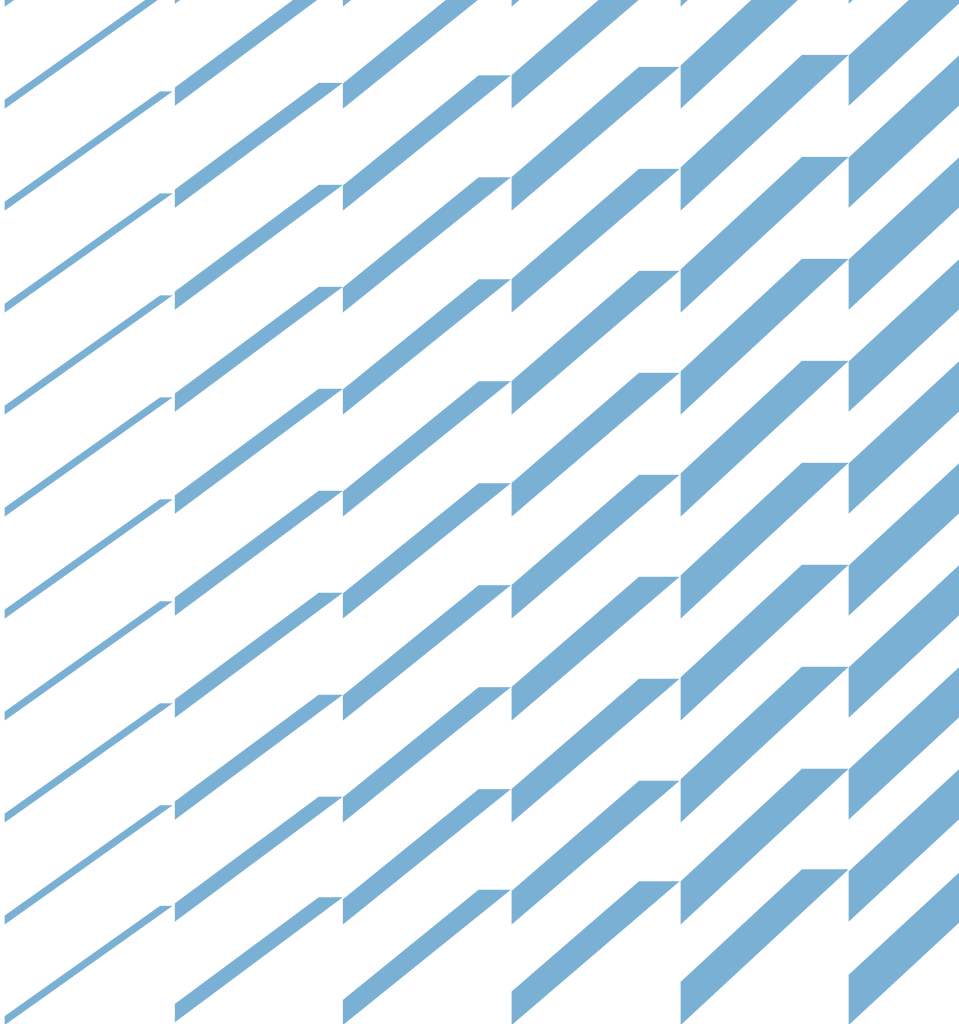
LIST OF TABLES

[표 2-25] 전라북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현황(2020년 기준)	38
[표 3-1] 식생활 전환 심층인터뷰 대상자 현황	44
[표 3-2] 심층 인터뷰 조사영역 및 세부내용(이용자1_현재 실천 중)	45
[표 3-3] 심층 인터뷰 조사영역 및 세부내용(이용자2_과거경험 현재는 미실천)	46
[표 3-4] 심층 인터뷰 조사영역 및 세부내용(관리자)	47
[표 3-5] 심층 인터뷰 조사영역 및 세부내용(공급자)	48
[표 3-6] 심층 인터뷰 결과 요약	77
[표 4-1] 지자체 채식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현황('23. 9. 기준)	82
[표 5-1] 저탄소 식생활 전환 정책사업 목록	95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	10
[그림 2-1] 전국 1인당 육류 소비량(kg)(2000~2021)	35
[그림 2-1] 전라북도 푸드플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40
[그림 4-1] 전라북도 식생활 전환 여건 분석 및 기본방향 도출(SWOT)	88



제 1 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및 차별성
4. 연구 기대효과
5. 연구진 및 연구 추진체계
6. 용어정리

제 1 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 인류 최대의 공동 목표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함께 지역민의 인식도를 높이고 생활패턴을 전환할 수 있는 실천문화 조성이 필요함
- 최근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 4.)의 4대 전략 중 ‘함께 하는 탄소중립’에서 ‘지방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어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
- 전라북도는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운영,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등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전라북도 여건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을 준비하고 있음
- 탄소중립 생활패턴 중 식생활은 개인의 건강문제뿐 아니라 가축사육 및 육류소비 과정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식생활 분야 정책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식생활 전환의 가치는 1)환경적으로 정의롭고, 2)신체적으로 건강하고, 3)사회적으로 포용적인 지역사회 조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환경적 효과를 기준으로 탄소중립 정책대안으로 활용이 가능함
- 푸드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식생활 전환의 가치(필요성)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환경오염 개선 : 축산업은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수질 오염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사육두수의 감소는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건강문제 개선 : 채식 식단의 전환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등과 같은 만성 질병 위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

- 동물복지 개선 : 일부 축산업은 동물에게 고통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어 육류소비 절감은 동물학대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
- 식량자원 절감 : 육류소비 절감은 가축에 필요한 사료자원을 절감하고 더 많은 인구에게 식량을 제공할 수 있음
- 윤리문제 개선 : 육류생산 과정의 동물살해 등 윤리적 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그러나, 개인의 식생활은 생물학적,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요인에 따라 결정하는 개인 습관인 만큼 식생활 전환의 정책 수용성은 매우 낮을 수 있음
- 특히, 환경행정에서 탄소중립 측면의 식생활 정책추진은 기존의 푸드시스템을 포함한 농식품 담당행정과의 연계가 필요한 만큼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현재 '전라북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라북도 환경녹지국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임
- 따라서, 저탄소 식생활 전환 관련 전라북도 지역사회의 현황 및 쟁점을 도출하고 탄소중립 대안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건을 종합 분석하여 행정과 민간에서 추진 가능한 정책사업 모색이 필요함

나.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 첫째, 탄소중립 정책대안으로 전라북도 식생활 전환의 현황 및 쟁점을 조사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지역 여건을 분석하는데 있음
 - 둘째, 채식환경 조성 등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전라북도가 선도할 수 있는 저탄소 식생활 전환 정책사업을 제시하는데 있음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가.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라북도 14개 시군
- 시간적 범위
 - 현황분석 : 최근 통계자료 조사 및 분석
 - 배출량현황 : 2016~2020년 온실가스 배출통계 분석
 - 정책사업 : 2024~2028년 추진 가능한 단중기 사업 제안
 - 과제수행기간 : 2023. 6. ~ 10. (5개월)
- 내용적 범위
 - 본 연구는 환경행정 소관 탄소중립 관점의 저탄소 식생활 관련 정책연구로 채식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저탄소 식생활은 푸드 시스템 전반의 전환이 필요한 정책이고 환경행정에서 단독으로 추진이 어려우므로 저탄소와 연계한 푸드시스템 단계별(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 대안을 포함하고 있음

나. 주요 연구 내용

- 전라북도 식생활 현황 및 특성분석
 - 실태조사는 선행 연구자료 활용, 시사점 분석
- 전라북도 식생활 전환 이슈 및 정책수요 조사
 - 관계자 심층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수행
- 저탄소 식생활 기본방향 설정
 - 전라북도 여건을 고려한 기본방향 및 전략 설정

- 저탄소 식생활 전환을 위한 정책사업 제안

3. 연구 방법 및 차별성

1) 전라북도 식생활 현황 및 특성분석

- 인식현황 : 선행연구 실태조사(양적조사) 문헌분석
- 온실가스 배출특성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 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 자료 분석

2) 전라북도 식생활 이슈 및 정책수요 조사

- 이슈발굴 :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 (공급자, 소비자, 관리자 등 이해당사자 대상)
- 정책수요 : 이슈별 대응방안 등 인터뷰 의견정리

3) 탄소중립 식생활 전환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 여건종합 분석 : SWOT분석
- 기본방향 및 전략설정 : 인터뷰 및 SWOT분석 결과 반영

4) 탄소중립 식생활 전환을 위한 정책사업 제안

- 정책사업 발굴 : 인터뷰 결과분석, 정책사례 검토, 담당행정 의견수렴 등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최근 식생활 전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영양학, 환경교육, 행동이론 등 다수의 학술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으며, 탄소중립 관점에서 '저탄소(녹색) 식생활 전환' 실천을 위한 정책연구를 일부 찾아볼 수 있었음
- 본 연구는 탄소중립 관점에서 '저탄소 식생활 전환'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사업 제시에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 차별성이 있음

- 선행연구의 주요결과와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1-1] 선행연구 주요결과 및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	주요결과	본 연구의 차별성
김도균 외 인류세 도래에 따른 녹색전환의 가치와 중장기 전략 발굴 연구 한국환경연구원, 2022	· 인류세 도래에 따른 녹색전환 중장기 전략을 모색하였으며, 5개의 분야 중 식생활의 녹색전환 연구과제를 발굴한 연구 · 식생활 관련으로 채식문화 종합사회조사, 채식 공감대 확산방안, 채식 인프라 구축, 채식 상품의 확대방안에 대한 전략연구를 제시함	⇒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전략연구 결과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실행가능한 정책사업 제안에 목적을 두고 있음
명수정 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생활계 온실가스 배출과 인식조사 연구 한국환경연구원, 2022	· 녹색생활 인식조사를 위해 의생활, 식생활, 에너지, 구매, 자원순환 부문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수행 · 식생활의 경우 타 항목 보다 채식의 실천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녹색생활 미실천 이유로 '실천방법을 몰라서'가 7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환경교육 강화, 시민참여 체계, 제도 및 인프라 도입의 정책방향을 제시함	⇒ 녹색생활 전반에 대한 인식조사에 중점을 둔 연구로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실행가능한 정책사업 도출에 목적을 두고 있음
이효은, 오수빈 계획된 행동이론 관점에서 본 기후위기 대응방안으로서의 플렉시타리즘 지속 및 확산방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21	· 간헐적 채식 확대를 위한 실천 형성 의도를 1)태도, 2)주관적 규범, 3)지각된 행동 통제 요인으로 구분하여 심층인터뷰를 수행 · 확산방안으로 1)기후대응 효과와 실천의 용이함을 강조, 2)채식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을 개선하여 실천 인구를 확대, 3)채식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여 집단에 소속감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행동이론 관점의 실천 형성 요소에 따른 질적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정책 연계 방안은 부재함
우현숙, 김소영 학교급식에서의 채식의 날 적용 사례 연구 동아시아 식생활학회 학술발표대회, 168p, 2021	· 4개월간 여자고등학생 전교생을 대상으로 채식급식을 월 2회 실시한 결과를 보고 · 채식의 날 홍보, 교육실시, 식단개발 및 참여도려,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수행 · 운영결과 '채식급식'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졌고, 스스로 기후위기 기여에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함 · 추가적으로 기존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는 메뉴명과 레시피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 현장에서 채식의 날 운영 결과를 보고한 연구로 채식급식의 사례연구로 의미가 있음. 본 연구는 다양한 정책사업 검토 및 제시에 목적이 있음
'채식의 날' 기후변화 캠페인이 소셜미디어 반응과 캠페인	·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채식 권장 캠페인의 흥미도와 이해도에 따라서 소셜미디어 반	⇒ 특정 캠페인에 대한 영향 특성과 효과개선을

선행연구	주요결과	본 연구의 차별성
참여에 미치는 영향: 부산 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박세정 외 3인, 2021	응과 캠페인 참여 영향과 채식 관심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 - 채식 권장 기후 캠페인의 흥미도와 이해도가 높을수록 소셜미디어에서 캠페인 메시지에 반응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으며, 채식에 관한 관심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흥미도가 캠페인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함 - 채식 권장 기후 캠페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메시지 전략을 제시하였음	위한 연구로 본 연구에서는 캠페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사업 제시에 목적이 있음
대학생의 기후변화 대응 식생활 행동의도에 대한 연구. 최경숙, 김지은. 2022. 한국생활과학회지	-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식생활 행동의도에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성별, 학년, 거주형태), 기후변화 대응 식생활교육 경험, 사회심리적변수(환경문제 의식, 윤리적 소비주의, 물질주의), 기후변화 대응 식생활 변수(지식, 태도)가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한 연구 - 성별, 거주형태, 식생활교육 경험 유무는 식생활 지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식생활 지식은 식생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기후변화 대응 식생활 지식, 태도, 행동의도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제안함 - 다양한 사회심리적 요인의 변인 탐색, 대학생 및 성인 대상의 체계적·표준화된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함	⇒ 다양한 영향인자에 따른 식생활 행동의도를 분석한 연구로 행동변화를 위한 영향분석에 중점을 둔 학술 연구임.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정책사업에 중점을 둔 정책과제임
친환경 식생활과 간헐적 채식의 연계성 고찰 유소현, 2022 한국환경교육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환경 과목'에서의 친환경 식생활과 간헐적 채식과 관련한 내용 요소를 분석하고 연계 지도 방안을 탐구 - 중학교 환경 교과서는 친환경 식생활이, 고등학교는 채식 및 먹거리 관련 내용이 직접 제시되어 친환경 식생활과 간헐적 채식주의 관점이 제시됨 - 먹거리와 비교하여 채식은 제한적으로 다뤄짐 - 간헐적 채식을 포함한 채식주의 및 관점을 환경교육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양한 요소(영양적, 경제적, 환경적, 도덕적, 개인 및 사회적 차원 등)를 고려하여 채식의 개념과 관점 제시의 필요성을 언급함	⇒ 환경교육 관점에서 식생활 전환의 지도방안 등을 모색한 연구임. 본 연구는 저탄소 식생활 전환을 위한 정책사업 제안을 목적으로 함

4. 연구 기대효과

- 저탄소 식생활 전환으로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의 푸드시스템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인식개선에 기여
- 식생활 전환을 통한 1)환경적으로 정의롭고(환경오염 개선), 2)신체적으로 건강하고(건강문제 개선), 3)사회적으로 포용적(동물복지 개선, 식량자원 절감, 윤리문제 개선) 지역사회 구성에 기여
- 기후위기 시대 저탄소 농축산 순환체계 구축 및 식생활 전환을 통한 ‘농생명 수도’ 전라북도의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에 기여

5. 연구진 및 연구 추진체계

1) 연구진

- 연구진 역할분담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2] 연구진 및 주요 역할

구 분	이 름	역 할
연구책임	장남정	<연구 총괄> - 정책현황 분석 총괄 - 이슈도출 및 SWOT분석 - 정책사업 총괄
공동연구	황영모	<푸드시스템 현황 및 관련정책> - 푸드플랜 현황 및 이슈 - 푸드플랜 관련 정책사업 제안 - 심층인터뷰 디자인
공동연구	조하진	<연구 지원> - 기초 통계 자료수집 및 분석 - 심층인터뷰 준비 및 진행 - 전문가 자문회의 등 연구 지원

2) 연구 추진체계

- 연구추진 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

6. 용어정리

1) 저탄소 식생활 (= 탄소중립 식생활)

- 환경을 보호하고 기존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으로 (간헐적)채식, 로컬푸드 사용, 음식물 쓰레기 저감 등을 실천하는 식습관

2) 채식¹⁾

- 국제채식연맹(IVU; International Vegetarian Union)에 따르면 채식은 ‘육지에 있는 두 발과 네 발 달린 동물을 먹지 않은 것은 물론 바다·강에 사는 어류도 먹지 않으며, 우유·달걀은 개인적인 이유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로 정의함

3) 채식주의 유형

- 채식주의는 육류를 섭취하는 간헐적 채식 ‘플렉시테리언’부터, 극단적 채식주의라 할 수 있는 ‘프루테리언’까지 개인의 신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음
- 비거니즘(Veganism)은 비건 채식주의에 그치지 않고 가죽제품 등 동물성 제품 사용을 회피하여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는 라이프스타일임
- 클라이머테리언(climatarian)²⁾은 기후 ‘climate’와 라이프스타일을 의미하는 ‘-tarian’의 합성어로 2015년 미국 뉴욕타임즈에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며, 최근 증가하는 라이프스타일로 케임브리지 영영사전에는 ‘식재료의 환경부하를 생각하고 보다 부담이 적은 식품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해석함

〈클라이머테리언 라이프스타일〉

- 현지제품 소비를 통해 생산 및 운송에서 소비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
- 고기소비를 줄이고, 양고기, 소고기 대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가금류를 선택
- 낭비를 줄이기 위해 과일껍질 등 음식의 모든 부분을 섭취

1) 네이버카페 ‘한울벗채식나라’. (2023. 7. 검색)

2) 허복구. (2022). 미래를 바꾸는 탄소농업, 중앙생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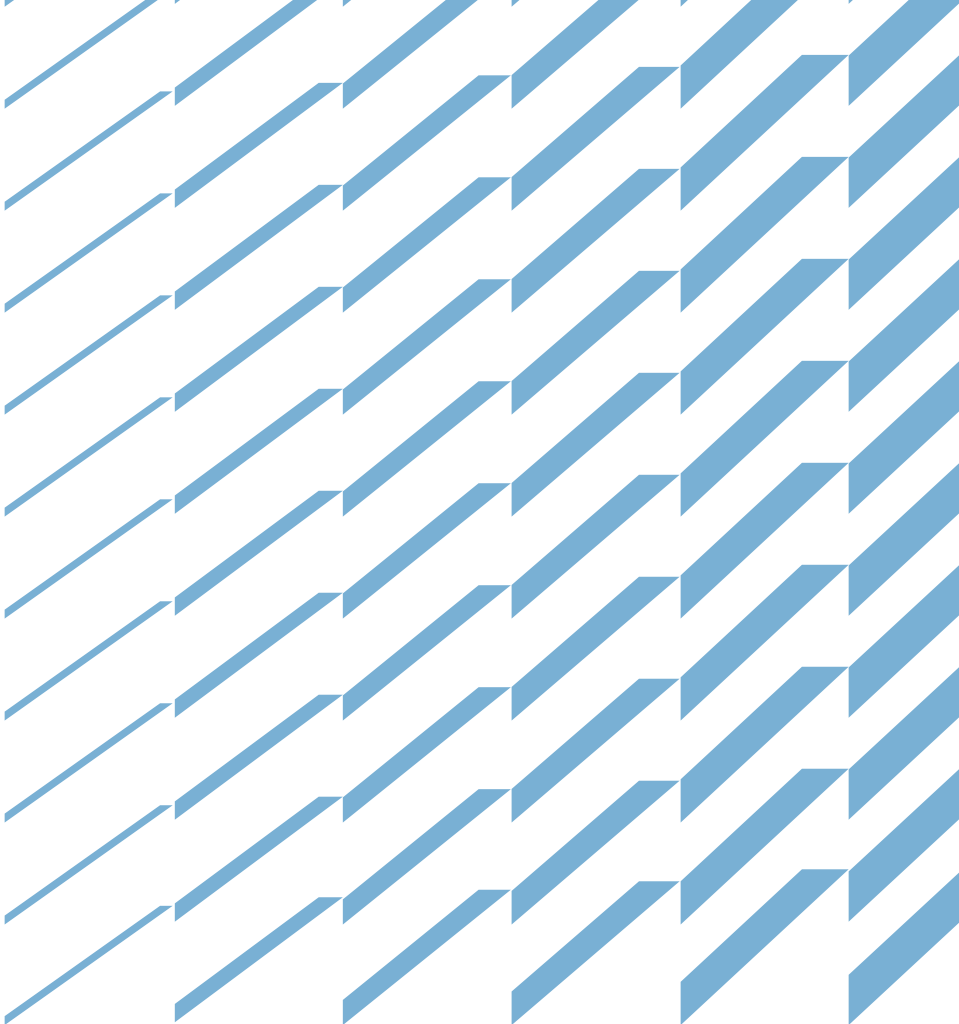
- 일반채식보다 더 강한 식생활 신념으로 프룻채식(프루테리언), 생채식, 청구채식이 있으며, 청구채식의 경우 불교에서 승려의 수행에 방해가 되는 나물을 금하는 라이프스타일임
- 문헌의 내용을 종합하여 섭취대상에 따른 채식주의 유형을 정의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1-3] 채식주의 유형

구분		육류	가금류	어패류	달걀	유제품	채소
강한 신념	프룻채식(fruit)	X	X	X	X	X	뿌리, 줄기 제외
	생채식(uncooked)	X	X	X	X	X	익히지 않은 생 것
	청구채식(淸口)	X	X	X	X	X	오신채* 제외
일반 신념	비건	X	X	X	X	X	○
	락토	X	X	X	X	○	○
	오보	X	X	X	○	X	○
	락토-오보	X	X	○	○	○	○
	페스코	X	X	○	○	○	○
입문	폴로	X	○	○	○	○	○
	플렉시테리언	○	○	○	○	○	○
	클라이머테리언	○	○	○	○	○	○

※ 자료 : '인류세 도래에 따른 녹색전환의 가치와 중장기 전략 발굴 연구, 한국환경연구원, 2022'에서 재구성

※ 오신채 : 파(양파), 마늘, 달래, 부추, 흥거 등



제2장

전라북도 식생활 현황 및 특성 분석

1. 전라북도 탄소중립 채식환경 실태
2. 온실가스 배출특성
3. 지역먹거리 체계 현황



제2장 전라북도 식생활 현황 및 특성 분석

1. 전라북도 탄소중립 채식환경 실태³⁾

가. 전라북도 채식환경 인식조사(선행연구)

- 선행연구에서 탄소중립 채식환경 실태조사를 위해 전라북도민(전주, 군산, 익산) 201명의 인식조사를 수행하였음
- 설문조사는 개인 식습관 및 채식에 관한 인식, 탄소중립과 저탄소 식단에 대한 인식, 기후변화 관심도 및 채식행동 의향, 식생활 개선 정책으로 구분되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개인 식습관 및 채식에 관한 인식

- 기본식단 76.6%, 육식식단 19.4%, 채식식단 4.0% 비중을 보였으며, 채식식단의 이유(복수응답 가능)는 건강문제 6명, 다이어트 4명, 맛 4명, 환경/기후변화 1명, 동물권 보호 1명으로 응답함
- 비건/채식주의가 건강한 식습관인지에 대한 질문에 43.8%가 '보통이다', 32.8%가 '그렇다', 14.9%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함
- 비건/채식주의가 다이어트에 좋은지에 대한 질문에 52.7%가 '그렇다', 29.4%가 '보통이다'로 나타남
- 비건/채식주의가 기후변화 저감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37.8%가 '그렇다', 29.9%가 '보통이다', 15.4%가 '그렇지 않다', 11.4%가 '매우 그렇다'로 나타남

2) 탄소중립과 저탄소 식단에 대한 인식

- 비건/채식주의가 친환경적인가에 대한 질문에 37.3%가 '보통이다', 33.3%가 '그렇다',

3)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2022).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채식환경 실태조사

16.4%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함

- 저탄소 식단에 대한 지식정도는 38.7%가 '거의 모른다', 32.8%가 '약간 알고 있다', 25.4%가 '전혀 모른다'로 응답함

3) 기후변화 관심도 및 채식행동 의향

- 기후변화의 관심도는 52.2%가 '높은 편이다', 35.8%가 '그저 그렇다'로 응답함
- 채식주의에 대한 관심도는 42.3%가 '그저 그렇다', 20.4%가 '낮은 편이다', 19.4%가 '높은 편이다', 15.4%가 '전혀 관심없다'로 응답함
- (간헐적) 채식주의의 선택의향에 대한 질문에는 37.3%가 '있는 편이다', 35.3%가 '없는 편이다', 19.9%가 '전혀 없다'로 나타났으며 이유로는 건강 > 다이어트 > 환경/기후변화 > 동물권보호 순으로 응답함

4) 식생활 개선 정책 중요도

- 육식식단에서 채식식단 전환의 중요성은 '중립' 61.7%, '상당히 중요하다' 22.9%,
- 건강식단 정보제공의 중요성은 '상당히 중요하다' 58.2%, '중립' 31.3%,
- 공공기관 채식의 날 지정의 중요성은 '중립' 46.8%, '상당히 중요하다' 34.3%,
- 정기적인 교육의 중요성은 '상당히 중요하다' 48.3%, '중립' 36.3%,
- 대체육 기술발전 공급 및 확대의 중요성은 '상당히 중요하다' 45.3%, '중립' 34.3%,
- 식품 탄소표지 인증제의 중요성은 '상당히 중요하다' 46.8%, '중립' 36.3%으로 응답함

5) 교차분석 주요결과

- 성별) 간헐적 채식주의의 선택의향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 39.2%가 '전혀없다'라고答한 반면, 여성의 경우 42.7%가 '있는 편이다'로 응답하여 성별 큰 차이를 보였음
- 연령) 채식주의에 대한 관심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나, 20대 52.9%가 '전혀 관심이 없다'로 가장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 채식의 선택할 경우 이유에 대해 20대는 다이어트가 46.2%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을 이유로 선택한 비중은 60대 이상이 50.0%, 50대, 38.9%, 40대 33.0%, 30대 32.0%로 나타남
- 관심도) 기후변화에 관심도가 있는 응답자 중 51.7%가 채식주의를 선택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도가 없는 응답자 23.1% 비중보다 높게 나타남

나. 실태조사 연구결과 시사점

■ ‘저탄소 식생활(채식)’ 개념도입 필요

- 일반 채식이 아닌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저탄소 식생활(채식)’ 개념으로 접근할 경우 기존의 개인적/차별적 식생활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 저탄소 채식의 기반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 인센티브 부여 방안 모색 필요

■ 저탄소 채식 식생활 전환 전략

- 저탄소 식생활 문화확산을 위한 전환 인자로, 맛, 영양, 조리시간, 연령, 접근성, 채식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지구환경에 대한 위기인식(식생활 연관성) 등을 제시함
- 개인의 식습관을 어려운 채식으로 강제하기보다 ‘플렉시테리언’ 수준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대안 모색 필요

■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와 거버넌스 구축

- 지역 푸드플랜을 통해 탄소중립 식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농민의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필요
- 탄소표시제도, 저탄소인증제 등 제도적 장치와 연계하여 저탄소 식단의 자발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구축 필요
-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먹거리 거버넌스를 통해 저탄소 채식 관련 소통체계 구축 필요

2. 온실가스 배출특성

가.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 국가전체⁴⁾(지자체 합계 배출량)

-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가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지자체 합계)은 23,050.76천톤CO₂eq.으로 이 중 벼재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7,769.51천톤CO₂eq., 33.7% 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배출량이 큰 중분류 항목은 장내발효 27.8% (6,410.00천톤CO₂eq.)이며 가축분뇨처리 24.9% (5,732.88천톤CO₂eq.), 농경지토양 13.0% (2,987.68천톤CO₂eq.), 요소시용 0.5% (105.01천톤CO₂eq.), 작물잔사소각 0.2% (42.90천톤CO₂eq.) 순으로 집계됨
- 국가전체 농업부문 온실가스 중분류 항목별 배출 비중은 2016~2020년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기준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이 가장 많은 항목은 농업(경농)인 벼재배이며, 다음으로 농업(축산)인 장내발효와 가축분뇨처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농업부문 전체배출량 중에서 축산과 경농의 배출량을 살펴보면, 농업(축산)의 배출량의 비중은 52.7% (12,142.88천톤CO₂eq.), 농업(경농)의 배출량 비중은 47.3% (10,907.89천톤CO₂eq.)으로 축산의 배출량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됨

[표 2-1] 국가전체 지역 농업부문 온실가스 직접배출량(2016~2020)

(단위 : 천톤CO₂eq.)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농업부문 합계		23,230.20	23,107.05	23,456.32	22,619.03	23,050.76
축산	A. 장내발효	5,905.92	5,847.36	6,041.29	5,925.51	6,410.00
	B. 가축분뇨처리	5,191.88	5,365.38	5,746.35	5,516.38	5,732.88

4) 2020년 기준 국가전체 배출량 중 농업부문(비에너지)이 차지하는 비중은 3.2%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 농	C. 벼재배	9,162.52	8,942.59	8,598.56	8,120.89	7,769.51
	D. 농경지토양	2,806.29	2,797.04	2,908.58	2,899.63	2,987.68
	E. Prescribed Burning of Savannas	-	-	-	-	-
	F. 작물잔사소각	42.01	40.35	41.38	43.63	42.90
	G. 석회사용	3.51	3.55	3.12	2.21	2.79
	H. 요소사용	118.06	110.79	117.04	110.78	105.01
	I. Other carbon-containing fertilizers	-	-	-	-	-
	J. Other	-	-	-	-	-

자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 2023. 온실가스 배출량 시범사업 산정결과

■ 전라북도

- 2020년 기준 전라북도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088.42천톤CO₂eq.으로 국가전체 농업부문(비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23,050.76천톤CO₂eq.)의 13.4% 비중을 보임
- 전라북도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벼재배에서 가장 많이 발생(1,208.33천톤CO₂eq.)하며 국가전체 벼재배 항목의 발생량(7,769.51천톤CO₂eq.)의 15.6% 비중을 보임
- 전라북도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두 번째로 많은 항목은 장내발효 23.4% (723.84천톤CO₂eq., 국가대비 배출량 비중 11.3%)이며 가축분뇨처리 23.2% (717.83천톤CO₂eq., 국가대비 배출량 비중 12.5%), 농경지토양 13.5% (417.84천톤CO₂eq., 국가대비 배출량 비중 14.0%), 요소사용 0.5% (16.08천톤CO₂eq., 국가대비 배출량 비중 15.3%), 작물잔사소각 0.1% (42.90천톤CO₂eq., 국가대비 배출량 비중 9.5%) 순으로 집계됨
- 전라북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국가 전체 3.4%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할 때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13.4%)은 상대적으로 높은 현실임
- 2020년 기준 전라북도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항목은 농업(경농)인 벼재배이며, 다음으로 농업(축산)인 장내발효와 가축분뇨처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농업부문 전체배출량 중에서 축산과 경농의 배출량을 살펴보면, 농업(축산)의 배출량의 비

중은 46.7% (1,441.67천톤CO₂eq.), 농업(경농)의 배출량 비중은 53.3% (1,646.74천톤CO₂eq.)으로 경농의 배출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 농업부문 온실가스 중분류 항목별 배출 비중은 2016~2020년까지 큰 변화가 없으며, 국가전체의 배출량 항목별 비중 순위와 같음

- 가축분뇨처리, 농경지토양, 작물잔사소각은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경향을 보이며, 벼재배의 경우 감소 경향을 보임

[표 2-2] 전라북도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전국비중(2016~2020)

(단위 : 천톤CO₂eq.,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농업부문 합계		배출량	3,100.08	3,078.18	3,119.99	3,030.22	3,088.42
		전국비중	13.3%	13.3%	13.3%	13.4%	13.4%
축산	A. 장내발효	배출량	647.02	637.59	659.61	652.13	723.84
		전국비중	11.0%	10.9%	10.9%	11.0%	11.3%
	B. 가축분뇨처리	배출량	641.65	654.11	697.46	684.60	717.83
		전국비중	12.4%	12.2%	12.1%	12.4%	12.5%
경농	C. 벼재배	배출량	1,416.20	1,393.65	1,350.14	1,272.56	1,208.33
		전국비중	15.5%	15.6%	15.7%	15.7%	15.6%
	D. 농경지토양	배출량	374.25	372.89	391.22	399.75	417.84
		전국비중	13.3%	13.3%	13.5%	13.8%	14.0%
	E. Prescribed Burning of Savannas	배출량	-	-	-	-	-
		전국비중	-	-	-	-	-
	F. 작물잔사소각	배출량	3.45	3.46	3.54	4.01	4.07
		전국비중	8.2%	8.6%	8.5%	9.2%	9.5%
	G. 석회사용	배출량	0.51	0.51	0.47	0.34	0.43
		전국비중	14.4%	14.4%	15.0%	15.2%	15.3%
	H. 요소사용	배출량	17.00	15.96	17.56	16.84	16.08
		전국비중	14.4%	14.4%	15.0%	15.2%	15.3%
	I. Other carbon-containing fertilizers	배출량	-	-	-	-	-
		전국비중	-	-	-	-	-
	J. Other	배출량	-	-	-	-	-
		전국비중	-	-	-	-	-

자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 2023. 온실가스 배출량 시범사업 산정결과

나. 푸드시스템 배출량 추정

1) 전지구 시스템

- IPCC 2019년 보고서⁵⁾에 따르면 세계 푸드시스템에서 생산 전후 활동과 관련된 배출을 포함할 경우 전지구 배출량의 21~3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음
- 유엔식량농업기구(FAO)⁶⁾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업 및 식량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65억톤CO₂eq.로 전지구 배출량의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함

2) 국내 산정결과

- 국가 푸드시스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작물재배, 가축사육, 음식료품 제조업, 음식점, 식품유통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연구결과⁷⁾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12,143천톤 CO₂eq.으로 산정되었으며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비중은 16%로 나타남
- 푸드시스템 온실가스 배출량 중 음식점업 에너지 사용량이 4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식품유통 27.6%, 가축사육 13.9%, 작물재배 11.7%, 음식료품 제조업 6.5%로 나타남

[표 2-3] 국가 푸드시스템 온실가스 배출량 및 비율(2019년 기준)

(단위 : 천톤 CO₂eq., %)

구분	작물 재배		가축 사육		음식료품 제조업	음식점	식품유통	합계
	에너지	비에너지	에너지	비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배출량	4,067	9,029	3,753	11,935	7,246	45,129	30,984	112,143
비중	3.6	8.1	3.3	10.6	6.5	40.2	27.6	100.0

자료 : 탄소중립을 위한 식품소비 단계의 온실가스 감축대안과 효과분석, 2022, 농촌경제연구원

5) IPCC. (2019). IPCC 기후변화와 토지 특별보고서_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6) FAO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공개 보고서. (2021). (재인용)

7) 농촌경제연구원. (2022). 탄소중립을 위한 식품소비 단계의 온실가스 감축대안과 효과분석

3) 전라북도 (추정)

■ 배출량 추정 개요

- 푸드시스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별도의 통계자료가 발표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 푸드시스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결과와 유사한 항목으로 전라북도 내 푸드시스템의 배출량을 추정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전라북도 온실가스 총배출량 중 푸드시스템이 차지하는 비중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값으로 가정 사항에 대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활용에 주의가 필요함

■ 추정방법 및 결과

○ 에너지 분야

- 식품제조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 전라북도 배출량 통계 '에너지_A.연료연소_2.제조업 및 건설업_e.식품료품 가공 및 담배 제조'의 직접 및 간접배출량의 합계 (2016~2020년 자료)
- 농업/임업/어업 활동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 전라북도 배출량 통계 '에너지_A.연료연소_4.기타_c.농업/임업/어업'의 직접 및 간접배출량의 합계 (2016~2020년 자료)
- 음식점업 : 선행연구⁸⁾의 음식점업 배출량 산정결과와 국가 배출량 비중(6.4%) 적용
- 식품유통 : 선행연구⁴⁾의 식품유통 배출량 산정결과와 국가 배출량 비중(4.4%) 적용

○ 비에너지 분야

- 작물재배 : 전라북도 배출량 통계 '농업_C.벼재배 ~ H.요소사용'의 합계
- 가축사육 : 전라북도 배출량 통계 '농업_A.장내발효와 B.가축분뇨처리'의 합계

- 푸드시스템 에너지 및 비에너지 배출량 합계를 추정한 결과 2020년 기준 전라북도 전체 배출량의 33%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산정됨

- 국가 푸드시스템 배출 비중이 2019년 기준 16%로 산정된 것과 비교할 때 전라북도

8) 탄소중립을 위한 식품소비 단계의 온실가스 감축대안과 효과분석, 20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는 32%로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농축산업 비중이 높은 전라북도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식생활 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2-4] 전라북도 푸드시스템 배출량 추정 결과

(단위 : 천톤CO₂eq.,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라북도 온실가스 총배출량		25,108	25,490	25,756	23,759	21,964
푸드시스템 합계		7,552	7,693	7,884	7,516	7,308
(비중%)		(30)	(30)	(31)	(32)	(33)
에너지	농업/임업/어업	895	993	1,033	1,014	989
	식품료품 가공 및 담배 제조	833	855	936	894	848
	음식점업	1,615	1,640	1,657	1,529	1,413
	식품유통	1,109	1,126	1,138	1,050	970
비에너지	작물재배	1,811	1,786	1,763	1,693	1,647
	가축사육	1,289	1,292	1,357	1,337	1,442

다. 식생활 관련 온실가스 감축효과 (원단위 검토)

■ 원단위 검토 개요

- 식생활 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실천내용 기준 당 온실가스 감축량(감축 원단위) 자료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문헌조사를 통해 감축 원단위를 조사하였음

■ 우리나라, 우리 지역 식재료 이용하기 (연간 130.8kg/인)

[표 2-5] 우리나라, 우리 지역 식재료 이용하기 실천내용 및 감축 원단위

구분		내용	
푸드시스템 단계		· 유통	
실천내용		· 식재료는 생산·유통·보관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므로 수입산보다는 국내산을, 먼 지역보다는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구매하는 소비습관이 필요함	
실천방법		· 국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구매하기 · 지역 농산물(로컬푸드) 매장 이용하기 · 텃밭 또는 화분과 같은 용기를 이용해 채소를 직접 키워 먹기	

국내산 소고기와 수입산 소고기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아동 시 배출량 포함)

구분	국내산 소고기	수입산 소고기
소고기 1kg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27.75kg	108.2kg

실천효과 (온실가스 감축)	1인당	·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	130.8kg
	국내 인구 10%	·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	677,272t
		· 경제적 효과	166.7억원
		· 나무 심는 효과	74,425,495그루

산출정보	감축원단위	· 국내산 소고기와 수입산 소고기의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를 바탕으로 도출 국내 전체 소고기 소비 비중(국내산 소고기 37%, 수입산 소고기 63%)에서 수입산 소고기 소비량 중 20%를 국내산 소고기로 소비한다고 가정	
	10% 기준	· 국내 총인구(51,779,203명)의 10% 적용	2019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환경부, 2021

■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이용하기 (연간 1.38kg/인)

[표 2-6]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이용하기 실천내용 및 감축 원단위

구분		내용	
푸드시스템 단계		· 소비	
실천내용		· 농축산물을 생산·유통·보관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므로 제품 구매 시 탄소 배출이 적은 제품을 선택함	
실천방법		· 농축산물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하기	
실천효과 (온실가스 감축)	1인당	·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	1.38kg
	국내 인구 10%	·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	7,146t
		· 경제적 효과	1.7억원
		· 나무 심는 효과	785,275그루
산출정보	감축원단위	· 일반사과 대비 저탄소 인증 사과의 이산화탄소 감축량에 1인당 연간 사과 소비량 10.3kg으로 가정하여 적용	
	10% 기준	· 국내 총인구(51,779,203명)의 10% 적용	2019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제도		·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	농림축산식품부
		· 그린카드 사업	환경부

자료 :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환경부, 2021

■ 학교 저탄소 식단 운영하기 (연간 0.7ton/학교)

[표 2-7] 저탄소 식단 운영하기 실천내용 및 감축 원단위

구분		내용	
푸드시스템 단계		· 소비	
실천내용		· 농축산물을 생산·유통·보관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여 저탄소 급식 문화를 조성해야 함	
실천방법		· 지역 농산물(로컬푸드) 메뉴를 구성하기 · 생산·유통·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줄이는 제철 식재료 메뉴를 구성하기 ·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국내산 식재료를 이용한 메뉴를 구성하기 · 조리시 열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생채 메뉴로 구성하기 · 푸드마일리지를 줄이기 위해 지역 농산물 및 국내산 농축산물 먹는날 캠페인 실시하기	
실천효과 (온실가스 감축)	우리학교	·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	0.7t
	전체 학교 10%	·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	820t
		· 경제적 효과	2천만원
		· 나무 심는 효과	90,110그루
산출정보	감축원단위	· 1.38kg/인(일반 사과 대비 저탄소 인증 사과의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적용하여 산출)	
	우리 학교 감축량	· 학교당 학생 수 456명, 교직원수 43명을 적용하여 1인당 연간 사과 10.3kg를 소비한다고 가정	2020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
관련 제도		·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	농림축산식품부
		· 법상의 탄소발자국 알아보기	환경부

자료 :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환경부, 2021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연간 4.3kg/인)

[표 2-8]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내용 및 감축 원단위

구분		내용	
푸드시스템 단계		· 폐기(재활용)	
실천내용		· 우리나라의 연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약 522만 톤이며, 분야별 발생량은 가정이 76%, 음식점이 17%, 사업장이 7% 수준(2019년 기준)	
실천방법		· 식단계획과 유통기한을 고려해 최소한의 식재료만 구입하기 · 식재료는 한 끼 분량으로 나누어 투명용기에 보관하고 식사량에 맞춰 조리하기 · 음식은 인원에 맞춰 주문하고, 먹지 않을 반찬은 미리 반납하기 · 음식은 남기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남은 음식은 다회용 용기에 포장해 가기 · 길이가 긴 채소류와 덩어리가 큰 수박껍질 등은 잘게 썰어 부피를 줄여 배출하기 · 찌개류는 국물을 버리고 찌꺼기의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기	
실천효과 (온실가스 감축)		1인당	·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 4.3kg
		국내 인구 10%	·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량 22,265t
			· 경제적 효과 5.5억원
			· 나무 심는 효과 2,446,703그루
산출정보	감축원단위	· 1인당 연간 음식물 쓰레기 온실가스 배출량에 음식물 감축률을 적용하여 산출음식물 쓰레기를 30% 줄이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	
	10% 기준	· 국내 총인구(51,779,203명)의 10% 적용	2019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환경부, 2021

■ 교육 정보효과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일 0.06~0.11kg/인)

[표 2-9] 교육 정보효과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실천내용 및 감축 원단위

구분	처치군1 (긍정정보)	처치군2 (부정정보)	처치군3 (홍보동영상)
육류섭취 감소량(kg/일)	0.011	0.009	0.017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kgCO ₂ eq./kg)	6.6117		
1인당 온실가스 감축 원단위 (kgCO ₂ eq./일/인)	0.08	0.06	0.11

자료 : 탄소중립을 위한 식품소비 단계의 온실가스 감축대안과 효과분석, 20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지역먹거리 체계 현황

가. 현황분석

1) 생산현황

■ 농가현황

- 농가수는 2022년 기준 90,455가구(도내 세대수 855,849호의 10.6%)로 전국 농가의 8.8%를 차지하며,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0.05%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농가인구는 183,295명(도내 인구수 1,769,607명의 10.4%)으로 전국의 8.5%를 차지하며,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3.18%씩 감소하여 전라북도가 전국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전국 연평균 1.65% 감소) 농업에 기반을 둔 전라북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충청남도(연평균 3.24%씩 감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농가인구 감소를 보임

[표 2-10] 전라북도 농가수 및 농가인구(2022년 기준)

구분	농가수(가구)	농가인구(명)	연평균 증감률('18-'22)	
			농가수	농가인구
전국	1,022,797	2,165,626	0.05%	-1.65%
전라북도	90,455	183,295	-1.20%	-3.18%
비중(%)	8.8%	8.5%	-	-

자료 : 국가통계포털, 농림어업조사, 행정구역(시군구)별 농가, 농가인구

*2022년 기준 전라북도 세대수 855,849호, 인구수 1,769,607명

■ 농축산물 재배현황

- 2018~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전라북도의 농산물 재배면적과 재배생산량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그 중 조미채소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연평균 29.1%씩, 16.4%씩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 이어 근채류와 엽채류, 과실류의 재배생산량이 14.1%, 10.4%, 8.2%씩 감소하며 재배면적도 큰 폭으로 감소함
- 반면 과채류의 경우 지난 4년간 연평균 재배면적 3.9%씩, 생산량은 2.6%씩 증가 추세를 보임

[표 2-11] 전라북도 농산물 생산현황(2022년 기준)

구분	재배면적(ha)				재배생산량(톤)			
	전국	전북	전국비중 (%)	연평균 증감률(%) ('18/'22)	전국	전북	전국비중 (%)	연평균 증감률(%) ('18/'22)
식량작물	852,506	139,198	16.3%	-1.5%	4,047,148	685,512	16.9%	-1.1%
과채류	40,858	4,102	10.0%	3.9%	1,761,337	203,665	11.6%	2.6%
엽채류	13,953	1,413	10.1%	-19.7%	1,352,346	148,019	10.9%	-10.4%
근채류	6,340	1,099	17.3%	-15.7%	483,819	85,057	17.6%	-14.1%
조미채소	40,023	2,382	6.0%	-29.1%	1,468,323	110,455	7.5%	-16.4%
과실류	44,283	3,136	7.1%	-26.2%	817,134	65,670	8.0%	-8.2%

자료 : 국가통계포털, 농작물생산조사. 식량작물 생산량(정곡), 채소생산량(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조미채소), 과실생산량(성과수+미과수)

■ 사육현황

- 2022년 4분기 기준 주요 가축의 사육규모는 축종별로 오리(전국 비중 21.8%)와 닭(전국 비중 18.4%)이 전국 2위로 높은 편이며 한우(전국 비중 12.8%)가 전국 3위, 돼지(전국 비중 12.2%)와 젓소(전국 비중 8.2%), 육우(전국 비중 7.6%)가 전국 4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2-12] 전라북도 주요 가축 사육현황(2022.4분기)

구분	한우(두)	육우(두)	젓소(두)	돼지(두)	닭(수)	오리(수)
전국	3,557,185	169,362	389,860	11,123,872	173,135,706	5,994,362
전라북도	455,103	12,950	31,820	1,360,049	31,793,831	1,308,960
비중(순위)	12.8%(3위)	7.6%(4위)	8.2%(4위)	12.2%(4위)	18.4%(2위)	21.8%(2위)

자료 : 통계청, 가축동향조사(2022.4분기), 축종별(한우, 육우, 젓소, 돼지, 닭, 오리) 시도별 농장수 및 마리수
※오리의 경우 전국 9개도 중 비중 순위를 비교하고, 그 외 축종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위를 비교하였음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현황

- 친환경농축산물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말함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는 정부가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

산물임을 인증해주는 제도로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로 분류함

- 2022년 기준 도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수는 전국의 7.3%(3,718호), 면적 7.4%(5,210ha), 출하량은 6.3%(27,989톤)을 점유하고 있음

[표 2-13] 전라북도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2022년 기준)

구분	전국				전북				점유율(%)			
	간수 (건)	농가수 (호)	면적 (ha)	출하량 (톤)	간수 (건)	농가수 (호)	면적 (ha)	출하량 (톤)	간수 (건)	농가수 (호)	면적 (ha)	출하량 (톤)
계	26,995	50,722	70,127	446,781	2,031	3,718	5,210	27,989	7.5	7.3	7.4	6.3
유기농산물	9,624	24,906	39,625	127,695	624	1,538	2,472	10,667	6.5	6.2	6.2	8.4
무농약농산물	17,371	25,816	30,503	319,086	1,407	2,180	2,738	17,322	8.1	8.4	9.0	5.4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 2022년 기준 도내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수는 전국의 11.1%(785호), 출하량은 17.5%(292,472톤)을 점유하고 있음
 - 유기축산물의 경우 전국 농가수의 19.8%(25호), 출하량의 45.4%(22,796톤)를 차지할 만큼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2-14] 전라북도 친환경축산물 인증현황(2022년 기준)

구분	전국			전북			점유율(%)		
	간수 (건)	농가수 (호)	출하량 (톤)	간수 (건)	농가수 (호)	출하량 (톤)	간수 (건)	농가수 (호)	출하량 (톤)
계	6,618	7,098	1,674,242	785	785	292,472	11.9	11.1	17.5
유기축산물	109	126	50,165	25	25	22,796	22.9	19.8	45.4
무항생제 축산물	6,509	6,972	1,624,077	760	760	269,675	11.7	10.9	16.6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2) 유통현황

■ 로컬푸드 직매장

-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은 총 3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 매출액 규모는 1,222

억원으로 완주군 소재의 12개의 직매장 매출액 비중이 전체의 48.5%를 차지함

[표 2-15] 전라북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현황(2020년 기준)

구분	매장명	개장(임시)	매출액(억원)	비중 (%)
합계	39	-	1,222	100.0
전주시 (6)	전주푸드(송천점)	ˆ 15.12.04	22.2	9.3
	전주푸드(종합경기장)	ˆ 16.08.12	18.5	
	전주농협(중화산점)	ˆ 16.11.10	16.9	
	전주농협(평화동점)	ˆ 17.02.15	13.4	
	전주농협(신성점)	ˆ 17.06.23	15.9	
	전주농협(아중점)	ˆ 18.07.01	26.9	
군산시 (2)	옥산농협	ˆ 14.06.27	52.8	5.8
	박물관(군산원협)	ˆ 15.09.21	18	
익산시 (3)	익산로컬	ˆ 16.03.01	76.9	8.9
	금마농협	ˆ 16.11.19	15.6	
	익산원협	ˆ 18.01.01	16.1	
정읍시 (4)	정읍원협	ˆ 14.11.13	52.2	6.7
	고모네장터	ˆ 17.04.06	8	
	정읍농협(수성점)	ˆ 17.11.02	7.4	
	정읍농협(상동점)	ˆ 17.12.28	14.5	
남원시 (2)	남원원협	ˆ 16.1.21(ˆ 15.5.8)	67.5	7.6
	남원농협	ˆ 18.06.21	25.7	
김제시 (3)	동김제농협	ˆ 14.07.10	67	5.9
	백구농협	ˆ 14.04.30	3.5	
	행복장터(공덕농협)	ˆ 17.11.30	2	
완주군 (12)	용진농협	ˆ 12.04.27	111.2	48.5
	용진농협(효자점)	ˆ 15.09.22	9.4	
	완주로컬(효자점)	ˆ 12.10.31(이전 ˆ 16.2.15)	114.2	
	완주로컬(모악점)	ˆ 13.07.27	56.7	
	완주로컬(하가점)	ˆ 14.01.29	57.7	
	완주로컬(둔산점)	ˆ 15.01.22	21.4	
	완주로컬(삼천점)	ˆ 15.08.08	35.6	
	삼락마켓	ˆ 16.10.15	62.7	
	상관농협	ˆ 13.07.04	10.9	
	고산농협	ˆ 13.07.25	47.9	
	소양농협	ˆ 13.11.26	18.3	
	봉동농협	ˆ 13.12.19	46.3	
진안군 (2)	진안마을	ˆ 15.04.15	0.4	5.0
	진안로컬	ˆ 19.01.25	60.8	

구분	매장명	개장(임시)	매출액(억원)	비중 (%)
무주군	-	-	-	-
장수군	-	-	-	-
임실군	-	-	-	-
순창군	순창로컬	ˆ 13.10.28	8.3	1.2
고창군	고창농협	ˆ 14.02.27	6.6	2.9
부안군 (2)	남부안농협	ˆ 17.09.21	8.5	0.8
	변산농협	ˆ 18.11.02	1.2	
도청	도청매장(동김제)	ˆ 15.12.08	2.9	0.2

자료 : 전라북도. (2021). 전라북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주)지역파트너플러스, & 커뮤니티링크협동조합. 재구성

■ 학교급식지원센터

- 도내 14개 시군전체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중이며, 2018년 기준 9,503.4톤(28,778,343천원)의 농산물을 공급하였음

[표 2-16] 전라북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사용실적 (2018.3~2019.2)

합계		일반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사용량(kg)	금액(천원)	사용량(kg)	금액(천원)	사용량(kg)	금액(천원)
9,503,352	28,778,343	4,245,467	12,873,983	5,257,885	15,904,361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자료 :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2019).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방안 연구

- 시군별 학교급식 운영주체 조직 및 생산농가 조직화 수는 미흡하며 친환경농가 중심으로 이루어짐
 - 친환경단체에서 공급하는 시군으로는 정읍시,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이 있음

[표 2-17] 전라북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구축 및 농가조직화 현황

지역	운영조직	생산조직	공급시기(지정)
전주시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경영기획실/전주푸드사업부/공공급식사업부)	(사)전주푸드생산자회	2017
		전주친환경영농조합법인	
군산시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경영지원팀/관리지원팀/원물팀/소분팀/배송팀)	우리영농조합(친환경농산물) 일반농가 조직화 중	2013

지역	운영조직	생산조직	공급시기(지정)
익산시	익산원협 (공공급식/군급식/온라인사업팀) 재단법인 설립(2021년)	익산학교급식영농조합법인	2021
정읍시	농업회사 친환경연합 (총무회계/배송/수집/소분)	정읍친환경연합회	2019
남원시	남원원협(서울공급)/남원학교급식(남농)	친환경 공선출하회	2018
김제시	지평선친환경급식센터(친환경)소분/배송	친환경농산물 출하농가	2014
완주군	재)완주군공공급식지원센터 (기획생산팀/공공급식팀/물류품질팀/소분포장팀)	출하농가	2014
진안군	진안로컬푸드영농조합 (수집/소분/배송)	진안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	2012
무주군	무주농협 (수주·발주팀/배송팀)	광역, 일반업체 조달	2013
장수군	친환경영농조합 (관리부/배송부/가공부)	장수친환경영농조합법인	2012
임실군	남농영농조합 (소분/배송/회계)	임실농협	2013
순창군	순창농협 (수집·소분·배송/회계/기타유통)	순창친환경연합영농조합법인	2013
고창군	고창친환경협동조합 (회계/소분/배송)	고창친환경생산자 영농조합법인	2013
		친환경쌀 작목반	
부안군	하서미래영농조합 재단법인 설립(2021년)	친환경농산물생산자연합회	2021

자료 :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2019).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방안 연구. 재구성

자료 : 전라북도. (2021). 전라북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주)지역파트너플러스, & 커뮤니티링크협동조합. 재구성

3) 가공현황

■ 식료품 제조업체

- 2021년 기준 전라북도 농식품 제조업체수는 4,762개소, 종사자수는 29,247명으로 전국대비 제조업체수 3.3%, 종사자수 7.4% 비중을 차지함

[표 2-18] 전라북도 식품제조업체 현황(2021년 기준)

구분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전북	4,762	3.3%	29,247	7.4%
전국	142,335	100.0%	394,533	100.0%

자료 : 통계청. (2020~2021). aT FIS식품산업통계정보. 식품제조업 사업체수, <https://www.atfis.or.kr/home/food/stats/IN.do?fdstld=75>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 전라북도. (2023). 2021년 기준 전라북도 사업체조사 보고서. 산업세세분류별 총괄.

■ 식품산업 현황

- 2021년 기준 전라북도의 사업체수는 전주시가 18.0%(856개소)로 가장 많지만 종사자수의 경우 국가식품클러스트가 위치한 익산시 21.1%(6,168명), 김제시 13.1%(3,842명), 군산시 12.7%(3,726명) 등 서부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19] 전라북도 시군별 식품산업 현황(2021년 기준)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개)	비율(%)	(명)	비율(%)
합계	4,762	100.0	29,247	100.0
전주시	856	18.0	2,363	8.1
군산시	512	10.8	3,726	12.7
익산시	650	13.6	6,168	21.1
정읍시	416	8.7	2,860	9.8
남원시	297	6.2	1,531	5.2
김제시	327	6.9	3,842	13.1
완주군	337	7.1	1,654	5.7
진안군	241	5.1	854	2.9
무주군	123	2.6	494	1.7
장수군	121	2.5	468	1.6
임실군	158	3.3	1,145	3.9
순창군	194	4.1	882	3.0
고창군	282	5.9	1,249	4.3
부안군	248	5.2	2,011	6.9

자료 : 전라북도. (2023). 2021년 기준 전라북도 사업체조사 보고서. 산업소분류 및 시군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식품 제조업

[표 2-20] 전라북도 식품산업 업종 현황(소분류)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업체당 종사자
		(개)	비율(%)	(명)	비율(%)	
합계		4,762	100.0	29,247	100.0	6.1
식 료 품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97	4.1	7,080	24.2	35.9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06	4.3	1,246	4.3	6.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468	9.8	1,919	6.6	4.1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22	2.6	552	1.9	4.5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44	0.9	1,117	3.8	25.4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710	14.9	2,368	8.1	3.3
	기타 식품 제조업	2,716	57.0	11,894	40.7	4.4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35	2.8	1,609	5.5	11.9
음 료	알코올음료 제조업	111	2.3	1,076	3.7	9.7
	비알코올음료 및 얼음 제조업	53	1.1	386	1.3	7.3

자료 : 전라북도. (2023). 2021년 기준 전라북도 사업체조사 보고서. 산업소분류 및 시군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식
료품 제조업

4) 소비현황

■ 공공급식

- 2018년 기준 전라북도 학교, 어린이집, 공공기관, 관공서 2,250개소의 전체 급식인원 수는 약 309,052명 정도로 파악됨

[표 2-21] 전라북도 공공급식 규모

구분	개소	인원수(명)	급식일수(일)	단가(원/식)	금액(백만원)
학교기관	공립유치원	35	8,038	190	3,971
	초등학교	424	98,117	190	48,470
	중등학교	209	48,986	190	30,714
	고등학교	133	59,166	190	37,097
	특수학교	10	1,096	190	687
어린이집	1,398	49,630	240	2,000	23,822
공공기관, 관공서	29	36,580	240	3,500	30,727
혁신도시 이전기관	12	7,439	240	3,642	6,502
합계	2,250	309,052	-	-	181,990

자료 : 인원수는 2018년 기준, 급식단가는 학교기관 2019년 기준 적용. 어린이집과 공공기관은 임의설정

자료 :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2019).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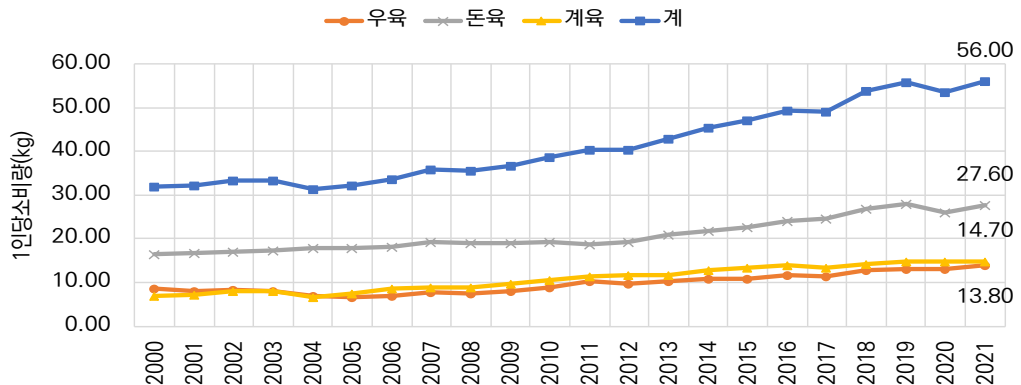
■ 육류 소비현황 (전국)

- 국내 육류 소비는 2021년 기준 56kg/인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2] 전국 연간 육류 소비량(2000~2021)

연도	전체소비량(톤)				1인당소비량(kg)			
	우육	돈육	계육	계	우육	돈육	계육	계
2000	402,381	779,908	327,298	1,509,587	8.51	16.50	6.92	31.93
2001	384,054	807,421	350,300	1,541,775	8.11	16.80	7.30	32.21
2002	402,683	810,447	384,989	1,598,119	8.45	17.00	8.00	33.45
2003	390,247	834,059	375,319	1,599,625	8.14	17.40	7.90	33.44
2004	327,776	856,682	318,849	1,503,307	6.80	17.90	6.60	31.30
2005	316,853	838,479	356,743	1,512,075	6.74	17.82	7.58	32.14
2006	330,554	874,704	416,849	1,622,107	6.84	18.11	8.63	33.58
2007	368,749	931,339	433,787	1,733,875	7.61	19.22	8.95	35.78
2008	365,116	926,764	435,991	1,727,871	7.51	19.10	8.97	35.58
2009	395,536	915,534	469,128	1,780,198	8.11	19.10	9.62	36.83
2010	431,299	940,620	522,310	1,894,229	8.83	19.25	10.69	38.77
2011	505,847	937,643	566,185	2,009,675	10.16	18.84	11.37	40.37
2012	486,021	960,000	579,371	2,025,392	9.72	19.20	11.59	40.51
2013	519,002	1,049,300	579,944	2,148,246	10.34	20.89	11.55	42.78
2014	542,312	1,118,965	647,077	2,308,354	10.76	21.80	12.83	45.39
2015	553,769	1,166,407	675,755	2,395,931	10.90	22.80	13.40	47.10
2016	593,800	1,219,000	703,100	2,515,900	11.60	24.10	13.80	49.50
2017	582,700	1,272,382	696,600	2,551,682	11.30	24.50	13.30	49.10
2018	653,700	1,334,452	772,000	2,760,152	12.70	27.00	14.20	53.90
2019	672,000	1,390,000	761,700	2,823,700	13.00	28.00	14.80	55.80
2020	668,000	1,325,000	727,600	2,720,600	13.00	26.00	14.70	53.70
2021	716,000	1,466,000	763,300	2,945,300	13.80	27.60	14.70	56.00

자료 : (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2023). 소비현황 통계자료 2000~2021



[그림 2-1] 전국 1인당 육류 소비량(kg)(2000~2021)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정책 현황

○ 저탄소 채식 급식 현황 ('저탄소 채식의 날') 시범학교)

- 전북도내 단설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희망 신청을 받아 매년 선정. 시범학교는 '저탄소 채식의 날'을 주 1회 운영하고 기존 식단에 주 2회 이상 채식(과일) 메뉴를 추가로 제공함
- 또한 육류와 육가공품 및 인스턴트 식품 등 탄소배출이 많은 가공품은 자제하고 지역 식재료를 이용한 채식 식단을 구성해 학생건강 증진을 도모함. 또 탄소발생을 줄이는 나물·조림·찜 등 한국형 전통 식단의 요리방법의 식단 구성을 권장함
- 학교 환경생태교육과도 연계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자유학기제 주제선택 활동·동아리 활동 등에 채식 급식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환경생태교육을 권장함
- 전북도교육청의 '채식레시피 개발 TF팀'에서 개발한 저탄소 채식식단 레시피를 제공하고 학교 식단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채식식단 식재료지원 사업) 전북도교육청은 2021년 채식식단 희망학교 19개교, 7,250여명에 채식식재료 구입비를 지원(실제급식일수 반영 학생 1인 1식, 50원 추가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육류위주 식습관을 개선하고 채식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체질을 개선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음

[표 2-23] 전라북도교육청 '저탄소 채식의 날' 시범학교 운영현황



연도	시범학교 선정	비고	운영방식
2014	총 74개교	신규 18개교, 기존 56개교	주 1회 시범운영
2015	88개교, 1개원	신규 14개교, 1개원 추가, 기존 74개교	
2016	95개교, 1개원	신규 8개교	
2017	103개교, 2개원	신규 7개교, 1개원 추가	
2018	-	-	학교별 자율운영
2019	132개교	희망학교에 한함	
2020	-	-	
2021	19개교	희망학교에 한함	

자료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9) 2014년 이전부터 2021년까지 '채식의 날'로 명명하다가 2022년부터 '저탄소 채식의 날'로 변경하여 명명함

5) 폐기(재활용) 현황

■ 음식물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2020년 기준 전라북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816.9톤/일이며, 종량제방식 등 혼합배출의 가연성 음식물류폐기물은 41.8톤/일(5.1%), 분리배출 음식물류폐기물은 775.1톤/일(94.9%)로 조사됨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진안군, 김제시, 정읍시 순으로 많았으며 전주, 군산, 익산 3개시의 발생량이 전라북도 총 발생량의 7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 시군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현황은 다음 표와 같으며, 대부분의 음식물류폐기물은 재활용으로 처리되고 있음

[표 2-24] 전라북도 시군별 생활계폐기물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20년 기준)

구분	처리현황(톤/일)								발생현황(톤/일)	
	재활용		소각		매립		기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톤/일, %)	
소계	666.1	81.5%	24.4	3.0%	27.0	3.3%	99.3	12.2%	816.9	100.0%
전주시	264.8	32.4%	11.1	1.4%	0.0	0.0%	0.0	0.0%	275.9	100.0%
군산시	107.7	13.2%	2.1	0.3%	13.6	1.7%	80.9	9.9%	204.4	100.0%
익산시	87.2	10.7%	6.0	0.7%	0.0	0.0%	0.0	0.0%	93.3	100.0%
정읍시	38.2	4.7%	2.4	0.3%	0.9	0.1%	0.0	0.0%	41.5	100.0%
남원시	17.8	2.2%	0.0	0.0%	5.7	0.7%	0.0	0.0%	23.5	100.0%
김제시	25.2	3.1%	0.0	0.0%	0.0	0.0%	18.3	2.2%	43.6	100.0%
완주군	32.3	4.0%	1.5	0.2%	0.0	0.0%	0.0	0.0%	33.8	100.0%
진안군	52.8	6.5%	0.0	0.0%	0.3	0.0%	0.0	0.0%	53.1	100.0%
무주군	3.5	0.4%	0.0	0.0%	2.4	0.3%	0.0	0.0%	5.9	100.0%
장수군	2.0	0.2%	0.7	0.1%	0.8	0.1%	0.0	0.0%	3.5	100.0%
임실군	5.2	0.6%	0.0	0.0%	0.0	0.0%	0.0	0.0%	5.2	100.0%
순창군	4.0	0.5%	0.4	0.1%	0.3	0.0%	0.0	0.0%	4.7	100.0%
고창군	14.1	1.7%	0.0	0.0%	1.1	0.1%	0.0	0.0%	15.1	100.0%
부안군	11.4	1.4%	0.0	0.0%	2.0	0.2%	0.0	0.0%	13.4	100.0%

자료 : 환경부, (2020).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생활계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음식물류폐기물 시군구 현황)

- 전라북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공공 5개소, 민간 5개소로 총 10개 시설 847톤

/일이며, 바이오가스화나 퇴비화, 건조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됨

- 2020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560.4톤/일을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음폐수는 333.4톤/일로 조사됨
-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제품은 퇴비로 생산되고 있으며 그 양은 16,026톤/년으로 조사됨

[표 2-25] 전라북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현황(2020년 기준)

구분	시군	명칭	설치일 또는 인허가일	시설 용량 (톤/일)	처리 방법	2020년				비 고
						음식 물류 폐기물 처리량 (톤/일)	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음폐수		재활용 제품(퇴비) 생산량 (톤/년)	
							발생량및 처리량 (톤/일)	처리시설		
계		10개소	-		-			-		
공공	소계	5개소	-		-			-		
	전주시	전주리싸이클링 에너지(주)	'14.05.08.	300	바이오 가스화	229.5	123.0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3,158	
	남원시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18.06.01.	20	바이오 가스화	16.7	0	-	-	
	김제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09.01.09.	35	퇴비화	24.8	20.0	김제 공공하수처리시설	626	
	고창군	고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07.04.09.	20	퇴비화	14.6	9.7	친환경대현그린	2,260	
	부안군	부안군 음식물 자원화시설	'00.12.14.	7	퇴비화	10.4	6.2	부안군 환경센터 침출수처리시설	172	
	소계	5개소	-		-					
민간	군산시	(주)금호엔비텍	'13.07.16.	150	퇴비화	89.8	66.2	군산하수종말처리장	1,961	
	익산시	KCB바이오자원 (주)	'08.11.20.	125	기타 (건조)	93.5	54.7	익산공공하수처리장 (52.1), (주)홍보에너지(2.6)	2,407	
	정읍시	정읍자원화(주)	'05.03.28.	50	퇴비화	19.8	13.9	친환경대현그린(13.9)	861	
	남원시	농업회사법인 비이테크	'16.07.24.	80	퇴비화	8.4	0	-	4,000	탈수 과정이 없어 음폐수 발생X
	진안군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아삭	'00.10.18.	60	퇴비화	52.9	39.7	친환경대현그린(33.0),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 운(6.6) (주)비이테크(0.1)	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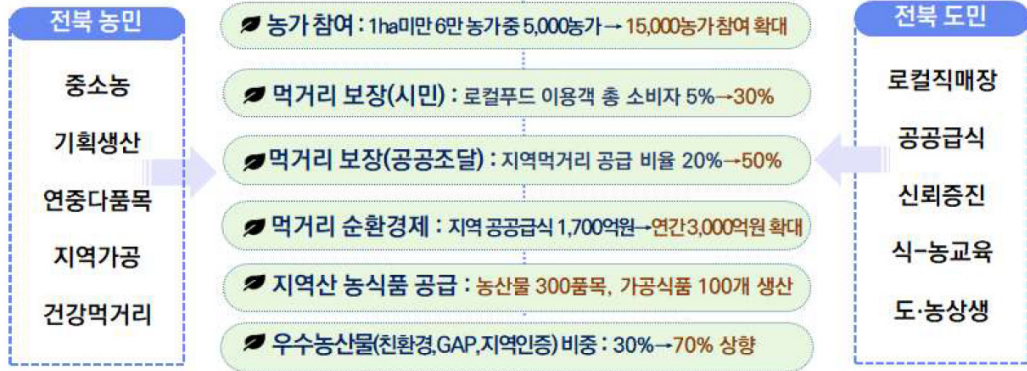
자료 : 환경부. (2020). 2020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나. 식생활 관련 지역 먹거리 전략

- 전라북도 푸드플랜(2022~2026)¹⁰⁾ 전략 및 주요사업을 검토하였음
- 비전 : 지역순환 먹거리체계 구축으로 도·농이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전라북도
- 전략목표 : 1)도민의 먹거리 공공성 강화, 2)중소농 소득, 일자리 창출, 3)지역순환 경제로 지역 활성화
- 추진전략별 주요과제 (중점과제 14개, 핵심정책 31개로 구성)
 - 공공형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 기획생산 확대, 농식품 DB 구축·연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범사업 등
 - 도민에게 건강한 먹거리 보장 :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복지급식 지역 농식품 공급, 생활권 직매장 개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로컬푸드 활성화 등
 - 먹거리 상생 도농 협력 활성화 : 계층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농식품안전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먹거리 축제, 도시농업/공유부엌 활성화, 힐링에듀센터 운영 등
 - 함께하는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 : 먹거리 관련 조례 제·개정, 먹거리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푸드플랜 시민학교 운영, 시민사회단체 공감대 확산 등

10) 전라북도. (2021. 6.). 전라북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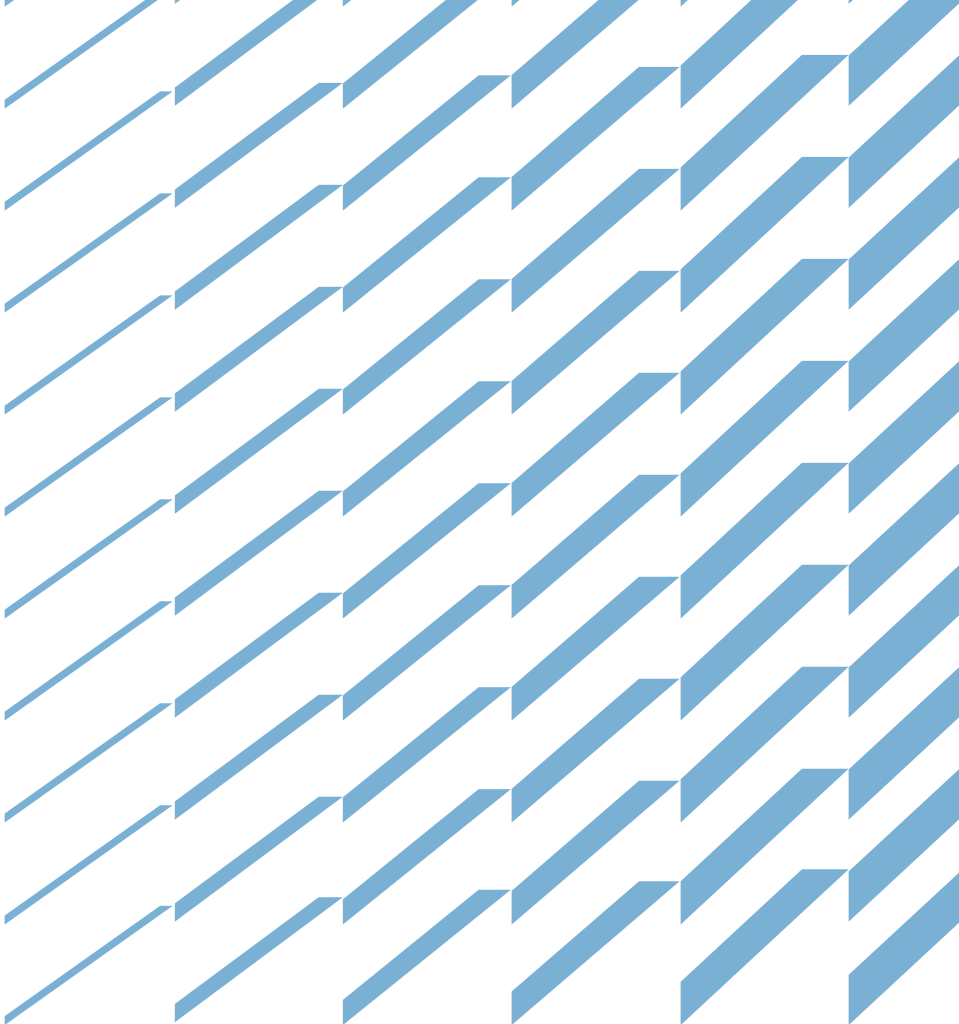
건강한 도민, 행복한 농민, 활력 있는 전북



<전라북도푸드플랜 성과지표>

구 분		현 재 (2021)	단기목표 (2022~2023)	중기목표 (2024~2026)	비 고
공공형 지역먹거리 순순환체계 구축	농가조직화 (1ha미만 6만농가)	5,000농가 (8.3%)	10,000농가 (17%)	15,000농가 (25%)	- 시군별 기획생산체계 구축 - 시군 중소농 참여 확대 - 시군 푸드플랜수립(22년 완료) - 시군 먹거리통합센터 설치
	시군 통합센터 (공공형 운영조직)	4개소	7개소	14개소	
도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보장	로컬푸드직매장	39개 (1,222 억원)	45개 (1,300 억원)	50개 (1,500 억원)	- 시군 생활권 직매장 개설 - 공공급식(학교) 지역농산물 공급비중 확대 - 농식품 로컬푸드 공급확대 - 사회적 취약계층 공급망 구축 (전체 36만명) - 전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공공급식 (1,500 억원)	200억원 (13%)	500억원 (33%)	700억원 (46%)	
	학교급식 (1,225 억원)	300억원 (25%)	500억원 (41%)	700억원 (58%)	
	복지급식 (36 만명)	1.8만명 (5%)	10만명 (27%)	20만명 (55%)	
먹거리상생 도농협력 활성화	식생활교육	3,000여명	6,000여명	10,000여명	- 도민 식생활 교육 확대 (학생, 소비자, 생산자 등) - 시군 농식품 안전성 관리체계
	농식품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3개 시군	7개 시군	14개 시군	
함께하는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	먹거리 거버넌스	6개 시군	14개 시군	14개 시군	- 도·시군 먹거리 거버넌스 운영 - 14개 시군 공공형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먹거리 기본조례 제·개정 - 푸드플랜 참여 도민 확대
	공공형 운영조직	4개 시군	7개 시군	14 개 시군	

[그림 2-2] 전라북도 푸드플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제3장

탄소중립 식생활 이슈 도출

1. 식생활 전환 심층 인터뷰 개요
2. 심층 인터뷰 결과



제3장 탄소중립 식생활 이슈 도출

1. 식생활 전환 심층 인터뷰 개요

가. 인터뷰 목적 및 방법

- (목적) 심층 인터뷰의 목적은 전라북도 식생활 전환(채식) 현황을 조사하고 현재 또는 향후 예상되는 이슈를 도출하여 전북도정에서 추진 가능한 정책대안 모색에 있음
-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식생활 전환(채식)을 실천중이거나 실패한 이용(참여)자, 식생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자, 채식관련 식재료 또는 식당을 운영하는 공급자의 3그룹으로 구분하여 수행
 - 이용자 : 전북연구원 도민정책 모니터링단(전라북도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1,300여명의 전북도민)에서 채식 실천 및 경험자 대상 모집 (추가 모집 필요시 관계자 추천 등 반영). 이용자는 현재 실천 중인 사람과 과거 실천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 실천하지 않는 그룹으로 분리하여 인터뷰 시행
 - 관리자 : 식생활교육네트워크, 전북교육청, 전북도청 등에서 식생활 전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선정
 - 공급자 : 로컬푸드 관계자, 비건식당 운영자 등 채식 식단 관련자 중 인터뷰 참여의사가 있는 자를 선정
- (조사기간) 2023년 8~9월
- (조사방법) 사전 질의지를 배포하고 대면을 통해 개인 및 그룹 인터뷰(FGI) 진행

- 인터뷰 대상자 목록 및 세부정보는 다음 표와 같음

[표 3-1] 식생활 전환(채식) 심층인터뷰 대상자 현황

연번	대상구분	식생활 전환(채식) 현황 및 비교 (진행여부 / 실천기간 / 빈도)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1	이용자	과거경험 / 5개월 / 매끼	남	30	장수군
2	이용자	과거경험 / 6개월 / 매끼	남	30	진안군
3	이용자	현재진행 / 20년 / 저녁한끼	여	30	익산시
4	이용자	현재진행 / 2년 / 매끼	남	50	전주시
5	이용자	과거경험 / 3년 / 매끼	여	40	순창군
6	이용자	현재진행 / 4년 / 매끼	남	40	진안군
7	이용자	현재진행 / 15년 / 매끼	여	50	남원시
8	이용자	현재진행 / 2~3년 / 간헐적	여	50	익산시
9	이용자	현재진행 / 4년차 / 매끼	여	20	전주시
10	관리자	소비자관련기관 대표	여	60	전주시
11	관리자	음식문화관련 사회적기업 대표	남	50	전주시
12	관리자	교육청 급식담당자	여	-	전주시
13	관리자	행정관계자_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담당자	여	-	-
14	관리자	행정관계자_푸드플랜 담당자	남	-	-
15	관리자	행정관계자_식생활교육 현 담당자(23년 8월~)	여	-	-
16	관리자	행정관계자_식생활교육 전임담당자(~23년 7월)	여	-	-
17	관리자	행정관계자_식생활전환 정책과제 담당	여	-	-
18	공급자	채식브런치카페 사장	여	20	전주시
19	공급자	채식식당 사장	남	20	전주시

나. 심층 인터뷰 내용

■ 이용자1 (현재 실천 중)

- 개인의 식생활을 결정하는 요인별 조사영역을 구분하고 영역별 세부 질문을 작성하여 인터뷰 진행

[표 3-2] 심층 인터뷰 조사영역 및 세부내용 (이용자1_현재 실천 중)

조사영역	조사 세부내용
1. 응답자 일반 특성	- 거주지, 직업, 식생활 관련 특이사항 등 - 현재 본인이 실천하는 채식유형(비건~플렉시테리언)은? - 채식을 실천한 기간은? (플렉시테리언의 경우 빈도는?) - 채식을 실천하게 된 사유는?
2. 생물학적 특성	- 채식이 입맛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 채식에 따른 신체의 변화는 어떠한지?
3. 경제적 특성	- 채식에 따른 경제적 상황은 어떠한지? (기존대비 저감 또는 추가) - 경제적 요인이 식생활 전환(채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4. 물리적 요인	- 채식 실천에 따라 (조리시간 증가 등) 물리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는지? - 조리법, 식당 등의 식생활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5. 사회적 요인	- 타인에게 채식을 권유받거나 권유한 적이 있는지? - 채식을 같이하는 주변인 또는 동료는 있는지? - 채식 실천에 따라 사회활동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6. 심리적 요인	- 채식 실천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다면? - 채식을 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이유로) 죄책감을 가질 수 있는지?
7. 문화적 요인	- 채식이 환경, 건강, 사회(특히, 기후위기 대응)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채식을 유지할 계획인지? - 저탄소 채식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 저탄소 채식이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지?
8. 정책 수요 조사	- 채식 관련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인식교육의 중요성은? - 공공급식에서 채식의 날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저탄소 채식 활성화를 위해 행정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기타 식생활 전환을 위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은?

■ 이용자2 (과거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미실천)

- 개인의 식생활을 결정하는 요인별 조사영역을 구분하고 영역별 세부 질문을 작성하여 인터뷰 진행

[표 3-3] 심층 인터뷰 조사영역 및 세부내용 (이용자2_과거경험 현재는 미실천)

조사영역	조사 세부내용
1. 응답자 일반 특성	- 거주지, 직업, 식생활 관련 특이사항 등 - 과거 본인이 실천하였던 채식유형(비건~플렉시테리언)은? - 채식을 실천한 기간은? (플렉시테리언의 경우 빈도는?) - 채식을 실천하게 된 사유와 그만두게 된 사유는?
2. 생물학적 특성	- 채식이 입맛에 잘 맞다고 생각하였는지? - 채식에 따른 신체의 변화는 어떠하였는지?
3. 경제적 특성	- 채식에 따른 경제적 상황은 어떠하였는지? (기존대비 저감 또는 추가) - 경제적 요인이 식생활 전환(채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는지?
4. 물리적 요인	- 채식 실천에 따라 (조리시간 증가 등) 물리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었는지? - 조리법, 식당 등의 식생활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였는지?
5. 사회적 요인	- 타인에게 채식을 권유받거나 권유한 적이 있었는지? - 채식을 같이하는 주변인 또는 동료이 있었는지? - 채식 실천에 따라 사회활동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6. 심리적 요인	- 채식 실천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 현재 채식을 하지 않아 (다양한 이유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지?
7. 문화적 요인	- 채식이 환경, 건강, 사회(특히, 기후위기 대응)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향후에 다시 채식을 실천할 계획이 있는지? - 저탄소 채식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 저탄소 채식이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지?
8. 정책 수요 조사	- 채식 관련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인식교육의 중요성은? - 공공급식에서 채식의 날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저탄소 채식 활성화를 위해 행정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기타 식생활 전환을 위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은?

■ 관리자

- 식생활 전환의 필요성, 여건, 현황, 이슈, 정책디자인으로 조사영역을 구분하고 영역별 세부 질문을 작성하여 인터뷰 진행

[표 3-4] 심층 인터뷰 조사영역 및 세부내용 (관리자)

조사영역	조사 세부내용
1. 응답자 일반 특성	- 거주지, 근무지, 기타 특이사항 등 - 식생활 관련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업무 기간은?) - 개인적으로 채식을 실천하고 있는지? - 채식을 실천한다면 그 사유는?
2. 식생활 전환의 필요성	- 채식이 환경, 건강,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저탄소 채식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 저탄소 채식이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지?
3. 식생활 전환의 여건	- 전라북도 식생활 전환의 여건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 지역 푸드플랜이 식생활 전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4. 식생활 문화 현황	- 현재 전라북도의 식생활 전환 인식은 어느 정도이고 향후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 타인에게 채식을 권유받거나 권유한 적이 있었는지?
5. 식생활 전환 이슈	- 식생활 전환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채식실천에서 민원인 또는 교육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6. 정책 디자인	- 식생활 전환에서 가장 효율적인 인식전환 방법은 무엇인지? - 식생활 전환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보제공 방법은 무엇인지? - 저탄소 채식 활성화를 위해 행정에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 기타 식생활 전환을 위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은?

■ 공급자

- 식생활 전환의 필요성, 여건, 현황, 이슈, 정책디자인으로 조사영역을 구분하고 영역별 세부 질문을 작성하여 인터뷰 진행

[표 3-5] 심층 인터뷰 조사영역 및 세부내용 (공급자)

조사영역	조사 세부내용
1. 응답자 일반 특성	- 거주지, 영업장, 기타 특이사항 등 - 현재 운영 중인 영업장 유형과 주요 메뉴는 무엇인지? (사업 기간은?) - 개인적으로 채식을 실천하고 있는지? - 채식을 실천한다면 그 사유는?
2. 식생활 전환의 필요성	- 채식이 환경, 건강,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저탄소 채식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 저탄소 채식이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지?
3. 식생활 전환의 여건	- 전라북도 식생활 전환의 여건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 지역 푸드플랜이 식생활 전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4. 식생활 문화 현황	- 현재 전라북도의 식생활 전환 인식은 어느 정도이고 향후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 최근 채식 고객의 특성, 만족도는 어떠한지? - 채식 식당을 운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5. 식생활 전환 이슈	- 채식 실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저탄소 채식 관련 메뉴 개발 및 판매할 계획이 있는지?
6. 정책 수요조사	- 식생활 전환에서 가장 효율적인 인식전환 방법은 무엇인지? - 식생활 전환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보제공 방법은 무엇인지? - 저탄소 채식 활성화를 위해 행정에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 기타 식생활 전환을 위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은?

2. 심층 인터뷰 결과

가. 심층 인터뷰 분석

1) 식생활 전환에 따른 (결정 요인별) 변화

가) 건강상 변화

- 식생활 전환에 따른 건강상의 변화로 체중감소, 규칙적인 배변활동, 후각의 예민함, 채취와 냄새의 변화 등을 느꼈으며 심적으로 평온함과 안정감을 느낀
- 식생활 전환 후에 혈당과 혈압은 줄고 근육량은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서 올랐고 주변에서 피부가 좋아졌다고 했었음. 체중감소의 효과가 있었는데 식단 없이 운동만 했다면 체중감소는 없었을 것 같음 (심층면접 1_이용자)
- 고기 섭취량이 어느 정도건 간에 고기 먹은 다음에는 몸의 붓기가 잘 빠지지 않는 등의 변화가 있어서 무용학원 수강생 아이들에게 채식을 권유하고 있고 육류대신 닭가슴살 섭취, 샐러드 식사를 권유함. 어릴 때는 변화를 못 느끼다가 성인이 된 후 느끼는 점은 채식식단 후 다음날 일어날 때 속이 편함 (심층면접 3_이용자)
- 식사시 섭취 순서를 정해서 채소과일 먼저 섭취하며... 규칙적인 배변활동도 됨. 고기섭취 시 속이 더부룩한데 채식을 하니 몸이 가볍고 체중감소도 되고 공복에 정신이 맑아지듯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벼워짐을 느낌 (심층면접 4_이용자)
- 육식을 별로 안해보기도 했고 어쩌다가 단체화식 시 고기를 섭취하게 되면 속이 불편할 정도로 몸에 맞지 않음. 채식자들은 체취가 심하지 않은 것 같음. 땀 냄새부터 다르게 느껴지는게 어떤 사람들은 땀냄새가 역하게 나기도 함. 피치 못할 때 수건을 한번 쓰고 또 쓰는 경우에도 냄새가 심하지 않음 (심층면접 7_이용자)
- 3년 채식하고, 미국 거주 3개월 후부터 육류를 섭취하게 되면서 몸무게가 8kg 정도 증량됨. 식사량을 줄이고 채식을 병행하면서 체중감소의 변화가 있었고 변자체에서 냄새가 덜났음. 육류섭취하면서 변의 냄새가 진해짐을 느꼈음 (심층면접 5_이용자)
- 음식에 육류를 갈아넣거나 섞어서 모르고 먹었다가 나중에 확인 후 알게 되면, 의식이 몸을 지배하게 된건지는 모르겠지만 몸에서의 반응이 안 좋고 배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음. 아침 기상시 개운하고 활력이 생기고 과장일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평온해졌음. 육식이 주는 폭력성이 조금씩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있었음 (심층면접 6_이용자)
- 맵고 짠 음식이 주로 고기베이스의 음식이 많은데 채식 실천기간동안 자연스럽게 자극적인 것을 많이 안먹게 되고... 실천기간동안 체중감소나 다양한 변화는 없었으나... 고기 섭취를 안하는 대신 포만감을

늘리기 위해 탄수화물과 채소 섭취량이 늘어났음 (심층면접 2_이용자)

- 고기를 먹으면 부대끼는데 소고기를 선호하지않는 이유는 느끼하고, 소고기미역국보다 어패류를 넣은 미역국을 선호하기도 함. **채식을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또 후각이 발달해서 채소향에 대해 음식에 뭐가 들어갔는지 아이들이 먼저 알아챈** (심층면접 8_이용자)
- 고기 금식이후에 대체식품을 찾기 전까지 어지러움을 느낌. **몸의 상태에 대해 인지가 쉬웠음**. 헬스트레이너를 많이 받았는데 체지방지수를 측정하면 그전보다 오히려 체질개선된 정도임. 육식을 하면 체하거나 악몽을 꾸기도 했음. 잘 모르고 하몽파스타를 섭취 후 하몽이 육류임을 알고 난 후 엄청난 죄책감이 들었음. **채식하면서 후각이 예민해짐** (심층면접 9_이용자)
- 당연히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나 건강적인 면에서는 잘 모르겠음. 육류를 대량 생산하는 체제로 변화하면서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모든 병이 사라졌다고 책에서 읽음. 그래서 **채식이 건강에 유의미할거라는 것은 개별사항인 것 같음** (심층면접 9_이용자)

나) 경제적 변화

- 식생활 전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 증감여부는 개인여건에 따라 상이하였으며, 기존 식단에서의 선택적 섭취할 경우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응답함

(기존대비 감소 또는 변동 없음)

- 배달음식 횟수가 줄어들어 **전체생활비의 반정도로 식비지출이 크게 줄었음**. 실천기간 동안의 화식, 모임은 거의 하지 않았음 (심층면접 1_이용자)
- 적극적으로 사서 먹거나 투자하진 않고 **먹던 식단에서 빼는 것으로 선택적으로 섭취중이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은 크게 없음** (심층면접 6_이용자)
- **육류가 돈이 더 들어감**. 채소의 경우 발이 필요한데 시골에 발을 가지고 있어서... 채식으로 크게 경제적인 부담은 없음 (심층면접 8_이용자)

(기존대비 증가)

- 기존에 먹던 것에서 채식을 선택하다보니, **육류 대체식품으로 콩고기 따로 구입해야 하고 가금류와 어패류를 안 먹을 때는 비용이 더 늘었었음**. 부족한 식사량은 대체식품으로 따로 챙겨먹는 식으로 실천하였음. 채소도 슬라이스 소분된 걸 먹다가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냉동채소 소분되어 나온 제품을 먹게 되고 키트형태의 제품 구매 비용도 올라가고... **채식용 소스류 사는 비용이 들고 마켓에서 구입하면 아무리 작은 것을 사도 버리게 되는 일이 더 많음** (심층면접 2_이용자)
- **육류보다 채식이 식비지출이 증가함**. 만들어 먹는 시간보다 사서 먹는 시간이 많은데 코로나 이후부터

는 물가 상승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이 증가함 (심층면접 3_이용자)

- 1인 가구로 가끔 요리해먹는데 학교에서 밥을 먹거나 밖에서 밥을 먹으니까 경제적 상황 변화를 느끼기 어려우나, 주말의 경우 가족과 함께 있으므로 **제대로 된 채식식단을 할 경우 식비지출비용이 크게 올라감** (심층면접 4_이용자)
- 어머니의 말씀처럼 고기는 안먹지만 입은 채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함부로 먹기 보다는 유기농채소, 생업을 먹는데 **경제적 부담이 들어갈 수 있지만 고기 한덩어리보다는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큰 부담은 없음 (심층면접 7_이용자)
- 2011년도에 채식하면서 생활비가 100~150만원 정도 증가했음. 그때만 해도 유기농, 친환경제품을 찾기 힘들었음, 매장에 가서 찾으면 보통 상추 2천원이 유기농상추는 4천원~5천원하니까... 식단준비에 별도로 거의 100~150만원 정도 증가했음. **아예 중에서도 유기농을 찾다보니 더 증가하였음** (심층면접 5_이용자)
- **원물을 그대로 생산하거나 재배하지 않고 밖에서 생활하면서 사먹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있음.** 지원이 많은 축산업에 비해 채식은 그렇지 않아서 채식 비건푸드 가격대가 높고 가공제품이 비교적 비싸게 느껴지고 그에 비해 소비자 체감에 오히려 너무 싼 것이 있으므로 비교군으로 삼게 되어 소비자는 경제적 상황에 좌지우지 됨 (심층면접 9_이용자)

다) 물리적 변화

- 식생활 전환에 따라 일부 조리시간이 단축되고 조리법이 간단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불편함이 증가하는 것으로 응답함

(식재료 관리 및 보관의 어려움, 음식물쓰레기 발생 증가, 신선도를 위한 잦은 빈도의 소량구매)

- 채소는 많이 사야 저렴한데 많이 사면 금방 상하고 신선도가 떨어짐. **안그래도 먹기 싫는데 신선도가 떨어지면 더 먹기 싫음** (심층면접 1_이용자)
- **집에서 요리하면 돈이 많이 들고 관리가 어려우니 잘 안먹게 됨** (심층면접 2_이용자)
- **식재료의 보관, 관리가 어렵고 신선도가 떨어지며 음식물 쓰레기양도 많아지게 됨.** 집 앞 마트로 매일 장을 봐야 함. 밀키트가 편하지만 채식주의자에 맞는 채소의 양이 아니라서 채소를 더 추가해서 식사량을 맞추며, 밀키트의 채소는 양이 적으면서 가격은 비쌈 (심층면접 3_이용자)
- 요리하지 않고 사먹는 편인데, 택배를 시키면 탄소발자국이 더 많아지므로 아이러니함. 요리를 하게 되면 시간이 부담스럽고 택배, 사먹을 곳이 없어서 불편함. **재료를 신선한 것을 사야 하므로 장을 자주 봐야 하고 일회용품 배출이 많아져서 불편할 수도 있음** (심층면접 9_이용자)
- 채식 위주이므로 소량으로 구매해야 하고 **길게 보관하기가 어려움** (심층면접 4_이용자)

(번거로운 식단 준비와 조리법)

- 육아 성장기에 자녀의 단백질 공급 측면을 고려하면서 주말에는 육식하는 배우자와 함께 식사 시 찌개, 국을 따로 끓여서 일반식단과 채식식단으로 **두 개의 식단을 꾸려야 하므로 식단준비의 번거로움이 있음** (심층면접 3_이용자)
- 아이들 먹을 **야채 소스를 직접 만들어주니까 시간적 부담이 둘**. 레서피대로 구입하고 갈고, 조리해야 되니까 만드는 데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림 (심층면접 5_이용자)

(외식의 제약, 식재료 구입 환경의 어려움)

- 외식이나 회식할 때 외식 식당이 거의 한 90%가 육류를 포함하는 곳이라서 **채식만 취급하는 식당은 거의 없어서 불편함**. 그래서 단조로운 외식으로 변화했음. 진안군 내에는 채식 메뉴가 있는 식당 몇 군데만 고정적으로 가게 되고 다른 어디를 가도 먹기 힘들고 불편하니까 식사자리에 선뜻 따라가기는 힘들 (심층면접 6_이용자)
- **밖에서 외식할 때에는 메뉴 정하는 것이 불편하고**,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할 때는 채소를 주로 절이거나 익히거나 쪄므로 **오랜 시간과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해서 식단준비에 신경써야 하는** 점이 불편함 (심층면접 3_이용자)
- 미국 거주시에 대부분의 식재료가 육류 중심이라서 채소를 찾기 힘들었고 채식을 위한 식재료 구입이 어려웠음. 시작은 두드러기 건강 영향 때문에 시작했으나 미국에서 잠깐 생활할 때에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채식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음** (심층면접 5_이용자)
- (식생활 전환 소비 여건) **외식할만한 식당이 없고 비건실천을 위해서는 개인식단을 따로 행겨야 하고**, 요리를 못하는 사람은 밖에서 사먹기가 힘들 (심층면접 19_공급자)

(시간단축)

- 관리는 오히려 유기농은 보관이 오래됨. 조리시간은 최대한 많이 여러 가지 안섞고 원재료 자체를 먹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조리시간이 짧고 간소하고 간편해졌음** (심층면접 7_이용자)

라) 심리적 변화

- 식생활 전환에 따라 맛과 식감의 불만족, 채식을 방해하는 외부유혹, 소외감, 요리과정과 재료를 고려한 음식선택의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응답함
- 고기를 먹었을 때의 감칠맛이 없고 다른 식재료에 비해 금방 씹고 넘어가고 식감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채식이 입맛에 맞지 않음. 건강상 때문에 채식했으나 맛도 만족스럽지 않았고 다른걸 먹게 되면서 다시

채식을 시도할 자신이 없음. 실천 중에도 **각종 미디어, 먹방, 주변식당의 유혹에 자조적인 생각이 들었고 스트레스를 받았음**. 가족들과 식사시 먹고 싶으면서도 먹지 못하는 것에 소외감 느낌 (심층면접 1_이용자)

- 학교근무하면서 급식식단에서 육류만 안 먹는 것도 되게 어려웠음. 또 근무하는 학교의 회식자리나 친목모임에서 장역할을 주로 맡았는데, 파스타집을 가도 오일파스타면 괜찮다고 생각이 들다가도 오일파스타에도 고기를 먼저 볶는 과정이 있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스트레스가 되었음. 가려먹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싶었고** 장을 볼 때 동물복지 유정란을 선택하고 소고기를 먹더라도 (탄소발자국이 적은) 한우를 먹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4~5년 전에 채식을 중단함. 결혼하고 채식을 시작하다가 아이 출산 이후 불편함을 겪으면서 채식을 중단하게 됨 (심층면접 2_이용자)
- 한번씩 삼겹살이 당기는 **고기의 중독성으로 본인 스스로의 스트레스가 있음** (심층면접 4_이용자)
- 코로나 이후로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서 직접 요리를 하다보니 육류 섭취의 자체가 어려워져 채식 실천과 중단을 반복하면서 혼자만의 싸움을 함. **고기를 먹고 싶어서 스트레스를 받았음** (심층면접 5_이용자)
- **고기 먹고 싶을 때, 한번씩 마음의 짐 없이 먹고 싶을 때가 어려움** (심층면접 10_관리자)

마) 사회관계 변화

- 식생활 전환에 따라 일부 비실천자들로부터 배려를 받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회식, 소모임의 참여가 저조해지고 단조로운 인간관계로 변화하게 되었음

(사회관계의 어려움)

- 실천기간 동안의 회식, 모임은 거의 하지 않았음. 술과 고기가 있는 약속이나 모임에 초대받아도 거절하다보니 주변사람들이 걸러지고 **애매했던 관계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정리되었음**. (심층면접 1_이용자)
- **점심약속이 대부분 고기 위주의 식사라서 참여가 어려우며** 참여하게 되면 쌀밥, 밀반찬만 먹고 올 때도 있음 (심층면접 3_이용자)
- **한국사회에서 단체생활하거나 회식문화에 있어서 채식식단을 지키기가 어려움** (심층면접 6_이용자)
- 가족끼리 식사할 때, 되도록 적게 먹고 가능한 야채를 먹는데 혼자 배신한다는 소릴 듣거나 회식 메뉴 선정할 때 소고기 대신 닭고기를 추천하면 분위기 깬다는 소릴 들음. 채식 실천중에도 문득문득 안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나만 해야 할까도 싶고, **채식하는 사람이 더 불편한 상황과 시간적, 심리적, 경제적 으로 불이익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심층면접 4_이용자)
- 회사 다닐 때에는 밥을 따로 먹기 시작하다보니 식사할 때 나누는 업무 이야기에다 뒤처지고 회사에 적

응을 못하고 혼자 **나가서 따로 노는 친구로 인식함**. 회식을 가면 한쪽에서 상추만 먹고 있는데 채식실천 중임을 모르는 사람은 챙겨주는 마음에서 고기를 얹어주기도 함. 점점 불편해지는 경우가 지속발생되면서 퇴사하게 됨 (심층면접 9_이용자)

- 밥을 먹을 때 친구들과하고 먹을 때 본인 때문에 고기를 못 먹는 상황이 미안해서 억지로 따라는 감. 고기를 안먹고 파스타를 먹게 되어도, 바로 앞에서 스테이크 썰면 힘드니까 채식주의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달라고 친구들에게 부탁함. **갈 수 있는 음식점을 먼저 제시하고 안되면 카페에서 민담을 유도함**. SNS에 고기사진을 게시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게시하는 사람은 팔로우를 끊다보니 친한 사람들이 정리되었음.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비건 지향하시는 분들과만 어울리게 됨** (심층면접 9_이용자)

(비식천자의 배려)

- 환경단체이다 보니 식사할 때도 비건 식사, 샌드위치, 간식 본인행사시 준비함. 참여할 때도 알아서 준비를 해줌. **그 기회에 다른 분들도 맛볼 수 있음. 오프라인에서는 많이들 신경써주고 배려해줌** (심층면접 9_이용자)
- 그전 직장생활 할 때에는 회식장소를 정할 때 애로가 있었으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배려를 해주었음. **비식천자들도 한번씩 채식으로 건강에 좋은 거 먹어보자는 문화가 형성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 그러나 채식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화합에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음 (심층면접 7_이용자)
- 채식실천하는 1년 동안 채식도시락을 따로 챙겨서 모임을 다니니까 **모임에서 샐러드 메뉴쪽으로 모임 장소를 바꿨음**. 처음에는 도시락 없이 안먹으니까 다른이유로 안먹나보다 했었는데 먹을 도시락을 챙겨다니니까 변화가 있었음 (심층면접 5_이용자)

2) 식생활 전환의 계기

가) 다양한 개인여건

- 식생활 전환은 건강, 동물권, 기후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개인여건에 따라 실천결심의 계기가 다양함
 - 외부로부터 영향 받지 않고 스스로 생각해서 채식을 실천했던 것이고 채식을 권유하는 외부의 영향을 받기보다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였음** (심층면접 1_이용자)
 - 채식이 필요하다는 교육의 영향은 있지만 유의미한 객관적 통계가 없어서 많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지 않음. **채식교육 영상을 보고 자극받아서 스스로 채식을 실천하기도 하고** 사춘기 애들의 경우 철학처럼 장기실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학생 비율이 높은 편임. 그래서 **여고에서 채식실천의 움직임이 더 큼** (심층면접 2_이용자)
 - 본인의 경우 **집안의 사정으로 채식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나 채식 관련된 서적이나 SNS홍보 교육으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함 (심층면접 3_이용자)
 -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동물의 사육 환경을 생각하여 실천하였는데 **어머니가 집에서 비건식으로 음식을 주니까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었고**, 이제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적으로도 채식을 하는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서 본인도 함께 실천하게 됨. **처음 계기는 동물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시작하여 기후변화의 환경적 사유로 인해 채식 실천함** 가족의 영향을 받아 채식하게 되고 채식카페도 어머니와 함께 운영중임. 가족중 동생과 언니도 채식중이며 아버지는 채식지향주의 정도임 (심층면접 18_공급자)
 - 채식하는 여러 동기가 동물권, 환경, 건강 크게 세가지만을 생각했는데 종교적인 분위기도 꽤나 큰 것 같음. **종교적인 채식은 불교만 생각하는데 무슬림도 할랄푸드 대체로 채식을 찾고** 종교 관련해서는 기금씩 기독교 종파에서 주류 교단은 아니지만 일부 종파에서는 채식을 강력하게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나이가 꽤 드신 종교인들이 가게에 자주 오셨었음 (심층면접 19_공급자)
- 기후변화가 식생활 전환의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식생활 전환의 실천논리를 온실가스 문제로만 설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 **채식이 환경 변화에 요인의 주가 되기보다는 환경적인 농업, 환경적인 육류생산 쪽으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 싶음** (심층면접 2_이용자)
 - 2030은 환경측면 접근, 4050은 건강측면,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으로 건강을 위해 하시는 분이 많음. 다각도 접근해야 할게 건강하시는 분의 논점은 건강에 좋으면 고양이든 박쥐든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 오류가 있음. 환경에서만 접근해도 위험한 게, 소에서 메탄 많이 나오는데 소에서 마스크를 씌우면 동물

권에서 맞을까 의문이 듦. **환경, 동물권, 건강을 종합하여 아우르는 논리를 찾아야 한다** 생각함 (심층면접 9_이용자)

- **채식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물의 인도주의적인 인식이 좀 더 크고 그 외의 기후변화 때문에 채식한다는 생각을 하진 않는 것 같음** (심층면접 18_공급자)
- 채식실천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요소이지만 자부심이 자만심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데 학생들보다 어른들과 이야기할 경우 그런 경우가 더 많음. 채식이 사회문화적 유행인지, 정말 **채식이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어 사회적 흐름으로 가야하는지 어려운 것 같음** (심층면접 2_이용자)

나) 외부매체

- 외부매체(서적, SNS, 홍보, 교육)로부터 영향을 받아 식생활 전환실천을 결심하게 되었음
 - 채식을 시작하게 된 영향은 **ESG 키워드로 받았고, 2050거주불능지구 책에도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것에 채식이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심층면접 4_이용자)
 - **채식의 좋은점, 이로운 점을 계속 듣다보니 채식 실천의 동기부여가 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접적 영향을 계속 받고 있음** (심층면접 7_이용자)
 - 본인도 채식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서적이거나 SNS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꾸준히 얻으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함. 채식전환의 계기가 '사랑할까 먹을까' 라는 동물의 딜레마를 다룬 북콘서트로 관련 영화도 본 경험이 있음. **6개월 앞서서 채식전환한 지인이 전환의 계기가 됐던 책으로 추천해줬는데 본인도 채식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되었음** (심층면접 6_이용자)
 - **티비에서 비건하시는 분이 나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콩고기 만드는 걸 보면서 맛에 대한 궁금증으로 구매해본 적은 있음** (심층면접 8_이용자)
 - **최근에 SNS 영향을 받고 '초식마녀'라고 채식하는 만화가 분이 계시는데 비건하면서 연애, 결혼 이야기를 다루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됨** (심층면접 9_이용자)

다) 경제적 영향

- 식생활 전환을 결심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개인 선택인 만큼 큰 영향은 없다는 의견도 있음

(경제적 영향 있음)

- 고기같은 경우에는 제철이 없고 언제나 구입이 가능하나 채소는 제철이 있어서, 제철이 아닐 때 구입하면 그만큼의 비용이 더 지출됨. 고기는 보관도 쉽고 유통도 훨씬 쉬움. 손이 많이 가는 채식 유지식단 조리법이 귀찮아서 샐러드 사먹으려고 하면 비용이 더 들. **기존 식비에서 더 지출이 늘어난다면 채식 실천이 어려웠을 것임** (심층면접 1_이용자)
- 채식도 유기농이라든지 브랜드화처럼 되는 것 같음. 채식을 제대로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 왜냐하면 야채는 대용량 구매하면 빨리 물리게 되어 소량으로 구입할 때가 많음. **경제적 요인이 채식 실천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함**. 채식을 전환해서 정년기로 올라갔으면 소비액수가 줄텐데 그 단계까지 넘어가는데에 비용이 확실히 많이 들. 실천 6개월째에 경제적 압박을 받으면서 굳이 채식실천을 이어나가야 하나 당위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음. 경제적 논리관점에서 다시 채식을 할 수 있는 적정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봄. 예를 들어 인공육, 방목으로 키운 청정우, 케이지에서 키우는 소고기 중 3개의 가격이 어느 정도로 맞춰지면 채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생각함. 유기농과 비유기농 있을 때 경제적 논리가 강하게 작용함. **다시 채식을 시작할 수 있는 트리거가 어느 정도의 가격인가를 많이 생각해봄** (심층면접 2_이용자)
- 채식과 발효제품 연계, 레시피 등의 **채식 관련 교육을 받으려면 비용이 수반됨** (심층면접 3_이용자)

(경제적 영향 미미함)

- 본인은 주어진 음식에서 뺄 것은 빼고, 선택적으로 섭취하는 것이라 **경제적 요인의 영향이 크게 느껴지지 않음** (심층면접 6_이용자)
- 경제적 요인 때문에 채식을 못하겠다 정도는 아닌 것 같음 (심층면접 7_이용자)
- 채식함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은 10~20%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때때론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함. 차상위계층 외에는 **식비 10~20만원에 큰 영향이 있지 않고 채식실천은 본인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음** (심층면접 9_이용자)

3) 식생활 전환 여건 및 저탄소 채식 활성화 전망

가) 식생활 전환 여건

- 푸드시스템 단계(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를 고려할 때 전라북도 식생활 전환 여건은 타지역 대비 기반은 좋으나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음
 - [생산/유통][로컬푸드 개선] **로컬푸드 운동, 푸드플랜 선진지라고 유통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일부 직매장이나 농가의 유통만 원활함.** 예를 들면 완주 로컬푸드 매장이 분산되어 있어서 농가에서 매일 아침 자기가 소포장해서 매장 매대에 갖다 놓고 안 팔린 걸 수거해 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농가는 많지 않음. 정작 소농, 가족농, 고령농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동 수단과 그걸 출일 수 있는 직원들이 있는 대농들 중심으로 상당 부분 돌아가고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빠르게 제대로 시스템을 지켜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이 필요한 것임 (심층면접 11_관리자)
 - [유통][로컬푸드 개선] 이게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유통되다보니 주로 다니는 큰 식자재 마트의 식재료는 서울 가락시장에서 새벽에 떼어오는 것이었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게 부산 농산물도 서울로 갔다가 전주로 오는 시스템임. 그래서 로컬푸드가 더 싸겠다 싶었는데 찾아보니 그렇지도 않음. **탄소발자국면에서 로컬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로컬푸드를 고려했지만 저렴하지가 않아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보통의 식자재 마트에서 구매하고 있음.** 현실적으로 로컬푸드를 연계해서 구매하기가 어려움 (심층면접 19_공급자)
 - [가공][지역경제 활성화 논리] **저탄소 식단에 맞는 가공은 돈을 벌기 위한, 매출을 올리기 위한 가공 시설로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음.** 지역 특산물을 히트쳐서 경제 살리자가 되어 농사해서 가공품 만들어 파느니 어떤 공장하나 유치하는게 훨씬 쉬워진다는 논리로 빠질 수 있음 (심층면접 11_관리자)
 - [소비][인식전환 필요] 농도라도 해도 **다수가 소비자들로 소비자의 인식전환의 교육이 필요함** (심층면접 11_관리자)
 - [소비][노출기회 부족] **사람들이 채식으로 전환하려면 식단을 많이 접해보거나 비건이나 채식 관련 체험이나 기회가 많아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음.** 비건을 하지만 어디 나가서 외식을 할 때 음식점이나 마켓이 적어서 불편했음. 인터넷으로 비건을 이런거구나 알지만 일반인이 접근하여 실제 실천하기에는 쉽지 않은 여건임 (심층면접 18_공급자)
 - [소비][채식 활성화 교육 부족] 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채식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다른 교육에 채식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임.** 기존 프로그램에 하나의 가지로 채식내용이 있지만 채식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정도임. 현재 채식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음 (심층면접 17_관리자)
 - [소비][저탄소 채식 프로그램 부족] 전라북도 식생활교육네트워크는 하나밖에 없음. 교육프로그램 보면 대부분이 음식만드는 기법에 대한 교육임. 5대영양소에 맞춘 건강식에 대한 것인데 **저탄소 채식에 대한 교**

육프로그래밍은 미비함. 지역사회단체 행사에 요리만드는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도 있지만, 농산물 명단 자료를 보면 저탄소 채소를 활용하여 만드는 교육은 전혀 없이 만드는 기법의 교육임. **식생활교육네트워크의 운영자나 강사, 교육자가 저탄소 채식에 대한 인지와 교육을 받아서 얼핏지 중에서 그 중 한 두 꼭지는 저탄소 채식 관련한 교육을 해야겠구나 하는 것이 필요함** (심층면접 10_관리자)

- [소비][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도교육청 주무관도 초중고 학생에게 단백질 공급이 중요한데 제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화를 내셨음. 채식의 날에 잔반으로 버리거나 급식먹으러 오지도 않고 매점가서 사 먹는다고 하시더라 말하심. 학생들에게 채식식단을 하면 1인당 100원을 지원해줬다가 올해부터 바뀌어서 시범학교에 학교에 300만원 지원해주는데 그 운영비로 교육을 해도 되고 홍보물 만들거나, 교육자료를 구입해도 된다고 함.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한 채식을 위해서 먹거리를 먹는 그런 건 아니고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음.** OO은행은 매주 금요일에 채식을 하는데 면종류, 과일, 분식먹는 날로 여겨 형식적으로 운영 되고 있음 (심층면접 17_관리자)
- [폐기][인식부족] 음식물쓰레기도 먹고난 후 식탁에서 긁어낸 것보다도 **가정에서 썰어서 버리거나 조리과정에서 예쁜부분을 선택하면서 잘라내는 부분의 쓰레기가 훨씬 많음.**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함 (심층면접 11_관리자)

○ 농도인 전북은 대도시에 비해 구입처가 근거리로 저렴하게 식재료를 구입하기 좋은 환경이고 식비 부담보다 개인의 실천의지 영향이 크다는 의견도 있었음

- [전주기][기반 여건은 좋음] 경기도에 있다가 전북으로 거주지를 옮겼는데 **대도시에 비해 전북은 경제적 영향이 미치지 않음.** 전북에서는 손수 농사짓는 분에게 직접 구입할 수도 있는데 대도시의 경우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봄. 구입처가 좋은 환경인 곳으로 가야하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있음 (심층면접 5_이용자)
- [전주기][기반 여건은 좋으나 개선 필요] 농도 전북이며 완주 로컬푸드 신화가 있는 도시, 푸드플랜 1호 도시 전주로서 밑바닥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급속도로 가속화되는 고령화, 지역소멸, 기후위기 대응하면서 지자체가 역으로 개발논리 중심으로 되면서 식생활여건의 밑바탕이 있었는데 한편에서는 농도 전북을 표방하다가 가난뱅이 되었다, 이를 극복하는 개발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농생명이 진부하다는 이야기가 있음. **전라북도의 식생활 전환의 여건은 나쁘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한계가 있고 돈 버는 개발논리로 빠지게 되면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여건도 좀 악화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됨** (심층면접 11_관리자)

나) 식생활 전환 인식현황

○ 식생활 전환에 대한 부모, 사회적, 소비자 관점에서의 잘못된 인식,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

- 주변 사람들이 고기를 안먹어서 뼈쩍 말랐다고들 말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또 **부모는 채식하면 서도 아이는 커야 하므로 고기를 먹여야 한다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고기 안 먹여도 아이는 잘 큼** (심층면접 7_이용자)
- **못난이사과가 유기농작물이어도 사람들이 상품성 높은 보기에 좋은 것을 찾으니**까 우리의 인식의 전환도 필요함 (심층면접 7_이용자)
- 채식은 좋은 것, 안하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미묘한 교육자료가 많음……. **한가지 문제점은 채식이 옳다 그르다로 가버리게 되는 것임.** 옛날마인드의 학부모는 채식교육에 부정적이며 교육을 통해 설명을 하지만 그럼에도 채식이 용납이 안되는 사람이 있음. 채식은 유난이다 생각하는 인식개선이 필요함 (심층면접 2_이용자)
- 실천중에는 최대한 주변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주변으로부터 유난편다는 인식이 스트레스임. 건강을 생각하면 술을 줄여야 하는데, 술은 먹으면서도 채식을 실천하니까 인식이 좋지 않음. 또 옛날마인드의 어른들은 채식과 폐미를 연결지어 생각하는 등 채식하는 사람들을 보는 잘못된 통념화가 있음. 그래서 채식을 그만두거나 채식실천하면서도 채식을 한다고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들음. **채식한다고 하면 끼달스럽고 남들은 불편해하고 인정과 이해를 못하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음** (심층면접 2_이용자)
-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은 이해를 해주지만 **대부분 끼달스럽다고 느낌** (심층면접 3_이용자)
- **고기를 주변 대접을 받았다는 우리나라 인식이 조금 불편함.** 요리해서 내놓았을 때 고기가 없으면 뭔가 빠졌다는 인식, 성의가 없다, 부족하다고 인식함 (심층면접 8_이용자)
- **상견례 자리는 소고기, 한우, 추석선물 들고 갈 때 한국 정서상 (고기가 없으면) 불편함.** 또 아이나 어른 대상으로 교육할 때 맛이 없을 것 같다는 편견이 주임 (심층면접 9_이용자)
-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의 반발이 있음. 자원순환, 기후위기, 탄소중립으로 쓰레기 잘버릴게요. 등 반응이 좋는데 비건 수업하는 순간 고기먹는다는 등 반응이 달라짐. **강사님들이 실패한 교육자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음에서 오는 스트레스, 인식전환이 쉽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음** (심층면접 9_이용자)
- 온라인 SNS 계정에 **비건에 대한 교육글을 올려놓으면 악플이 달리기도 함.** 비건교육에 대해 소수의 사람들이 반감이 있는 듯함. 비건 자체가 반감이 있음. 비건 비비고 채식만두를 맛있다고 했던 아이가 비건만 두라고 밝히니까 맛없다며 그만먹겠다고 하는걸 보니, 비건이라는 단어에 반감이 있음. 브런치카페도 비건인데 비건이라는 단어를 내세우지 않는데 손님이 많고 그사람들은 비건음식인줄 모르고 비건음식을 맛있다고 먹고있음 장사가 잘되고 있음 (심층면접 9_이용자)
- 육류보다는 채식을 하는 게 좋다는 것은 많이 홍보가 되었고 이렇게 식생활 인식이 바뀌고 홍보되는데에도 10년, 20년이 걸렸음. **식생활은 개인의 기호이기도 하지만 비건, 채식 실천자를 모나고 좀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학교 공공급식에서도 '저탄소 채식의 날'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 운영될 뿐, 모든 학교에서 받아들여진 않음. **채식문화가 정착하기 힘든 이유는 사회적으로 수용성이 없기 때문임** (심층면접 10_관리자)

- 수년전 몇 다리 건너의 어떤 사람이 고기를 안먹는다고 하니까 어렸을 때 집이 가난했었나, 고기를 먹고 크게 체했었나, 그럼 뭘 먹고 기운내고 에너지를 내는데? 의아해하고 궁금할 정도로 **사람들의 인식에도 채식은 생소함** (심층면접 17_관리자)
- **친환경 유기농에 대한 오해가 있음**. 소량이고 소비자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서 고급지고 있는 사람들의 먹는 것이라는 이미지인데 본래의 취지는 인공적인 모습 짓을 버리고 적게 먹더라도 건강하게 자연순환질서에서 먹자는 가장 소박한 운동임 (심층면접 11_관리자)
- 인식 전환에 대해서도 비건식당에서 먹고 가는 사람들이 그냥 음식이랑 비슷한 맛이고 **비건도 별다르지 않구나하고 굳이 특별하다고 생각안했으면 좋겠음** (심층면접 19_공급자)

○ 식생활 전환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부족으로 가치를 체감하지 못함

- **몰라서 채식실천을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함**. 닭, 소, 돼지의 도축과정, 사육환경을 알고 동물들의 카르마가 있다면, 도축시 남는걸 섭취하는 입장이란 걸 안다면 그 욕구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함 (심층면접 6_이용자)
- **채식실천자 외에는 채식의 중요성을 모름** (심층면접 7_이용자)
- 순대국밥집에서 순대를 빼달라고 하면 사장님을 데려옴. 다들 ‘뭘 들은거지?’ 란 반응임. 서울, 부산의 식당에서는 비건에 대한 인지나 추천메뉴에 선택옵션이 있는데, 전주에서는 사장님을 데려오거나 ‘뭘라고요?’ 되문거나 돈을 내어드릴 수 없다는 반응으로 비건, 채식에 대한 알아 없음. **지방은 채식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사업장이 이해를 하면 특정 재료를 빼줄 수 있는데, 교육이 되지 않아서 이해를 못함** (심층면접 9_이용자)

다) 정보획득 방안

○ (이용자) 식생활 전환의 정보는 주로 인터넷, 유튜브, 앱, SNS를 통해 얻거나 오프라인으로는 동아리활동, 소모임, 커뮤니티를 통해 레시피나 정보를 얻음

- 어머니에게 조리법을 여쭙보거나 맛있는 샐러드 요리법 등의 유튜브를 참고 했음 (심층면접 1_이용자)
- 특별히 집에서 요리 할 때는 재료를 빼기만 하지 추가로 첨가하진 않았음 (심층면접 2_이용자)
- 열을 많이 가하지 않고 찜, 데치기, 무침으로 조리하며 조리법을 인터넷, 유튜브로 찾아봄 (심층면접 3_이용자)

- 예전에는 책으로 많이 얻었고 요즘엔 인터넷에서 지속적으로 얻고 있음 (심층면접 7_이용자)
- 'OO한끼'라는 앱을 사용해서 채식식당을 확인하고 그 외에는 특별히 정보획득에 시간이나 노력을 쏟진 않음 (심층면접 6_이용자)
- **채식을 하고 싶어도 정보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방법 자체를 모르기도 함.** 영양사인 친구에게서 정보를 얻고 채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 오가닉 매장에서 장보면서 친구를 뱃어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정보 공유도 함. 환경분야 교수님 한분을 따라다니면서 순천향대학병원에서 비건 모임활동도 했었고 가끔 친환경 농가에 방문하면 채식 관련 정보를 많이 주심 (심층면접 5_이용자)
- 고기만 빠진 것이지 조리하는데 찌개나 생식(샐러드)에는 정보를 찾아보지 않고 **조리법의 불편함은 못 느끼는 것 같음** (심층면접 8_이용자)
- 비건을 지향할 하면서 청년끼리 맛있는걸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나 SNS 어플을 찾아보는 편. 전주에서는 제로볼모지 같은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빈티에서 런칭전 제품을 협찬 받아볼 수 있음. 비건뉴스가 요즘 동향, 제품출시 소식을 얻고 전국적으로 비건식당 구독해놓은 상태이고 그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니즈가 있어서 **이에 직접 국가 사업(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공모(행안부 사업)형태의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에 비건이라는 특성을 넣었음.)을 따서 요리프로그램을 만들었음.** 대상지역 안에서 비건 옵션이 있는 음식점 사장을 섭외해서 같이 함께 만들어먹자는 커뮤니티(온라인)활동중임. 주로 제로볼모지(이산화탄소 제로를 위한 불편한 모험이라는 뜻) 커뮤니티, 온라인으로 정보를 얻고 있고 '무해한 아올식탁' 통해 레시피공유로 함께 만들어 먹음 (심층면접 9_이용자)
- 4년 전에는 거의 비건이 없어서 영향을 받지 못했음. 시작한게 **주위에 한명씩 앞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영양학적인 비건 의사들을 섭외해서 정보를 요구해서 강연자리를 만들고 교육을 만들어감** (심층면접 9_이용자)
- **(공급자) 식생활 전환(채식) 제공을 위해 직접 요리연구를 하며 레시피 연구 및 메뉴를 개발함**
 - 다른 요리법을 참고하거나 따로 배운 건 아니고 **원래 요리를 좋아해서 이것저것 만들어보며 직접 소스도 만들고 메뉴 개발도 함.** 튀김옷에 일반적으로 계란이 들어가는데 개발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계란없이도 반죽 비율을 잘 맞춰서 튀김요리를 하는 비건튀김 방법을 터득했고 비건튀김을 하는 매장으로 유일함 (심층면접 19_공급자)
 - 예전부터 서울이나 다양한 곳에서 비건 음식을 먹어보고 이야기하면서 레시피까지 만들게 되었음. **꾸준히 메뉴 개발 중으로 어머니와 함께 직접 메뉴를 만들고 있고 아버지가 요리를 잘해서 도움을 주심.** 아버지는 고기를 드시는데 이런저런 느낌을 내면 좋겠다 등의 아이디어를 주시며 대체식품으로 콩고기의 요리법과 맛을 함께 고민함 (심층면접 18_공급자)

라) 저탄소 채식 활성화 전망

- **(긍정적 전망)** 저탄소 채식이 환경, 건강,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됨
 - 다양한 음식의 맛을 포기하고 채식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맛이 엄청 좋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 음식의 맛을 포기하면서까지 실천하기는 어려우며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의문이지만, 환경적인 면에서는 소고기, 돼지고기를 얻기 위해 많은 사료를 먹이고 메탄가스가 발생되고 자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아보카도 같은 채소가 아닌 이상, **채식이 고기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함** (심층면접 1_이용자)
 - 축매제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함. 기초적인 식육구에 대해 고민하고 매일 매끼 먹는 문제로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은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음. **육식보다 채식이 기후에 도움이 되는게 맞다고 생각함** (심층면접 4_이용자)
 - 실천을 안하는 것보다 **클라이머테리안처럼 간헐적 고기섭취와 한달에 한번 정도의 채식이 시발점인 계기가 되어 점점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봄** (심층면접 7_이용자)
 - 저탄소채식이 의미가 있고 좋은 시도가 될 수 있지만 더 적극적인 필요가 있다 생각함. 서울시는 공무원한테도 채식급식을 시행한 적도 있고 **전라북도도 조금 더 액티브하게 강제성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함** (심층면접 9_이용자)
 - 당연히 결론적으로 채식식단으로 변경하면 사회변화는 확실히. **오히려 사회변화를 위해 채식, 저탄소 식단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함**. 환경적으로는 지나친 육류 섭취로 인한 개인의 건강도 문제,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환경에도 문제지만 저탄소 채식 운동에 친환경 농업, 친환경 먹거리가 꼭 되어야 한다고 봄 (심층면접 11_관리자)
 - 채식을 중심으로 고기대신 채소로 바꾼다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 못살았던 시기에 배불리 먹는게 최고다라는 것에서 **이제는 비워기는 비움의 음식으로 가야함**. 또 가공식품과 인스턴트로 채워가는 편리함의 음식이 대부분 고기를 담은 음식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라도 채식 중심으로 가면 사회변화에 도움이 될 것임 (심층면접 11_관리자)
 - 지역사람들과의 연대순환공동체를 형성하여 소비자, 생산자(공급자)가 서로 다른 입장이지만 소비자가 생산자(공급자)농민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격려해야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물건으로 보답할 수 있는 **이런 유기적 순환체제로 근간을 지키는 것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심층면접 11_관리자)
 - **채식 한가지만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인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게 뭔가를 보면 텀블러 사용, 일회용 줄이기 등을 많이 하는데 텀블러 들고다니는 걸로 종이컵 사용갯수를 아낄 수 있다고 하면서 배달음식 한번 시켜먹는 것으로 한 번년치 텀블러 들고다니는 보람을 그냥 싹 없애버림. 필요하면 외식, 배달음식 이용이 일상화가 되어버림. 하루 세끼를 다먹기 때문에 먹거리를 육류에**

서 채식중심으로, 또 식품첨가물 중심의 가공인스턴트에서 로컬 재료로 직접 요리하는 문화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임 (심층면접 11_관리자)

- 저탄소 식생활 전환이 일반 시민이 할 수 있는 가장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실천이 되겠다 싶음. 사실은 식사를 배달시켜먹고 인스턴트 사다먹는 순간 그 쓰레기 발생도 그렇고 몇 달치의 노력이 한번에 날아가는 거 아닌가하는 우려에, 저탄소식생활 전환의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심층면접 11_관리자)
- 건강하려면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에서 건강을 지켜야 함. 계층을 나눠서 내과진료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노년내과임. OO병원의 노년내과 의사가 말하기를 건강관리의 첫 번째는 건강식, 과일식의 채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저탄소 채식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찾다보니 저절로 채식이 홍보 되고 있음. 사회적인 분위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음 (심층면접 10_관리자)
- 건강에서부터 비롯된 식생활 인식은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다고 봄. 전국적으로 농도와 부모님들이 농민이었고 그래서 농업농촌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도 있고 로컬푸드의 선진지, 모범지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직매장이 있어서 좋다 정도의 인식은 있음 (심층면접 11_관리자)
- 초기 채식브런치카페 개업 했을 때는 손님이 거의 없었고 채식을 하는 사람 위주로 방문했었는데 지금은 관심이 많아져서 일반식당의 손님도 많이 오고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옴. 음식포장도 가능한데 그런 환경에 관심많은 손님은 매장의 포장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텀블러나 개인용기를 가져오시는 환경의식이 있으신 손님이 많음. 채식 식당인줄 모르고 오시는 손님들도 많음. 대기업도 채식관련 상품을 만들어서 그런지 채식 분위기는 조금 있는 것 같음. 일부 채식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도 채식 제품을 만든다던가, 채식용 동원참치, 비비고 채식 만두 광고까지 공급을 차츰 시작하는 것 같음. 채식시장들이 많이 커지고 돈이 되니까 대기업이 제품을 만드는 것 같음 (심층면접 18_공급자)
- 일개 소비하는 입장이 아니라 만들어서 공급하는 입장으로 한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몇 백끼를 파는 입장으로 많은 변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함. 그냥 지나가다 오시는 분은 거의 없고 손님의 90%가 비건식당임을 알고 목적을 가지고 방문해주심. 일식당에서 비건식당으로 전환하면서 수요면에서는 매출이 줄었으나 만족도는 확 올라갔음 (심층면접 19_공급자)
- 식재료는 메뉴판에 표기를 해놓고 있고 전에는 인스타에 재료와 세부적인 내용을 홍보글로 올리기도 했었음. 개업초기에 한번 할인 광고로 홍보한 적은 있음. 매출관련해서는 매장운영 1년차 때보다 지금 현재 2.5배의 매출증가를 보임. 초반에는 샐러드라고 하면은 풀떼기라고 생각하고 굳이 샌드위치를 먹어야하나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찾음. 손님의 70~80%가 어머니들로 모임 장소로 많이 찾아오심. 채식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지는 않음. 일부는 매장에서 비건모임을 하거나 비건 관련 모임이 주최 장소로 찾아오시기도 함 (심층면접 18_공급자)
- 채식 식당인줄 모르고 여기가 맛있다는 말만 듣고 오서서는 음식맛을 본 후 채식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걸 보고 뿌듯해 한 적이 있었음 (심층면접 18_공급자)
- (부정적 전망) 저탄소 채식이 환경, 건강, 사회적 변화, 특히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을 주기는 어렵고 아직은 그 영향이 미비하다고 판단됨

- 저탄소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대체가 안되는게 식품이 있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바나나를 생산하는데 경제적 가치를 따지지 않고 국내 바나나를 선택할 사람이 얼마나 되려나 싶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전세계 음식이 돌아다니는데 **저탄소채식이 채식활성화에 도움이 되려면 저탄소채식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문화적·경제적 흐름이 같이 가야함**. 환경을 위한 저탄소채식이 채식 활성화에 도움은 안 될 것 같음 (심층면접 2_이용자)
- **기구축된 산업, 농업, 축산업을 갑자기 변화시키기에는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어려움**. 성장기인 초·중학생들에게 공류로는 단백질 공급에 한계가 있을 것 같고 학교급식을 통해서 육류를 제한하고 채식을 선택이 아닌 전반적으로 도입해서 유도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함. 학생들 대상으로 영양면에서 대체육 산업이 활성화 되어 육류를 대체하지 않는 한 식생활 전환의 변화는 쉽지 않을 것 같음 (심층면접 13_관리자)
- **환경쪽에서 기후적으로는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농축산의 소비도 중요하므로 한쪽의 정책으로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농업분야에서 탄소배출은 미비하다고 생각하며 탄소배출은 산업분야가 배출되는 걸로 인식하고 있지만 산업분야에만 치중해야 할 부분은 아니고 전반적인 모든 정책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임 (심층면접 14_관리자)
- 채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은 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많이 접하지만 **실제 주변에서 직접 본 사례는 없으므로 쉽지 않은 일임** (심층면접 15_관리자)
- 공감은 하지만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함. 채식으로 탄소를 저감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다각도적인 노력으로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임. **아직 이렇다할 채식 관련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은 것 같음**. 관심있는 사람은 대체식을 찾아보고 사서 먹고 권유도 하지만 일단 식습관 자체가 고기있는 음식에 익숙하니까 지속적으로 실천하지는 못하는 것 같음. 사실 이렇게 관심가지고 한달에 며칠 먹다말다하는 사람도 드물다고 생각하며 주변에만 봐도 고기없으면 밥못먹는다는 사람있고 어르신은 야채에 익숙한거지 채식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드시는 건 아닌 것 같음 (심층면접 16_관리자)
- **사람 입맛이라는게 있고 먹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마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굳이 얼마를 살겠다고..** 흡연자들은 손이 썩어가도 담배피우겠다고 할 정도로 기호 식품이 익숙하면 무서운 것임. 채식활성화를 실행할 수 있는 제반적인게 부족하고 **환경쪽에서도 중요하고 정책적으로 필요한지는 알겠으나 실질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외롭지 않음**. 먹었을 때 즐거움이 없고 먹는 것의 시각적인 즐거움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심층면접 17_관리자)
- **‘고기를 안먹고 채식을 하면 오래 살 수 있지만 그렇다면 오래 살 이유가 없다’**라는 말이 있음. 그만큼 먹는게 중요하다는 걸 반영해주는 말임. 채식하는 여러 이유중에는 기후변화 때문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건강 때문에 하는 경우라고 생각함. 건강검진으로 채식실천의 동기 유발할 수 있기도 함 (심층면접 14_관리자)
- 전라북도내에서도 **기초 지자체 간의 로컬푸드 경쟁으로 발전하면서 여러 한계점이 발생함**. 더 쉽게 표현하자면, 전주의 10미(米)라고 하는 것들 중에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전주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이 거의 대부분임. 전주가 예부터 음식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 진안

과 무주의 고원에서 나는 산나물과 고랭지 채소와도 가깝고 김제 만경평야에서 곡식의 곡창지대이고 부안의 바다와도 멀지 않아서 육해공 식재료가 다 몰릴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신선한 재료로 풍성하게 전주 음식이라는 특징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임. 요즘은 교통이 발달 되어서 전세계의 것을 하루 아침에 받아 볼 수도 있고 기후변화로 지역특산물도 점점 북쪽으로 밀려나고 있는데 **전주에서 나지 않는 것들로 먹거리를 개발하고 외형적인 것에 얽매어서 고집부리며 환경을 위한 로컬푸드라고 탄소발자국만 이야기만 하고 있음** (심충면접 11_관리자)

- 채식메뉴가 한정적임. 나물무침만 하면 안배우고 안먹으니까 자주 외국 요리를 하게 됨. 외국은 선진국이라 이미 채식 스파게티소스가 있음. 역으로 로컬이라는 개념을 무시하면서 채식이면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반대의 경향이 생기기도 함. 여전히 채식음식점에서 인기있는 코너는 콩고기 코너이고 국산콩으로 만들지 않고 저렴한 중국산 또는 외국산 콩을 사용해서 쫄깃거리는 느낌을 내기 위해 글루텐 등의 첨가물을 넣음. **아이러니하게도 채식을 하러 와서도 콩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다고 하니까 이럴바에는 채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음** (심충면접 11_관리자)
- 꼭 비건을 실천하지 않더라도 비건에 대해 긍정적인 손님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생각하면 선호도는 굉장히 높음. 그러나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그렇지 않음. 특히 서울은 비건식당이 많기 때문에 접해볼 기회가 많지만 여기 전주는 여기밖에 없고 **전라북도 통틀어서도 거의 손에 꼽으니까 인식이나 선호도는 낮다고 생각함** (심충면접 19_공급자)
- 정보가 가깝다고 퍼지는 것이 아닌데 인스타를 통해서 멀리까지 가게홍보가 되니까 오히려 서울에서는 유명한 느낌이 들지만 전주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어서 알려졌다는 느낌이 덜 들. 그걸 더 느낀 게 전주 국제영화제때마다 외부인들이 많이 방문할 때는 매장에 2시간씩 줄서있고 매출 5배 이상 늘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임. **서울가서는 주변 직원분들한테 물어봐도 우리식당을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느냐 지금은 평소 식사손님 2~3팀 정도로 운영을 못할 정도로 적음** (심충면접 19_공급자)
- **푸드플랜은 식생활 전환정도가 아니라 식생활의 혁명으로까지 볼릴 정도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성공한 사례들을 대부분의 지자체가 비슷하게 답습하고 있는 느낌을 숨길 수 없음.** 또 특히 대부분의 공무원이 학교급식센터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음. 지역농산물을 학교에 밀어넣어서 농가 소득을 높이려고만 함. 농가 소득에 주력하면서 여기에 따라붙은 로컬푸드의 환경, 건강은 명분으로만 활용될 뿐 실제 실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어보임 (심충면접 11_관리자)

4) 식생활 전환 정책 수요

가) 정책지원 우려사항

- 경제적 지원보다는 강압적이지 않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우려사항] **채식을 늘리는 것은 여러 이해관계자와 육류가 차지한 부분을 뺏어 가져와야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 반발도 있을 것이니 정책적으로 내놓고는 못하고 인식교육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정책 같음 (심층면접 1_이용자)
- [우려사항] 채식활성화를 위해 행정에서 지원할 경우, **빈익빈부익부처럼 마치 채식 실천이 부르주아처럼 인식될까봐 우려됨** (심층면접 2_이용자)
- [우려사항] **저탄소, 채식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동시에 축산업계가 걸림.** 전복은 농도로 한 우가 유명한 지역이 있기도 함. 행정 입장에서는 둘 다 대변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정전반에서 채식을 내세울 수는 없고, 묘안을 생각해 낸 것은 없지만 정책적으로 그 절충지점을 찾기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심층면접 19_공급자)
- [우려사항] 도청 구내식당에서 한달에 한번 정도 상징적으로라도 **채식의 날을 해보려고 했었지만 내부 반발이 있어서 쉽지 않았다고 함.** 공공에서 급식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메뉴임 (심층면접 17_관리자)
- [우려사항] **조심스러운 것이 채식이나 비건할 때 축산업에 대한 분들에게 화살이 돌아가지 않도록 구성시스템을 짚고 넘어가야 함.** 시스템이 너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 좋겠음 (심층면접 9_이용자)
- [우려사항] 푸드플랜은 지역 먹거리 전체에 대한 내용으로 정책수립하는 것으로 기후변화가 목적이라면 내용상 맞지 않음. 채식을 했을 때 탄소저감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효과가 있다는 식생활 전환의 효과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농업분야 정책에서는 주객이, **‘기후변화에 채식을 해라가 아니라 채식을 했더니 기후변화도 좋더라로 효과로 가야지 목적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음** (심층면접 14_관리자)
- [우려사항] **돈만 많이 들어가는 사업형식으로의 정책이면 제한적이고 효과는 없을 것 같음** (심층면접 4_이용자)
- [우려사항] 아직도 고기를 못먹어서 영양실조 걸리는 통계가 있으니 **기아 빈곤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보편적인 것이 평준화가 되어 자연스럽게 채식 활성화가 되면 좋겠음** (심층면접 2_이용자)
- [우려사항] 교육에서도 **‘서양식이 아닌 한식을 드세요’까지는 괜찮지만 식사재료를 바꾸라는 것은 조심스러움** (심층면접 16_관리자)
- [개인선택] 오히려 식생활네트워크나 사회혁신센터 활동에서 채식을 권유한 사람이 있을 때 거부감이 더

들었음. 일부 채식실천자가 사회적으로 계몽된 것 같은 표현을 쓰고 채식비실천자는 환경파괴자라는 인식의 사람이 있을 경우 더 거부감이 들며 채식을 하는 입장에서 권유하는 분들 때문에 채식을 더 안좋아하는 분들을 많이 봤음. 채식은 자기 선택이고 철학이라기보다 각자의 식습관이라고 생각함 (심층면접 2_이용자)

- [개인선택] 다른 사람들도 같이 채식으로 전환하면 좋겠지만 강요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함. 크게 스트레스 받지않고 꾸준히 하면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막연한 생각임 (심층면접 6_이용자)
- [먹거리와 인권] 여전히 농업과 먹거리를 지역경제의 활성화, 관광 활성화로 보니까 어렵고 꼬이는 것 같음. 장기적인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복지, 내 몸을 스스로 다져가는 것은 눈에 안보이니까 무심한거 아닌가 싶음. 여전히 굶는 사람을 위한 복지도 무시되면 안되지만 먹거리만큼은 보편적인 인권에 해당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전체 시민이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된다는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게 필요함. 먹거리 돌봄은 사회복지의 돌봄과 달라야 한다고 봄. 지역주민이 어떤 것을 먹고 있고 장기적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 교육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음 (심층면접 11_관리자)
- [인식개선] 인식전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수단은 본인의 용기나 바꾸니를 사용하여 직접 답아오는 제로웨이스트 상점으로 서울시에서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 (심층면접 4_이용자)
- [인식개선] 사회문화적으로는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외형에만 치중하고 있음. 맛벌이, 직장초년생, 학업으로 바쁘다며 밥할 시간은 없다면서 가공식품을 먹으면서 외형적인 건강은 다듬는데 매우 신경을 써서 헬스클럽과 필라테스는 두 시간씩 함. 자취생들을 찾아가서 인테리어를 점검하는 'OO남'이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자취생들 냉장고에 푸른채소가 들어있는 경우를 못 봄. 외형적 건강에 들이는 시간 한 20분만 양보해서 가공식품대신 건강한 밥으로 샐러드나 나물한가지라도 무쳐먹는 것은 복원해야 하는 문화 아닌가 생각함. 요즘 집밥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식당밥을 그대로 옮겨서 집에서 먹을 뿐 집밥이 아님. 보이는 것만 집중하는 세대임. 방송에서 볶음밥 요리강좌를 하는데 밥은 대기업 제품인 햇반을 씀. 요리강좌에서 쓸 정도로 대기업과 방송매체의 힘을 이길 수는 없으나 공영방송의 한 축이 있다면 프로그램의 일부라도 의도적으로 집밥다운 식단으로 배치가 필요함. 공교육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 영유아 식생활 교육, 주민교육, 소비자 교육이 사회문화적으로 병행되어야 함 (심층면접 11_관리자)
- [인식개선] 어느 김치명인은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김치만 본인이 담근 것이고 고기는 수입육임. 또 고추장 체험장에서는 떡볶이를 만드는데 우리 고추장이라고 하면서 수입 밀떡으로 체험을 함. 두루두루 모든 음식이 건강하게 세팅되어야 하는데 내 것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관심 없는 걸 보면서 두루두루 연관 짓는 교육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함 (심층면접 11_관리자)
- [인식개선] 정책이면 (경제적) 지원으로 가겠는데 지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음. 정책지원으로 돈을 쓰기보다는 인식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심층면접 3_이용자)
- [인식개선] 식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이 가장 중요함. 한끼 때우고 맛있게만 먹으면 된다가 아니고 내적건강 역량을 갖추는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입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영유아 시기에

집안 밥상머리 교육부터 꾸준히 해야 함 (심층면접 11_관리자)

- [인식개선] 정책변화나 사회운동의 참여도는 제일 중요하게 감수성이라 생각함. **채식을 통해서 어떤 동물 권에 대한 감수성이나, 기후위기의 시급함도 훨씬 더 많이 자각될 수 있다고 생각함** (심층면접 6_이용자)
- [인식개선] **환경부서가 농업부서와 유기적인 협의관계를 형성·유지하여 협조부서들의 저탄소 채식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함** (심층면접 10_관리자)

나) 식생활 전환 교육 및 홍보

○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올바른 식생활 전환을 위한 인식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

- [학교교육]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후변화 관련 교육을 받는데 아이 스스로가 교육 후에는 채식을 해야한다고 느낀다고 함.** 아이가 살이 찘었는데 도축과정 영상을 보고 스스로 깨달아서 고기를 끊고 채소를 먹으면서 운동하다보니 12kg를 감량했었음. 스스로 느끼니까 실천하는 것 같음 (심층면접 5_이용자)
- [학교교육] 환경, 채식도 교육이 되어야 실천을 하는 것으로,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알이 기반이 되어 실천이 되는데 그 알이 미비하다 생각됨. **어릴수록 흡수가 빠르는데 고등학생은 교육 따로 실천 따로 흡수가 잘 되지 않음.** 인식교육이 먼저 기반이 되어야 실천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싶음 (심층면접 9_이용자)
- [학교교육] 학교 영양사선생님들과 소통하고 논의해서, 아이에게 학교급식으로 먹었던 것이 맛있더라는 경험을 주고, 교육을 통해 저탄소 식단의 필요성을 알리고, 학교밖에서도 저탄소 식단 실천을 유도하여 **아이들이 바뀌게 되면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 간식이나 끼니를 준비하는 부모도 바뀌어지지 않을까 생각됨** (심층면접 10_관리자)
- [부모교육] 비건할래야 하려해도 집에가면 엄마가 못하게끔 하는, **양육권자의 반대가 많으므로 부모교육이 먼저 필요하고 중요함** (심층면접 9_이용자)
- [농민교육] **로컬푸드 출하농민 대상의 교육이 필요함.** 로컬푸드에 출하하는 농산물은 대부분 하우스 재배로, 작물은 대부분 업체류가 많은데 출하시 잔류농약 기준치를 넘어서는 작물이 없도록 농민 출하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강 의도 많이 하고 있음 (심층면접 10_관리자)
- [일반교육] **농가 말고도 공공기관에서 교육 같은 것을 하면 많이 참석함** (심층면접 5_이용자)
- [일반교육] 강의하면 학생들에게도 고기 한근 대신 사과나 야채를 먹으면 소나무 30년짜리 한그루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로 **탄소발자국을 계산하면서 채식을 권유하기도 함** (심층면접 10_관리자)
- [교육 다변화] 긍정적인 인식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가정 교육도 좋을 것 같음.** 또 학교나 유치원 찾아가는 교육외에는 성인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는데 올해 사업으로는

1인 가구 대상으로 집에서 집밥을 해먹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음. 개인신청 또는 부녀회,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교육하기도 함. **성인은 이미 인식이 굳어져서 그냥 저렇게 있구나 하고 감흥없이 지나가는데 교육 효과가 있는 건 아이들 교육할 때로 흥미만 잘 불러일으키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음.** 텃밭을 운영하는 학교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이론교육 10~20분 짧게 하고 나머지 2시간 정도는 직접 음식을 만드는데 쓸 식재료를 직접 수확해서 만져보게 하고 요리하는 체험식으로 진행함 (심층면접 16_관리자)

- [의무교육] **공교육의 정식과목에 식생활과 농업농촌에 관한 과목들이 편성될 수 있게 하고 필수 의무교육으로 포함하면 좋겠음.** 외국의 사례로, 미식의 나라 프랑스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자기 손으로 향토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한다고 함. 또 미각교육으로 주변에서 방금 생산한 파프리카 한조각과 멀리서 수입된 파프리카 한조각을 먹어보면 어떻게 더 사각사각하고 파프리카 고유의 향을 느껴지는지 아이들도 금방 느낌. 어떠한 양념을 더하지 않아도 파프리카의 맛을 즐길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음. 영유아부터 음식의 원재료의 살려서 먹을 줄 아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채식하는 날도 학생들이 급식먹으러 오게 됨.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어릴때부터 생애주기별로 영유아 교육, 초중고 교육, 대학의 교양필수과목으로 농업농촌 먹거리 교육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함. 기후위기 때문에 몇 년안에 수면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라든 충격요법은 오래가지 않으므로 근본적으로 먹거리에 대한 가치와 필요성을 교육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임 (심층면접 11_관리자)
- [의무교육] **직장별로도 의무교육이 있는데, 법정교육의 하나로 먹거리 교육을 포함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음.** 먹거리 문화와 교육에 조금 더 투자를 하면 좋겠음 (심층면접 11_관리자)
- [교육/홍보] **성인이 된 이후에 이미 길들여진 상태에서 채식을 접하지만 어릴 때 조기교육을 통해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좋겠음.** 학교에서 교육받고 와도 가정에서 실천이 안될 수 있으므로 가정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홍보에서는 식생활 전환, 채식과 관련하여 지역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효과가 미비할 것 같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TV 프로그램(드라마, 예능)에서 짜여진 틀에서의 간접적인 홍보가 효과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음. 다른 홍보사업할 때, TV, 라디오, 지하철광고, SNS인플루언서 참여 등을 했지만 TV의 시각적인 광고가 가장 홍보 효과가 커서 왜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이해가 됐음 (심층면접 14_관리자)
- [교육/홍보] **채식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홍보나 교육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심층면접 6_이용자)
- [교육/홍보] 홍보와 교육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동참하여 고기섭취를 자제하고 인식전환이 될 것 같음. 또 어릴때부터 교육적으로 채식의 여러 가지 이점, 기후도 살리는 점이라는 교육은 중요함. **모든 맛에 길들여진 후보다는 어릴 때부터 교육이 쌓이면 커서 성인이 되었을 때 채식으로 전환하는 게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 (심층면접 7_이용자)
- [교육/홍보] 채식을 해야 하는 이유, 인식개선을 위해 정책적으로 교육이나 홍보로 행해지면 좋겠음 (심층면접 4_이용자)
- [지속홍보]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다양한 광고 중에서도 관심있는 부분에 집중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함. 소비자에게 저탄소 채식을 알리는 노출빈도가 중요함. 그래야 관심을 갖게 되고 알게 되므로 꾸준히하고도 빈번한 노출이 필요함 (심층면접 10_관리자)

다) 문화조성

○ 식생활 전환 문화조성을 위해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벤트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이벤트] 재미와 파급성이 있어야 함. 산나물축제처럼 비건페스티벌처럼 채식축제를 하면 어떨까 싶음. 단위 사업이 아닌 전국을 상대로 전복을 알리고 채식도 하며 의미를 찾고 재미있는 지역축제로, 공모를 통해 지속적으로 선정해서 이어나가면 좋겠음 (심층면접 4_이용자)
- [이벤트] 요즘 시대에 맞는 밥상과 채식을 연계가 필요함. 인식개선 교육은 하루에 한 두시간 했다고 바뀌지 않으므로 교육과 미각 효과를 보려면 실제 경험해 보고 맛도 보는 것이 중요함 (심층면접 3_이용자)
- [이벤트] 행정에서 채식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주도의 채식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일반사람들에게도 채식을 알리는 계기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음 (심층면접 7_이용자)
- [이벤트] 채식관련 요리프로그램, 요리학교나 학원 등 이벤트성인 체험활동이나 교육차원에서 책 발간, 한 달에 한번 찾아가는 교육 활동을 하면 많이 도움될 듯함. 경기도에서 콩으로 콩고기 만드는 법을 배웠던 적이 있음.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주면 많이 참석할 것 같음 (심층면접 5_이용자)
- [이벤트] 지역의 채식음식점을 알리는 채식지도, 스티커 붙이고 오기 등 크게는 채식을 주제로 아이디어 리빙랩처럼 청년에게 맡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함 (심층면접 9_이용자)
- [이벤트] 시식이나 체험을 통해 인식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시식이나 체험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할 의향이 있음. 전시장님이 채식에 관심이 있으셔서 전에는 한옥마을에서 채식, 비건관련 체험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행정에서 관심도가 떨어진 것 같음. 전에 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벤트나 체험의 기회를 줄 수 있는 행정주최의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음. (조서형)
- [이벤트] 고기를 좋아하지만 채식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고기섭취가 생태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험해보면 채식실천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채식을 할 수 있는 동기 유발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채식으로 바뀌야겠다는 용기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음 (심층면접 14_관리자)
- [이벤트] 생각중인 이벤트 예로 시험기간에 전북대, 전주대에 가서 비건버거를 뿌려보고 싶음. 젊을수록 소수의 친구들이 비건에 대해 반발이 있음. 비건을 밝히지 않고 총학에서 비건버거를 뿌려서 .맛이 없을 것이다.라는 편견을 바꾸고 싶음. '이 정도 맛있으면 먹겠는데?' 정도로 비건음식의 맛의 수준이 올라왔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음. 기후위기 의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어도 비건제품을 먹여놓으면 '이정도면 먹지' 하는 정도를 경험해봤음. 일부라도 비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심층면접 9_이용자)

- [교육/이벤트] 돈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므로 공모사업이 많이 필요함. 축제나 행사에 일회용품 줄이기처럼 축제 시 채식을 홍보하고 **어린이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 로컬 또는 저탄소 식단을 하고 가산점주는 가이 درا인, 급식 이벤트를 많이 하면 좋겠음** (심층면접 9_이용자)
- [교육/이벤트] 농약을 덜써서 과일 껍질까지 섭취하고, **공기업 우선으로 잔반줄이기 계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함** (심층면접 1_이용자)

라) 단계별 정책기반 구축

- 푸드시스템 단계(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를 고려한 식생활 정책기반 구축이 필요함
 - [기반구축] 저탄소 채식 종자센터처럼 연구를 늘리는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싶는데 그것 또한 정말 어려운 것으로... **직접적 지원보다 채식 실천의 기반을 위한 지원이 낫겠음** (심층면접 1_이용자)
 - [생산][특화식품 개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저탄소 채식의 날'을 한달에 두 번 운영하는 50여곳의 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기도 함. 학교 영양사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학교 급식 식재료로 지역농산물을 구매하는데, 가공식품의 경우 지역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이 없어서 못쓰다고 함. 고창 보리 축제에서는 고창산 보리로 소떡소떡을 만들어서 대박친 성과가 있었는데 이렇듯 **지역농산물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의 가공식품사업자도 활성화하면 좋겠다고들 말함** (심층면접 10_관리자)
 - [생산][인증제도] 최근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소비자운동대회에서 참가한 한 그룹이 안전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 권리에 대해 논의를 했었음. 그 논의 내용은 기후변화 시기에 소비자들은 안전한 식품으로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고, **저탄소 식품에 대한 인증 라벨링이야기가 나옴. 제도는 있는데 주변에서 한번도 못봤음.** 최근 서울롯데백화점에서 저탄소인증상품 판매전을 했는데 농축산물로 한우, 쌈채소, 사과, 복숭아 4가지 품목에 저탄소라벨링을 달고 나왔음. 지역에서는 저탄소라벨링은 들어보지도, 팔지도 않고 없음. 우리는 소비자에게 이런 인증마크는 무농약, GAP, HACCP 등 교육을 하는데 서울은 저탄소 인증상품을 팔고 있음. 고창에서도 저탄소 한우 기술을 보급해서 파는 것 같음 (심층면접 10_관리자)
 - [생산][인증제도] 곤충 천적으로도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천적 곤충회사가 7개나 있음. 익산에는 농가를 조합이 만들어졌는데 방울토마토 농가는 친환경이 아니라 천적으로만 했는데 공공급식에 출하했더니 인기가 최고였음. 익산 농업기술센터 천적 농업경영 시설을 갖추려면 일단은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고 인증하고 소비자들이 구매하고 저탄소 인증과 천적을 활용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라고 하는 그 린스탬프 두 개 붙여서 판매하고 소비자들이 친환경인증이라고 인식을 해야 함. **저탄소 채식이 지역 농가에게도 인증이 되면 그걸 주제로 도청에서 판매전을 열어 소비자에게 인증상품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음** (심층면접 10_관리자)
 - [생산][인증제도] **저탄소 로컬푸드 인증제도가 있는데 인증받은 식재료를 공급해주면 좋겠음** (심층면접 18_공급자)

- [생산][인증제도] 전국적으로 로컬푸드에 출하하는 농민들부터 저탄소채식에 대한 개념과 관심을 가지고 출하하는 식품이 지속가능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탄소 인증제도가 필요하는 것을 알아야 함. 또한 포장지를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해야 함 (심층면접 10_관리자)
- [생산][저탄소 라벨] 저탄소 채소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하고, 제품에 표시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하는 농가들은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함 (심층면접 10_관리자)
- [생산][유기농] 유기농이 보관이 훨씬 쉬움. 특히 유기농 업체류는 유기농 재배가 어려우며 2배 값을 쳐줘도 노동력이 훨씬 많이 들어가므로 인건비가 안나와서 노지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함. 직불제하면 저농약, 유기농 수매가가 똑같아서 상관없음. 유기농작물에 대한 값을 더 쳐주지 않으면 유기농 농가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음 (심층면접 6_이용자)
- [생산/유통][로컬푸드] 사실 푸드플랜은 그 지역의 푸드플랜으로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로 지속가능한 순환체계 안에서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해야 하는데, 타지역에서 도심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내는 것도 어불성설임. 내 지역의 주민들은 싸구려 사다 먹으면서 좋은 농산물은 백화점에 납품하게 해서 우리 지역의 어디 특산물이 백화점에 납품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삶이 실제 식생활 전환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야하지 않나 싶고 대부분의 지역이 실행 과정에서 다 놓치고 있는 것 같음**. 외부 타지역에 우리지역의 것을 팔아서 돈 버는 것만 집중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특산물판매장 같은 경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달라지는 전세계에 유례없는 우스운 모양새이고 이런 로컬푸드 운동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지 코메디임. **문제점을 분석해 내고 대안으로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함** (심층면접 11_관리자)
- [생산/유통][로컬푸드] 전라북도의 로컬푸드 운동을 광역화시킬 필요가 있음. 다품종 전락이라는 명목하에 농산물을 각 시군에서 다 키우려고 하면 너무 소분화되면서 오히려 비용과 탄소배출량 더 늘어나는 꼴임. 이미 전국의 먹거리분야에서는 문제 제기를 많이 받고 있음. 도농상생의 이름으로 서울에 팔아먹을 공리만 함. 기초자치체별로 우리것만 고집하지말고 전라북도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좋겠음. 지역의원들이 전주 푸드는 전주에서 생산량 비중, 작년대비 증가율만을 따지니까 오류가 범해지는 것 같음 (심층면접 11_관리자)
- [유통] 탄소발자국을 고려하여 가까운 근거리에서 식재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심층면접 8_이용자)
- [가공]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대체육에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전복이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함 (심층면접 6_이용자)
- [소비][포인트제] 인센티브 같은 정책을 개인가정에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포인트제도 방식을 통해 채식 실천을 유도하고 교육하면 조금이라도 채식으로 전환유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됨** (심층면접 14_관리자)
- [소비] 신선한 재료를 살 수 있는 판로, 행사를 해주면 음식물쓰레기도 덜 나올 수 있음. **채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므로 구입 할 수 있는 판매처가 활성화되어야 함** (심층면접 5_이용자)

- [폐기] 음식물쓰레기의 영향이나 줄이기에 대한 방법이 미디어나 **각 지역 교육의 일환으로 예체능 취미에 머물지 않고 학습이나 실천하는 환경동아리를 대상으로의 지원이 필요함**. 2~3천만원만 있으면 10개 동아리 지원이 가능함. 의지는 있으나 계기 마련이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방해나 불편함이 있으므로, 그들이 주변 홍보나 확산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함 (심층면접 6_이용자)
- [폐기] 채식이 **보편화가 되고 핵심 정책이 되려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함**. 예로 탄소중립교육에 많이 나오는 Zero Waste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실천율이 높지 않고 못할 것 같으니 아예 시도를 안하는데, 학교에서도 지금은 Reduce Waste로 단계적인 실천을 유도하고 있음 (심층면접 2_이용자)
- [폐기] 채소는 속까지 열어보지 않으면 신선도 파악이 어려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싶어도 음식을 만들다보면 좀처럼 잘 안됨. 음식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따로 처리하여 미생물처리, 거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단가가 비쌌. 그래서 지역이나 국가정책으로 해주면 좋겠음** (심층면접 3_이용자)
- [전주기][푸드플랜] 먹거리 푸드플랜은 생산에서부터 출하, 유통, 교육, 음식물 쓰레기 처리까지 도민과 자치단체장이 함께 참여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음. 진안을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먹거리 푸드플랜이 만들어졌는데 먹거리 식생활 교육 내용이 담겼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놓쳤던 것 같음. **먹거리 조례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했고 먹거리 교류 통합 분과의 위원을 맡게 되었는데 앞으로 먹거리 식생활 교육 내용을 담아야겠다고 생각되었음** (심층면접 10_관리자)
- [조례] 전라북도 채식 조례만들 때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었음. **중요하다 말했었는데 그에 비해 조례는 급진적이지 못하다 생각이 듭** (심층면접 9_이용자)
- [조례] **저탄소 채소 조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전북이 선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도 좋겠음** (심층면접 10_관리자)

마) 정보제공

- 식재료 정보, 레시피, 교육자료 등 다양한 정보제공 및 소통강화를 통해 식생활 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필요함
 - [식재료 정보] **식당에서 외식할 때에도 요리재료와 과정 등의 정보를 알아야 물어볼 수가 있음**. 폴로의 경우 토마토파스타 같이 토마토 베이스의 음식을 못 먹는데 기본적으로 간고기가 들어가기 때문임. 본인 스스로가 유튜브로 정보를 찾거나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움. 그래서 채식만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나 카페를 가는데, 맛 때문에 가기보다는 난생처음 먹어보는 맛으로 먹어볼만한 정도지 채식에 온전히 빠져들지 않는 이상 계속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음 (심층면접 2_이용자)
 - [레시피] 저탄소채식의 실천방법으로 '음식의 모든 부분을 섭취하면 좋다'로 홍보할게 아니라 채식을 할

수 있도록 조리법을 개발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음. 예를 들어 양고기와 이과두주랑 먹는데 양고기 대신 가금류를 선택한다? 닭고기에 이과두주를 먹지 않음. 양고기의 맛을 내는 가금류의 조리법이 나와야 하고 선택에 있어 경우의 수가 많아야 하는데 인식개선만 많은 것 같음. 인식개선 외에 조리법 선택의 경우의 수가 많아야 함. **개인의 노력에 여하이지 정책의 여하는 아니므로 개인이 채식실현 가능하도록 선택에 부담이 없어야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함** (심층면접 2_이용자)

- [교육자료] 케이지에서 기른 닭이 낳은 달걀을 먹고 성장한 아이와 동물복지유정란을 먹고 자란 아이,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한 채소를 먹을 때 탄소발자국적인 면에서 자료는 많지만, **더 비싼 것을 구매하면서까지 내 아이에게 교육하고 설득할 수 있는 교육자료가 많지 않은 것 같음** (심층면접 2_이용자)
- [식생활 정보] **일상에서 쉽게 정보 제공받는 것이 중요함**. 임신부 꾸러미 사업 시작할 때 친환경팀과 식생활교육팀이 농식품부에 제안했는데 진행단계에서 사업취지가 담긴 앞부분이 찢린 상태로 기재부로 넘어갔고 후반부 식재료 공급 예산만 지원받게 되었음. 본래 사업취지는 임신부일수록 몸이 귀찮더라도 가공식품, 인스턴트 위주로 식사보다 채식도 병행해야 한다는 걸로 선 교육, 후 식재료 지급하기로 했는데 선행되어야 할 교육예산은 잘리고 복지로 식재료만 제공되니까 취지를 모르는 임신부들의 불만이 생겼음. 지급품목에 치즈, 고기 없으니 계속 요구하고 품목을 늘려 달라하여 하긴 하는데 매우 안타까웠음 (심층면접 11_관리자)
- [소통강화] 선거철에는 정치인들이 간담회 활동을 활발히 하는데, 000후보가 비건인들과의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시도가 처음이었음. **중앙이든 지방의회든 정치인들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음**. 또래 시의원도 주변에 있지만 채식을 홍보하기에는 다른분야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정책의 수용성을 고려하다보니 채식을 홍보하기에는 어려운가봄. 탄소중립이라든지 합당한 이유가 있는 홍보를 해야할 것 같음 (심층면접 19_공급자)

바) 기타정책

- [관리강화] 어린이집과 학교에 식생활교육 할때, 해당기관에 일정금액을 교부하고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했더니 편의대로 식자재마트를 이용하고 있었음.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위탁기관에서 일괄 식재료를 구매후 기관에 배부하는 것으로 지급방식을 바꾸면서 식재료가 많이 바뀌었다고 함. 단가가 좀 올라가고 발품이 많이 들긴 하지만 애초의 교육취지대로 로컬푸드와 유기농채소를 이용하는 목표를 지키려고 하고 있음 (심층면접 16_관리자)
- [급진적 정책] 기후위기가 이 정도로 심각하게 된 만큼 보다 급진적으로 축산업의 활성화는 지원하지 말아야 함. 축산업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유예기간을 주고 준비하게 하여 피해를 보지 않게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연구하고, 정부 보조 설계가 필요함. 급진적인 정책으로 축산농가의 지원을 줄이고, 채식식단을 확대하여 공무원, 기관 단체 급식에서 일주일에 한번 채식식단, 학교 급식 채식식단 의무화를 해야 함 (심층면접 6_이용자)
- [구도심 활성화] 웨리단길도 잘 나가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침체되고 있음. 비싼 임대료로 관련한

젠트리피케이션은 아니고, 원래 웨리단길은 밥집 거리였는데 밥집가게가 나가고 술집으로 채워지다보니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그러다보니 가족단위의 손님들이 거리에 들어오기를 꺼려함. 자연적으로 분위기가 변하고 있는 거라서 어떻게 말을 하기는 어려우나 밥집인 우리식당도 자리에 대해서는 위협을 느끼고 있음
(심층면접 19_공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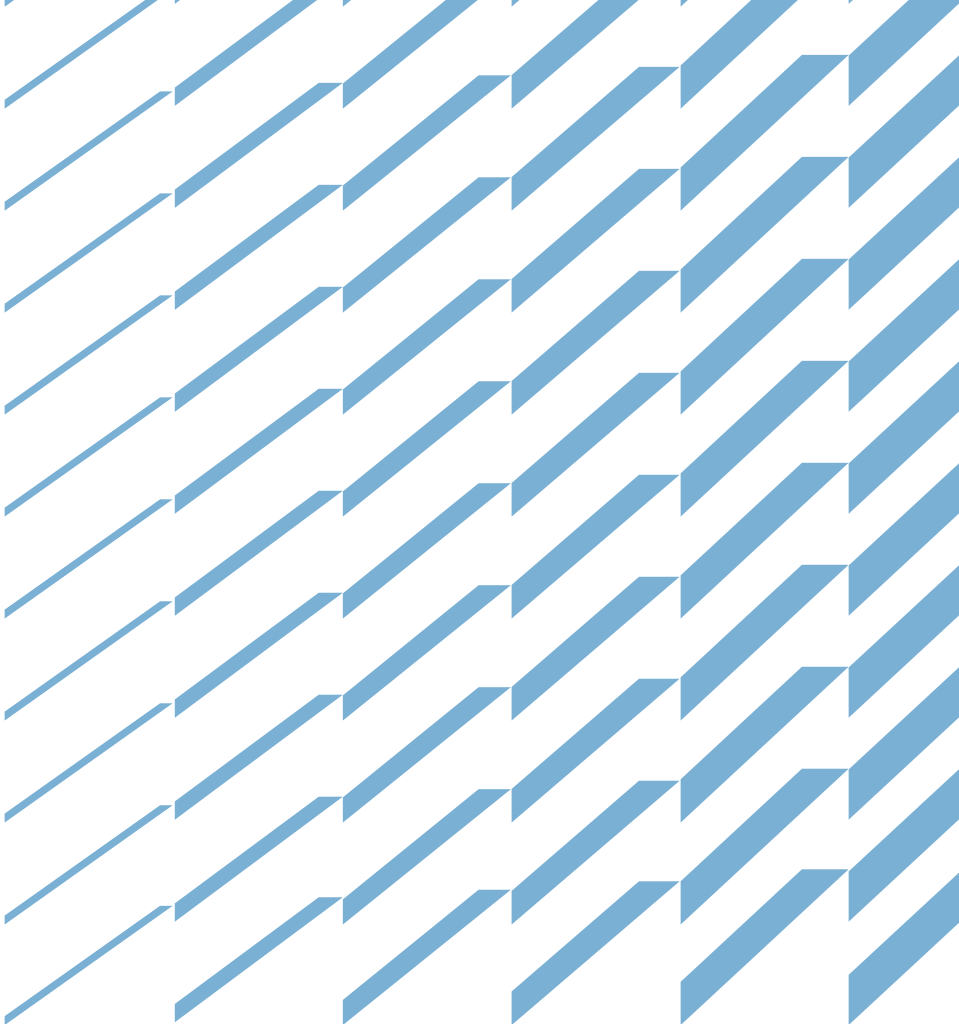
나. 분석결과 요약

- 심층 인터뷰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3-6] 심층 인터뷰 결과 요약

조사영역		주요결과	비고
식생활 전환에 따른 변화	건강상 변화	- 신체적으로 체중감소, 규칙적 배변활동, 후각 및 채취 개선 등 긍정적 변화를 체험하고 심적으로 평온함과 안정감을 느낌	이용자
	경제적 변화	- (기존대비 감소 또는 변동 없음) 배달음식 횟수 감소, 화식이나 모임자체, 기존 식단에서의 선택적 섭취	이용자
		- (기존대비 증가) 육류대체식품 구매, 유기농친환경 식재료의 구입, 비건푸드의 가공식품 구입	
	물리적 변화	- (부정적) 식재료 관리 및 보관의 어려움, 음식물쓰레기 발생, 신선도를 위한 잦은 빈도의 소량구매, 번거로운 식단 준비와 조리법, 외식의 제약 등 전반적으로 불편함 증가	이용자
		- (긍정적) 원재료 섭취시 조리시간의 단축, 조리법의 간소화	
	심리적 변화	- 맛과 식감의 불만족, 외부유혹의 스트레스, 소외감, 요리과정과 재료를 고려한 음식선택의 스트레스, 고기의 중독성 등을 경험	이용자 관리자
식생활 전환의 계기	사회관계 변화	- (부정적) 채식비실천자들과의 화합이 어려움, 화식 및 소모임에 저조한 참여, 단조로운 인간관계로 변화	이용자
		- (긍정적) 채식실천자를 고려한 메뉴나 간식으로 비실천자들의 배려를 받기도 함	
	다양한 개인여건	- 식생활 전환(채식)은 개인의 여건에 따라 건강, 동물권, 기후변화, 종교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음 - 식생활 전환의 실천논리를 온실가스 문제로만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용자 공급자
	외부매체 영향	- 서적, SNS, 홍보, 교육 등의 외부매체로부터 영향을 받아 식생활 전환을 실천하게 됨	이용자
	경제적 영향 (부정적)	- (영향있음) 제철에 따른 채소의 가격변동, 고가의 유기농 채소와 대체식품, 유류의 채식관련교육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함	이용자
		- (영향없음) 식비 부담보다 개인의 실천의지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함	

조사영역		주요결과	비고
식생활 전환 여건 및 저탄소 채식 활성화 전망	식생활 전환 여건	- 근거리 구입처에서 좋은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환경으로 타 지역 대비 기반은 좋으나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음 - (인식개선 필요, 로컬푸드 개선필요, 노출기회 부족, 관련 프로그램 부족,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등)	이용자 관리자 공급자
	식생활 전환 인식현황	- 부모, 사회적, 소비자 관점에서의 잘못된 인식, 부정적인 인식 (선입견) 개선이 필요	이용자 관리자 공급자
		- 필요성, 중요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부족으로 가치를 체감하지 못함	이용자
	정보획득 방안	- (이용자) 온라인으로는 인터넷, 유튜브, 앱, SNS, 오프라인으로는 동아리활동, 소모임,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취득	이용자
		- (공급자) 직접 요리연구를 하며 레시피 연구 및 메뉴 개발	공급자
	저탄소 채식 활성화 전망	- (긍정적전망) 저탄소 채식이 환경, 건강,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됨	이용자 관리자 공급자
		- (부정적전망) 저탄소 채식이 환경, 건강, 사회적 변화, 특히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을 주기는 어렵고 그 영향이 미미할 것임	
식생활 전환 정책 수요	정책지원 우려사항	- 경제적 지원보다는 강압적이지 않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인식개선 필요 - 내부적으로 축산업과의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필요	이용자 관리자 공급자
	교육 및 홍보	-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올바른 식생활 전환을 위한 인식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	이용자 관리자
	문화조성	-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벤트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이용자 관리자 공급자
	단계별 정책기반 구축	- 푸드시스템 단계(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를 고려한 식생활 정책기반 구축이 필요 - (생산/유통) 특화식품 개발, 인증제도, 로컬푸드, (가공) 대체육 산업, (소비) 포인트제 연계, (폐기) 음식물 감량 등	
	정보제공	- 식재료 정보, 레시피, 교육자료 등 다양한 정보제공 및 소통강화를 통해 식생활 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제공 필요	
	기타정책	- 기존정책 관리강화, 보다 급진적 정책 필요, 구도심 활성화 정책 등	



제4장

탄소중립 식생활 전환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1. 국내외 정책동향
2. 전라북도 식생활 전환 여건 종합분석(SWOT)
3. 목표 및 전략 설정



제 4 장 탄소중립 식생활 전환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1. 국내외 정책동향

■ 식생활 전환(채식) 인구

- 채식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채식 실천 인구를 조사 또는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인도의 경우 20~40%로 보고¹¹⁾됨
- 미국의 경우 비건 인구가 2009년 1% 수준에서 2019년 6%인 2000만명으로, 비건의 발상지인 영국은 2006년 15만명에서 2018년 전체인구의 12%가 채식주의, 7%(470만명)가 비건으로 보고¹²⁾됨. 일본은 비건 2.7%(340만명), 독일 1.6%(132만명), 대만 5%(115만명) 수준으로 나타남
- 국내에서 채식인구에 대한 공식통계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한국채식연합¹³⁾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인구의 3~4%(150~200만명)로 추정하고 있음
 - 한국채식연합은 최근 유럽 등의 선진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채식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과거 장년층이 주도한 것과 달리 최근 MZ세대인 20~30대층에서 비건채식 문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제시함

■ 채식전환 관련 정책동향

- 최근 건강, 동물복지, 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채식으로의 식생활 전환의 정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자체 채식관련 조례현황을 조사한 결과 광주, 서울, 전라북도, 경기도 4개의 광역지자체와 광주 동구, 전남 곡성군,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4개의 기초지자체를 찾아

11) 위키피디아_Vegetarianism. (2023. 9. 검색). <https://en.wikipedia.org/>

12) STEP위키. (2023. 9. 검색). 세계의 비건 인구 순위. <https://www.step.or.kr/>

13) 한국채식연합. (2023. 9. 검색). <https://www.vege.or.kr/>

볼 수 있었음

- 2016~2017년의 경우 광주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녹색식생활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채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는 2021년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경기도와 2023년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나타남
- 탄소중립 녹색성장 또는 기후대응 조례에 포함한 경우는 2022년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광주광역시로 나타남
- 식생활 교육지원 관련 조례는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대부분 조례 내용이 유사하여 지역의 특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기본계획의 경우 '광주광역시 녹색식생활 기본계획(2018~2022)' 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웠음

[표 4-1] 지자체 채식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현황 ('23. 9. 기준)

구분 (제정)	조례명	주요내용
광주광역시 (2016. 6.) 기초_동구 (2021. 4.)	광주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	기본계획, 녹색식생활 실천의 날, 어린이 학생 실천 지원, 음식점 인증, 접근권 보장 등
기초_전라남도 곡성군 (2017. 5.)	곡성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	기본계획, 실천의 날, 실천지원, 음식점 인증, 접근권 보장 등
서울특별시 (2021. 3.)	서울특별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기본계획, 실태조사, 교육·홍보, 채식의 날 운영, 채식 음식점 인증 등
전라북도 (2021. 7.)	전라북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기본계획, 실태조사, 교육·홍보, 채식의 날 운영, 채식모범음식점 인증 등
경기도 (2021. 8.)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	기본계획, 실태조사, 교육·홍보, 민관협업체 운영, 채식 실천 지원 등
기초_대구광역 시 수성구 (2022.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제16조 채식의 날 지정 및 운영
광주광역시 (2022. 4.)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제29조 녹색식생활 활성화
기초_대전광역 시 유성구 (2023.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조례	기본계획, 지원사업, 채식음식점 인증, 채식 실천의 날 운영 등

- 해외의 경우 채식 자체브랜드 개발(독일), 대체육 산업육성(네덜란드), 고기없는 월요일 운동(미국), 탄소라벨링(일본), 슬로푸드(이탈리아), 도시농업(영국) 등의 식품산업, 푸드 시스템 개선, 채식활성화 정책 등을 찾아볼 수 있었음
- 보험연구원¹⁴⁾에 따르면 미국, 이스라엘 등 해외에서 건강보험/생명보험에서 채식주의 식생활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반영하여 보험료 할인이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를 보고하기도 하였음

■ 채식산업 시장동향

- 세계 비건 식품시장은 2023~2031년까지 평균 9.1%/년으로 360.2억달러로 전망되며, 현재 북아메리카가 가장 큰 시장이나, 아시아가 가장 빨리 성장할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국내 시장의 경우 2023년에서 2028년까지 평균 6%/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¹⁵⁾
-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대체육 시장의 잠재력은 중국, 싱가포르, 한국 순으로 높으며, 중국의 경우 육류 대체시장이 20%/년 성장할 것으로 보고하였음¹⁶⁾
- 채식인구의 증가는 채식관련 해외 직구시장의 증가에도 나타나고 있음. 해외직구를 통한 비건 영양제의 한국 판매율이 2020년 대비 2022년 3.3배 증가하였고, 비건 식료품은 89.9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됨¹⁷⁾

■ 식생활 기본계획 수립 사례(광주광역시)¹⁸⁾

- 광주광역시는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조례에 따라 녹색식생활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식품의 전과정(생산, 유통, 소비, 처리)에서의 에너지와 자원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음식문화를 유도 및 실천적인 녹

14) 김윤진. (2022. 4. 4.). 채식주의자를 위한 보험서비스 : 해외사례, KIRI 리포트

15) 컨슈머와이드. (2023. 6. 22.). 가치소비 기획-비건2, '비건 전문가 3인에게 들었다'

16) 농식품수출정보. (2023. 7. 26.). 대체육·배양육 산업 지속성장 전망, <https://www.kati.net>

17) 넥스트이코노미. (2023. 8. 4.). 200만 채식인 시장을 잡아라 '특명'

18) 광주광역시. (2017). 광주광역시 녹색식생활 기본계획 2018~2022

색식생활 계획하였음

- 비전 :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녹색식생활 실현
- 핵심가치 : 지속가능, 건강, 배려, 지역
- 5대 목표 : 1) 누구나 식생활 선택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역량 강화, 2)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구축, 3)식품안전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환경을 배려한 녹색식생활 추진, 4)다양한 녹색식생활 참여와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5) 지역 농산물 접근권 강화를 통한 신선하고 깨끗한 식생활 소비
- 추진전략별 주요과제 (4대 분야, 12개 정책과제, 37개 세부실행과제로 구성)
 - ①식생활선택권강화 : 건강식당 지도제작 및 실천음식점 인증, 채식 생태계 조성 및 채식문화 콘텐츠 개발, 주 1회 채식의 날 실천, 채식가이드북 제작 배포 등
 - ②바른 식생활과 식습관 개선 : 생애주기별 녹색식생활체험교육, 사회적취약계층 음식공동체 활성화 등
 - ③안전한 식생활 지원 : 지역상생 로컬푸드 확대, 도시텃밭의 확대와 안전 먹거리 생산, 식품안전성 강화 및 안전관리 등
 - ④환경을 고려한 녹색식생활 실천 : 녹색식생활 환경연계 교육 및 캠페인 강화, 녹색식생활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등
- 광주광역시의 각 과별 녹색식생활기본계획 주요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음
 - [식품안전과] 음식문화개선을 통한 식문화개선, 식품안전환경조성
 - [생명농업과] 도시농업, 식생활교육계획추진
 - [농업기술센터] 도시텃밭조성, 실버세대 텃밭 정원 프로그램
 - [환경정책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등 환경분야 민관 상생협력체계구축, 환경교육프로그램
 - [기후변화대응과] 국제기후환경센터운영,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
 - [사회복지과] 잉여 식품자원 기부 활성화 및 소외계층 지원 강화

2. 전라북도 식생활 전환 여건 종합분석(SWOT)

가. 내부요인

■ 강점(Strength)

- 농생명 산업의 전략적 육성, 푸드플랜 발상지, 로컬푸드 신화가 있는 전라북도의 식생활 정책 및 전환 기반은 타 지역 대비 우수함
- 녹색생활 식생활 전환 조례의 선도적 제정과 다양한 탄소중립 이행전략 수립 및 이행 등 도의회와 담당행정의 정책의지가 강함
-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환경 분야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 거버넌스가 활성화되어 있음

■ 약점(Weakness)

- 행정에서 저탄소 채식을 강조할 경우 자칫 지역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는 축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갈등유발의 우려가 있음
- 기존의 육식 선호 문화가 정착하고 있으며 식생활 전환에 대한 관심과 인식도가 낮아 중장기 관점의 정책 디자인이 필요함
- 환경부서(담당행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관점의 식생활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나. 외부요인

■ 기회(Opportunity)

- 기후위기, 건강, 동물복지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매체에서 식생활 전환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어 인식전환에 유리함

- 식생활 전환은 개인의 건강은 물론, 동물복지,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치 높은 실천 활동으로 인식될 수 있음
- 식생활 전환은 기존 푸드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체계를 마련하고 도민의 탄소중립 인식개선 및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

■ 위협(Threats)

- 외모 지상주의, 거대기업의 공격적 마케팅 전략 등으로 식생활 관련 올바른 정보선택 및 판단이 어려움
- 식생활 전환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 물리적 불편함, 심리적 스트레스, 사회관계 변화 등에 따라 지속적 실천의 유지가 어려움
- 식생활 전환의 계기는 개인여건에 따라 상이하며, 정책적 강요는 자칫 반발감을 줄 수 있으므로 적극적 정책추진에 부작용이 우려됨

다. 기본방향

■ SO전략 (경쟁우위 강화 방향성)

- 전라북도가 보유한 농생명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푸드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식생활 전환정책 마련
- 식생활 관련 사회적 이슈를 인식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실천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식생활 전환정책 수립
- 향후 확대가 예상되는 식생활 전환(채식) 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연구 및 기반시설 확대정책 모색

■ ST전략 (경쟁우위 보완 방향성)

-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식생활 전환의 필요성을 강화
- 공공의 선도적 실천, 인센티브 지급 등 식생활 전환 실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지원체계 마련
-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의 푸드시스템 단계를 고려한 지역상생 먹거리 순환사업 발굴 및 관련체계 정비

■ WO전략 (제약요인 제거 방향성)

- 개인의 여건에 따라 식생활 전환의 다양한 계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저탄소 식생활을 올바른 식생활 전환의 기회로 활용
- 식생활 전환에 따른 긍정적 정보제공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축산업 등 갈등 요인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 및 공감대 조성
-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선입견을 불식할 수 있는 식생활 전환 문화 조성

■ WT전략 (문제해결 방향성)

- 식생활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강요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식생활 전환정책 모색
-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환경부와 농업부서의 협업을 통한 효율적 식생활 전환정책 추진



[그림 4-1] 전라북도 식생활 전환 여건 분석 및 기본방향 도출(SWOT)

3. 목표 및 전략 설정

가. 저탄소 식생활 전환 정책범위 및 목표

■ [정책범위] 저탄소 식생활 정책범위 및 대상

-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적 추진을 위해 단일부서에서 통합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저탄소 식생활의 초기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서와 농업부서가 협업하여 정책을 추진함
- 기존 식생활 정책 범위 내에 저탄소 식생활을 하나의 유형으로 추진하되, 기존의 먹거리 정책과 연계 가능한 정책을 포함하였음
- 정책대상은 공급자, 이용자, 관리자를 모두 포함하며, 이용자의 범위는 저탄소 식생활 입문 단계인 클라이언터리언에서 비건 이상의 강한신념의 식생활 실천자를 모두 대상으로 함

■ 목표1 :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한 저탄소 식생활 인식 및 가치증진

- 저탄소 식생활을 올바른 식생활 전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인식개선은 특정세대, 특정주체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별, 다양한 이해당사자 모두를 포함하도록 함
- 유용한 정보제공을 통해 식생활 전환의 불편함을 경감하고 개인적, 사회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전략 키워드) 인식전환, 정보제공

■ 목표2 :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식생활 문화조성

- 식생활 전환을 선택한 것도 개인의 자유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도 개인의 의지이므로 정책적 강요로 인한 반발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벤트 제공,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식생활 전환에 대한 자연스러운 공감대를 형성함
- 공공기관 급식시설을 활용한 성공적 실천사업을 통해 식생활 전환 문화를 선도함

⇒ (전략 키워드) 문화조성

■ 목표3 : 지역과 상생하는 푸드시스템의 단계별 순환체계 정립

- 저탄소/친환경 농산물 인증 등 생산단계의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 시대 푸드시스템 순환체계를 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함
- 지역별 저탄소 식품 특화아이템 개발을 통해 지역브랜드 강화방안을 모색함

- 저탄소 소비를 촉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을 유도할 수 있는 자원순환 지원정책을 추진함

⇒ (전략 키워드) 지역상생 먹거리 순환, 인식전환

■ 목표4 : 담당부서별 협업을 통한 효율적 식생활 전환 기반구축

- 효율적인 식생활 전환 정책의 추진을 위해 기후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업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함
- 시군의 조례제정, 관련 연구지원 등 저탄소 식생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식생활 전환에 따른 시장변화를 전망하고, 산업기반 시설의 유치 및 투자를 통해 농생명 수도의 위상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함

⇒ (전략 키워드) 기반구축

나. 정책전략 설정

■ 전략1 : 인식전환

- 저탄소 식생활 정책은 일반 식생활 정책과 비교하여 인식도가 높지 않고 일반도민에게 생소할 수 있으므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함
- 식생활은 개인의 선택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만큼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시범사업 또는 리빙랩 등의 생활실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인식전환 유도방안을 모색함

■ 전략2 : 정보제공

- 저탄소를 포함한 식생활 전환 실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속적인 실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적 정보와 편의를 제공함

- 입문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조리법 등 안내서를 통해 의지가 있는 도민의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실행방안을 제시함

■ 전략3 : 문화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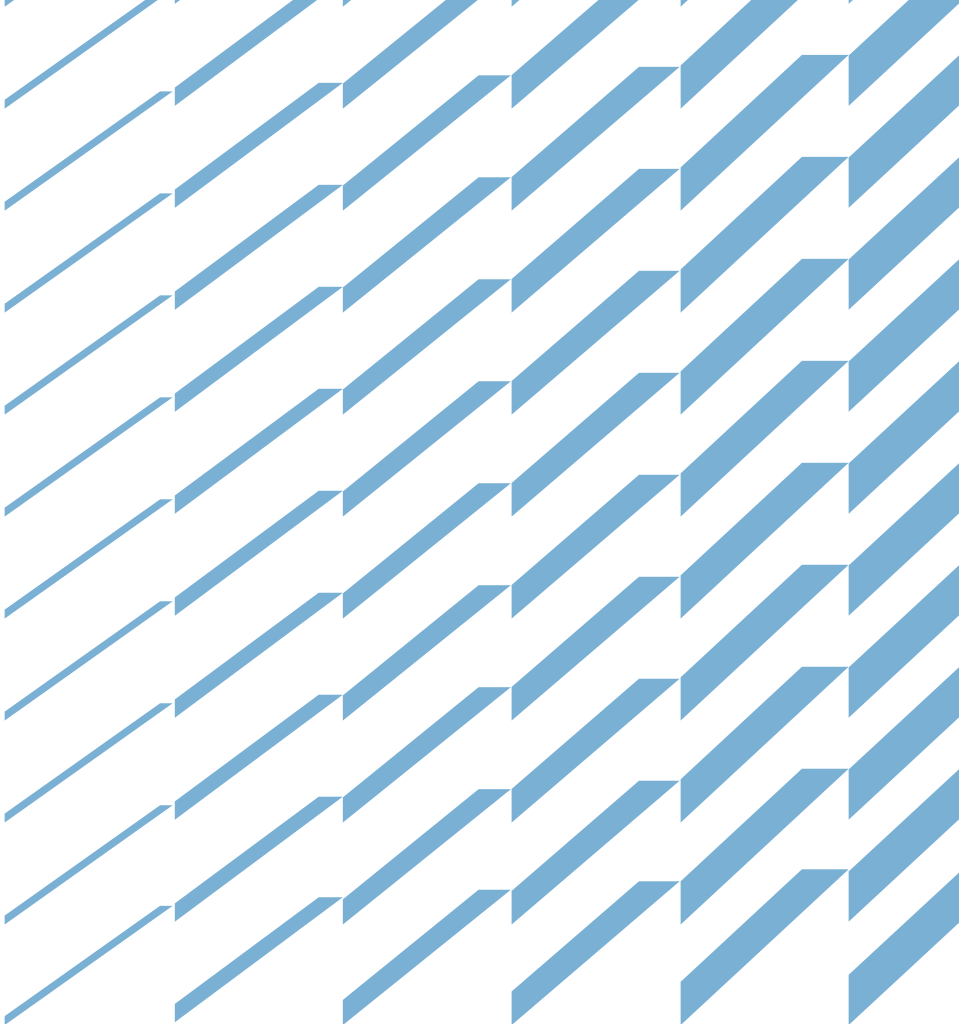
- 기존의 선입견을 가지고 식생활 실천을 생각하지 못한 이용자를 위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저탄소 식생활 전환을 유도함
-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식생활 전환 정책을 선도하고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전략4 : 지역상생 먹거리 순환

- 저탄소 식생활 전환이 지역의 먹거리 체계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의 푸드플랜과 연계한 정책을 제시함
- 먹거리 관련 이해당사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 등 단계별 순환을 고려한 정책을 모색함

■ 전략5 : 기반구축

- 전라북도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시군의 협력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을 모색하고, 부서관 협력 및 이해당사자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추진중인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함
- ‘농생명 수도’ 전라북도의 신규 특화 아이টে으로 대체식품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함



제5장

탄소중립 식생활 전환을 위한 정책사업 제안

1. 전략별 정책사업 목록
2. 정책사업 세부내용



제 5 장 탄소중립 식생활 전환을 위한 정책사업 제안

1. 전략별 정책사업 목록

- 4대 목표 달성을 위한 전라북도 저탄소 식생활 전환 전략별 정책사업 목록과 담당부서, 연계 푸드시스템 단계, 정책대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5-1] 저탄소 식생활 전환 정책사업 목록

전략	NO.	세부사업	감축원단위	담당부서	시스템 단계	대상
인식 전환	1	생애주기별 식생활 교육 확대	0.06~0.11 kg/인/d	기후환경정책과, 농생명식품과	전주기	전체
	2	공공기관 저탄소 식생활 교육의무 시범사업		기후환경정책과	전주기	관리자
	3	저탄소 식생활 홍보 강화		기후환경정책과	전주기	전체
	4	도민참여 저탄소 식생활 리빙랩 운영		기후환경정책과	소비	이용자
	5	저탄소 채식 시범학교 운영 (계속)	700 kg/학교/y	전라북도교육청	소비	이용자
정보 제공	6	저탄소 식생활 가이드 및 조리법 공유		기후환경정책과, 농생명식품과	소비	이용자
	7	온실가스 감축효과 원단위 정보제공		기후환경정책과	소비	전체
	8	전라북도 올바른 식생활 지도제작		기후환경정책과	소비	이용자
	9	기존식당 메뉴정보 표기지원		기후환경정책과	소비	이용자/공급자
	10	저탄소 실천음식점 인증관리		기후환경정책과	소비	공급자
문화 조성	11	저탄소 식생활 소모임 활성화		기후환경정책과	소비	이용자
	12	저탄소 식생활 체험부스 운영 및 페스티벌 개최		기후환경정책과	전주기	전체
	13	저탄소 식생활 인센티브 지급		기후환경정책과	소비	이용자
	14	공공기관 급식 채식의 날 지정		기후환경정책과	소비	관리자/이용자
	15	저탄소 채식 캠퍼스 운영		기후환경정책과	소비	이용자

전략	NO.	세부사업	감축원단위	담당부서	시스템 단계	대상
지역 상생 먹거리 순환	16	저탄소/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활성화	1.38 kg/인/y	농산유통과	생산	공급자
	17	지역농산물 저탄소 특화브랜드 개발	.	농생명식품과	가공	관리자
	18	로컬푸드 활성화	130.8 kg/인/y	농생명식품과	생산/ 유통	공급자
	19	못난이 농산물 소비촉진	.	농생명식품과	생산/ 소비/ 폐기	전체
	20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지원	4.3 kg/인/y	기후환경정책과	폐기	이용자
기반 구축	21	저탄소 식생활 조례 제정(시군)	.	기후환경정책과, 농생명식품과	전주기	관리자
	22	대체식품 산업화 기반조성 및 연구지원	.	농생명식품과	가공	공급자
	23	저탄소 식생활 협력 거버넌스 운영	.	기후환경정책과, 농생명식품과	전주기	전체

2. 정책사업 세부내용

■ 전략1 : 인식전환

1. 생애주기별 식생활 교육 확대			
담당부서 (기관)	기후환경정책과, 농생명식품과 (전북식생활교육지원센터)	시스템 단계 (대상)	전주기 (전체)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주로 지역농산물 이용, 요리수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저탄소 식생활에 대한 내용은 다루어지지 않음
- 학생교육(아동, 청소년)의 경우 도교육청의 저탄소 채식 정책과 연계할 수 있으나, 일반인(청년, 중년, 장년, 노년 및 학생 부모) 대상의 식생활 교육은 부족한 현실임
- 저탄소 식생활을 포함한 연령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애주기별 식생활 교육 확대를 통한 인식개선이 필요함

○ 사업의 주요내용 [생애주기별 교육기반 확립, 기존 교육 확대, 맞춤형 프로그램 다변화]

- 저탄소 식생활 교육 교재개발, 프로그램 구성, 식생활 교육 강사단 양성 등을 통한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주제별(공급자, 이용자, 관리자) 교육기반 마련
- 기 시행중인 환경교육(이용자), 농민교육(공급자) 등과 연계하여 식생활 교육 추가 확대 시행
-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 찾아오는 단체 교육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다변화 운영

2. 공공기관 식생활 의무교육 시범사업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시스템 단계 (대상)	전주기 (관리자)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식생활 전환 정책시행을 위해서는 담당공무원(관리자)의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식생활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교육기회가 많지 않음
- 공공영역(관리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도내 공공기관 식생활 의무교육 운영을 통해 식생활 전환 문화를 선도함

○ 사업의 주요내용 [식생활 의무교육 시범사업, 의무교육 대상 확대]

- 도내 공공기관 대상 식생활 의무교육 시범사업 시행을 통한 인식개선 및 실천 유도
- 시범사업 후 농민(공급자), 공무원(관리자), 일반도민(이용자) 등 의무교육 대상 확대 검토

3. 저탄소 식생활 홍보 강화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시스템 단계 (대상)	전주기 (전체)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식생활 전환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식생활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
-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다양한 식생활 관련 이해당사자의 인식개선에 목적이 있음

○ 사업의 주요내용 [홍보물 제작 및 방영, 브랜드로고 제작 및 활용]

-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 및 외부매체(SNS, 라디오, TV, 간접광고 등) 방영
- 밝은 이미지의 브랜드로고를 제작하여 각종 프로그램(채식의 날, 지역행사 참석, 관련 인증제도 시행 등)에 활용

4. 도민참여 저탄소 식생활 리빙랩 운영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시스템 단계 (대상)	소비 (이용자)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생활실험실'로 불리는 리빙랩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식생활 관련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임
- 저탄소 식생활을 주제로 도민참여 리빙랩 운영을 통해 참여자의 인식개선은 물론 수용성 높은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함

○ 사업의 주요내용 [저탄소 식생활 리빙랩 운영, 리빙랩 결과 정책반영]

-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위한 리빙랩 참여팀 모집, 팀별 미팅을 통한 실천 아이디어 선정, 실험디자인, 실험중간평가, 결과공유 등의 프로그램 운영
- 실험결과를 확대 공유하고 리빙랩 운영에 따른 정책제안은 도정정책으로 반영하여 시행

5. 저탄소 채식 시범학교 운영 (계속)

담당부서	전라북도교육청	시스템 단계 (대상)	소비 (이용자; 학생)
------	---------	-------------	--------------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전라북도 교육청은 2014년부터 '저탄소 채식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육류위주 식습관을 개선하고 채식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음
- 또한, 채식식재료 구입비 지원을 통해 저탄소 식생활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학교교육은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생활을 인식 및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문화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사업의 주요내용 [시범학교 운영, 환경생태교육 연계 운영, 조리법 제공 및 식단반영]

- 전북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하는 시범학교는 '저탄소 채식의 날'을 주 1회 등 학교현황에 맞는 자율적 운영
- 학교 환경생태교육과 연계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자유학기제 주제선택 활동·동아리 활동 등에 채식 급식 관련 내용을 반영
- 전북도교육청의 '채식레시피 개발 TF팀'에서 개발한 저탄소 채식식단 레시피를 제공하고 학교 식단에 반영

■ 전략2 : 정보제공

6. 저탄소 식생활 가이드 및 조리법 공유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농생명식품과	시스템 단계 (대상)	소비 (이용자)
------	-----------------	-------------	----------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저탄소 식생활에 대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제대로 된 실천방법이나 조리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실천을 지속하기 어려움
- 특히, 저탄소 식생활 관련 분산된 정보를 실천자가 직접 찾아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전라북도 여건을 고려한 실천 가이드북과 조리법을 제작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주요내용 [저탄소 식생활 가이드 추가, 조리법 취합·공유]

- 기존 건강관리 식생활 정보에 저탄소 식생활 가이드를 추가하는 방식의 가이드북 제작을 통해 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식생활 전환의 가치 증진
- 조리법의 경우 이용자의 직접 참여가 가능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공유체계 활용

7. 온실가스 감축효과 원단위 정보제공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시스템 단계 (대상)	소비 (전체)
------	---------	-------------	---------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식재료 생산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는 일부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메뉴 선택 또는 실천에 따라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량 정보는 부족함
- 저탄소 식생활의 목적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는 만큼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 원단위(실천 단위 당 감축량) 정보를 제공하여 감축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주요내용 [교육 및 가이드북에 원단위 수록, 대표 원단위 중심 제공]

- 한국환경공단 원단위 산정사업 및 관련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교육자료 및 가이드북에 수록
- 식재료 원산지, 메뉴, 조리법 등 조건에 따라 원단위 값이 상이할 수 있으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 원단위(예; 1주일에 채식 1식 실천할 경우 감축량)를 중심으로 제공

8. 전라북도 올바른 식생활 지도제작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시스템 단계 (대상)	소비 (이용자)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비건 등 식생활 전환 실천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는 외식식당 부족으로 직접 개인조리, 타인과의 사회관계 등에서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 향후 국내외 방문객 중 채식(비건 등)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관광정보와 연계한 식당정보 제공이 필요함
- 도내 운영하는 비건 식당, 동물복지 식당, 저탄소 식당에 대한 위치, 메뉴 등을 소개하는 지도를 제작하여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함

○ 사업의 주요내용 [지도정보 제작, 식생활 관련 주요정보 포함]

- 국내 주요 포털과 연계한 인터넷 지도 제작, 관광안내와 연계한 식당 지도정보를 제공
- 로컬푸드 매장 위치, 식생활 교육장, 식생활 관련 주요기관 안내, 도시농업(텃밭 정보) 등 관련 정보를 포함

9. 기존식당 메뉴정보 표기지원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시스템 단계 (대상)	소비 (이용자, 공급자)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비건 등 식생활 전환 실천자는 식당메뉴의 식재료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아 메뉴선택에 어려움이 있으며, 매번 직원에게 문의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기존 식당 메뉴판에 비건 메뉴, 저탄소 메뉴 등을 표기하여 손님(이용자)의 메뉴선택을 위한 효과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함

○ 사업의 주요내용 [기존 식당 메뉴정보 표기 지원, 메뉴정보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기존 식당의 메뉴판에 비건 등 채식이 가능한 메뉴가 있을 경우 표기하고, 저탄소 메뉴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 등을 제시하여 선택을 유도
- 메뉴정보의 추가표기는 공급자의 매출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공급자의 메뉴정보 표기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추진

10. 저탄소 실천음식점 인증관리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시스템 단계 (대상)	소비 (공급자)
------	---------	-------------	----------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식생활 전환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공급자(음식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
- '저탄소 실천음식점' 인증을 통해 이용자는 저탄소 메뉴에 대한 정보제공 및 관심을 유발하고, 공급자에게는 부가적 혜택을 제공함
- 예) 뉴욕 그린레스토랑 인증제 (민간단체 Green Restaurant Association에서 운영)

○ 사업의 주요내용 [저탄소 실증음식점 인증, 인증식당 인센티브 모색, 전문 민간단체 위탁]

- 식재료, 저탄소 메뉴, 플라스틱 사용금지, 음식물 폐기물 최소화, 에너지 및 물 절약 등의 항목별 평가를 통해 일정점수 이상의 음식점에 인증서를 부여
- 인증음식점은 운영비용 절감, 환경에 관심이 많은 이용자 유치, 적극적인 언론홍보를 통한 혜택 부여
- 식당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는 식생활 전문 민간단체 위탁사업으로 수행

■ 전략3 : 문화조성

11. 저탄소 식생활 소모임 활성화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시스템 단계 (대상)	소비 (이용자)
------	---------	-------------	----------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다양한 이유로 식생활 전환에 관심을 가지는 MZ세대 이용자를 중심으로 동아리, 동호회 등의 활동이 활발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문화조성을 위해서는 동일한 관심을 가지는 소모임 활성화 지원이 필요함

○ 사업의 주요내용 [지원대상 소모임 공모, 소모임 활성화 지원]

- 저탄소 식생활에 관심이 있는 전라북도민이 참여하는 소모임을 공모를 통해 선정
- 일정 금액의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고 컨설팅, 활동계획 보고, 활동성과 보고 등을 통해 소모임 활성화 방안을 모색

12. 저탄소 식생활 체험부스 운영 및 페스티벌 개최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시스템 단계 (대상)	전주기 (전체)
------	---------	-------------	----------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향후 식생활 전환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공급자는 물론 소비자가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 저탄소를 포함한 식생활 전환을 직접 체험하고 기존 선입견을 벗어나 실천을 결심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개최함

○ 사업의 주요내용 [식생활 행사 참여, 기존 교육 확대, 지역축제 체험부스 운영]

- 비건페스타, 코리아비건페어 등 식생활 전환 관련 주요행사에 전라북도 차원의 참여
- 도내 주요 지역축제와 연계 체험부스 운영 또는 저탄소 식생활을 주제로 행사(페스티벌)를 개최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식생활 전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13. 저탄소 식생활 인센티브 지급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시스템 단계 (대상)	소비 (이용자)
------	---------	-------------	----------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저탄소 식생활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으므로 도민의 실천을 유도하고 인식개선 및 문화정착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인센티브 제도인 '탄소중립포인트제'와 연계한 저탄소 식생활 인센티브 지급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사업의 주요내용 [챌린지 방식의 시범사업 추진, 탄소포인트와 연계한 인센티브 지급]

- 시범사업(챌린지 방식) : 자발적 참여자를 모집하고 일정기간 저탄소 채식 횟수(2개월 15회, 30회 등)를 목표로 인증샷 제출을 통한 운영
- 본사업 :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 또는 앱과 연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메뉴 및 인증자료 업로드 메뉴 추가 (자발적 참여자 대상)

14. 공공기관 급식 채식의 날 지정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시스템 단계 (대상)	소비 (관리자/이용자)
------	---------	-------------	--------------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전북도청은 매월 마지막 목요일을 '채식의 날'로 지정하여 구내식당에서 채식식단을 제공하고 있음 (23. 9. 시작)
- 도내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구내식당에서 정기적인 저탄소 식단 제공을 통해 공공기관 종사자의 식생활 인식을 개선하고 숭선수범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주요내용 [공공기관 실천협약 추진, 도내 공공기관 운영 확대 유도]

- 공공기관 급식의 '저탄소 채식의 날' 지정을 통한 식생활 전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실천을 유도하고 도민의 관심 유발 (실천협약 추진)
- 기관별 참여도 현황에 따라 (부정적) 샐러드 바 형태 시범운영, (긍정적) 횡수 증대 및 메뉴 다변화 등 가변적 운영

15. 저탄소 채식 캠퍼스 운영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시스템 단계 (대상)	소비 (이용자)
------	---------	-------------	----------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의 경우 도교육청의 저탄소 채식 사업의 일환으로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의 경우 교육기회가 부족함
- 대학 캠퍼스 내 저탄소 식생활 유도를 위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학생식당 저탄소 메뉴 추가 등을 통해 탄소중립 캠퍼스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주요내용 [채식 시식 이벤트 추진, 대학 캠퍼스 식생활 문화 조성]

- 중간/기말 시험 종료 시 비건 버거 시식회, 대체식품 시식회 등 저탄소 식생활 이벤트를 통한 체험 및 인식개선
- 학생식당 식재료 성분표 공개, 비건 학식 메뉴 개발, 관련 동아리 활성화 지원, 캠퍼스 농업(교내 텃밭운영) 등을 통한 탄소중립 식생활 캠퍼스 문화 조성

■ 전략4 : 지역상생 먹거리 순환

16. 저탄소/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활성화

담당부서	농산유통과	시스템 단계 (대상)	생산 (공급자)
------	-------	-------------	----------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공급자(농민)의 참여가 필수적이거나, 기존의 행동패턴 전환 유도를 위해서는 지원정책이 필요함
-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생산 전과정에서 평균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GAP(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인증)에 부여하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도'의 확대가 필요함
- 친환경 농산물(유기, 무농약)은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는 농산물로 농업생태계 보전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음

○ 사업의 주요내용 [저탄소/친환경 농산물 지원 확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

- 인증대상 농가의 저온저장고 지원, 학교급식/공공급식 지원, 차액지원, 꾸러미 판매 등 기존의 친환경 농산물 지원정책 확대
- 현재 소비자가 저탄소 농산물 인증 제품을 구입할 경우 15% 에코머니 포인트 수령 혜택으로 수요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전북도 차원의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검토

17. 지역농산물 저탄소 특화브랜드 개발 (시군)

담당부서	농생명식품과	시스템 단계 (대상)	가공 (관리자)
------	--------	-------------	----------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저탄소 식생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을 활용한 특화아이템을 개발하여 대표브랜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지역에서 생산되고 건강과 환경에 기여하는 특화식품은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사업의 주요내용 [시군별 채식 특화브랜드 개발, 특화브랜드 활용전략 수립 및 추진]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저탄소 특화브랜드 개발 지원 (저탄소 인증제, R&D과제 연계 필요)
(예시 : 쌀, 산약초, 사과, 수박, 복분자, 병, 비빔밥, 팔칼국수, 쌍화차 등)
- 시군별 특화브랜드는 식생활 전환실천 가이드북, 저탄소 식단 조리법, 체험 이벤트, 지역축제 부스운영 등에서 소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활용

18. 로컬푸드 활성화

담당부서	농생명식품과	시스템 단계 (대상)	생산/유통 (공급자)
------	--------	-------------	-------------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전라북도는 로컬푸드 정책 모델지역으로 로컬푸드와 학교급식, 복지급식, 공공급식 연계를 통해 매출액의 85~90%를 농가에 환원하고 있음
-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는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을 통해 유통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뿐 아니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

○ 사업의 주요내용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

- 시민사회·지자체와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가치확산, 중소농가 조직화를 통한 공급체계 구축, 공공급식·직매장 등 소비자 접점 확대
- 생활권 직매장 확대, 로컬지수 평가 관리, 통합물류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의 날 운영, 공공작업장, 레스토랑 조성지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푸드플랜 사업 연계

19. 못난이 농산물 소비촉진

담당부서	농생명식품과	시스템 단계 (대상)	생산/소비/폐기 (전체)
------	--------	-------------	---------------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상품이 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 비중은 전체 생산량의 15%를 차지하나 폐기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함
- 못난이 농산물 소비 활성화는 공급자의 매출증대, 소비자의 저렴한 가격구입,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의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사업의 주요내용 [인식개선 사업 연계, 접근성 확대 지원]

- 농산물 가공 판매와 직접 판매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저탄소 식생활 교육, 홍보, 이벤트와 연계)
- 온라인 거래, 로컬푸드 매장과 연계한 유통망 확보를 통한 접근성 확대 지원

20.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지원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시스템 단계 (대상)	폐기 (이용자)
------	---------	-------------	----------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2020년 기준 전라북도의 생활계 폐기물 중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은 775톤/일 규모로 생활 폐기물의 35%를 차지하고 있음
- 저탄소 식생활 전환을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을 통해 자원순환사회 구축 및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음

○ 사업의 주요내용 [자원순환 생활실천 확대, 인프라 지원]

-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강화, 음식물 탄소발자국 시각화 자료 배포, 냉장/냉동고 음식물 보관 저감 캠페인 등 생활실천 강화 교육·홍보 시행 (식생활 교육 연계)
- 배출량 만큼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RFID 보급 확대, 지자체 통합(음식물, 슬러지, 축산분뇨) 바이오가스화 시설 지원, 음식물폐기물 감량을 위한 공동발효기 시설 지원 확대 등
- 식생활 관련 일회용품 감량문화 조성을 위한 다회용기사용 지원, 친환경 정보제공 등 자원 순환 기반정책 연계

■ 전략5 : 기반구축

21. 저탄소 식생활 조례 제정 (시군)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농생명식품과	시스템 단계 (대상)	전주기 (관리자)
------	-----------------	-------------	-----------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시군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필요함
- 현재 전라북도의 저탄소 채식 조례(전라북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군 여건을 고려한 확대가 필요함

○ 사업의 주요내용 [채식활성화 시군 협력체계 구축, 시군 채식지원 조례제정 지원]

- 시군의 식생활 및 탄소중립 담당부서(농축산, 환경)와의 시군간담회를 통한 저탄소 식생활 정책 소개 및 협력 체계 구축방안 모색
-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여건에 적합한 지원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한 식생활 전환 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22. 대체식품 산업화 기반조성 및 연구지원

담당부서	농생명식품과	시스템 단계 (대상)	가공 (공급자)
------	--------	-------------	----------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전 세계적 채식인구의 증가는 비건식, 대체육, 영양제 등 새로운 식품시장의 확대가 전망되므로 대체식품은 '농생명 수도' 전라북도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이 필요함
- 대체식품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시설지원, 기업유치, 인력양성 등 전략수립, 지역특화 아이템 발굴, 국가정책 연계 등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이 필요함

○ 사업의 주요내용 [대체식품 산업육성, 정책연구 추진]

- 대체식품의 경우 곡물의 단백질 함량과 가공용이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종자개발 등 관련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거점으로 육성
- 식생활 문화조성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트렌드를 파악하는 수요조사, 실태조사, 과학적 정보 제공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관련 등 정책연구 추진

23. 저탄소 식생활 협력 거버넌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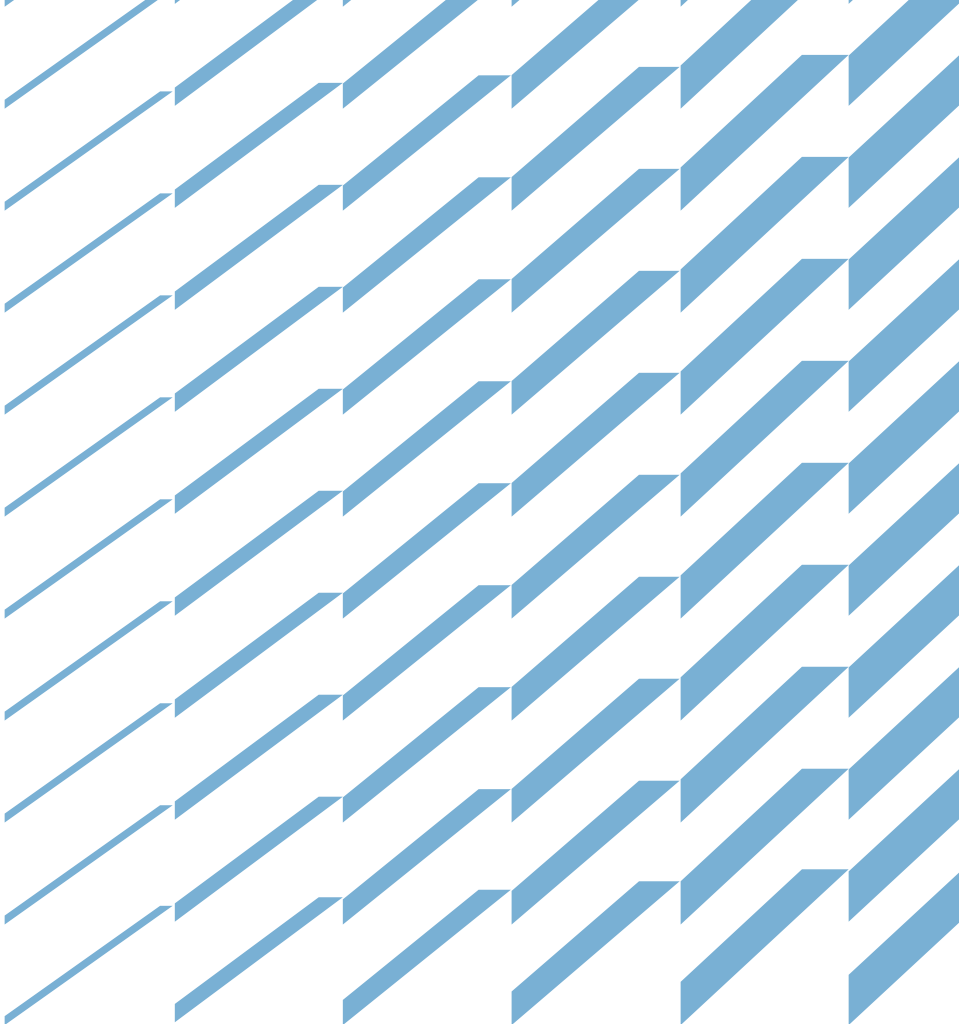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농생명식품과	시스템 단계 (대상)	전주기 (전체)
------	-----------------	-------------	----------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식생활을 포함한 기존 먹거리 정책(푸드플랜) 업무는 농업부서 담당하고, 저탄소 식생활 정책은 환경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제도초기 저탄소 식생활 전환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식생활 정책을 포함한 푸드플랜의 통합운영이 바람직함

○ 사업의 주요내용 [저탄소 식생활 협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공급자, 관리자, 이용자가 참여하는 (가칭)'저탄소 식생활 협력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저탄소 식생활 전환을 위한 기존 정책의 이행평가, 식생활 문화 현황공유, 신규 정책사업 제안 등의 역할 수행
- 협의체 이외에도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간담회, 포럼 등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여 정책보완 및 협력방안 모색
- 특히, 축산업의 경우 무조건적인 배척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동물복지, 환경영향 최소화 등으로 고려한 산지생태축산 등으로 전환을 모색



제6장

결론 및 후속 과제

1. 결론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과제



제6장 결론 및 후속 과제

1. 결론

■ 연구의 목적과 주요내용

-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저탄소 식생활 전환’의 현황 및 쟁점을 조사하고 지역 여건을 분석하여,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전라북도가 선도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제시하는데 있음
- 전라북도 식생활 현황 및 특성분석을 위해 선행연구의 실태조사 문헌분석(양적연구)을 수행하고, 푸드시스템 전체를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특성을 분석하였음
- 전라북도 식생활 이슈 및 정책수요 조사를 위해 공급자, 이용자(소비자), 관리자 등 이 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음(질적연구)
- 채식실천 등 저탄소 식생활 전환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을 위해 식생활 관련 전라북도 여건을 조사하고 SWOT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정책목표 및 전략을 설정하였음
- 인터뷰 분석결과, SWOT분석결과, 목표 및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소중립 식생활 전환을 위한 정책사업(안)을 제안하였음

■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결과

- IPCC는 푸드시스템에서 생산 전후 배출량을 포함할 경우 전 지구 배출량의 21~3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FAO에서는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함
- 푸드시스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작물재배, 가축사육, 음식료품 제조업, 음식점, 식품유통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결과, 2019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16%로 나타남

- 전라북도의 푸드시스템 에너지 및 비에너지 배출량 합계를 추정한 결과 2020년 기준 전라북도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33%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산정됨
- 이는 농축산업 비중이 높은 전라북도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식생활 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 심층인터뷰 결과

- 식생활 전환에 따른 건강상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지만, 경제적, 물리적, 심리적, 사회관계 변화 측면에서 지속적인 실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응답이 많았음
- 식생활 전환의 계기는 건강, 동물복지, 외부매체, 종교 등 개인여건에 따라 다양하나, 기후위기 대응이 식생활 전환의 주요요인으로 설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전라북도의 식생활 전환 여건은 타 지역보다 우수하나, 기존의 선입견을 불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저탄소 식생활의 활성화 전망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견해와 낮은 인식으로 가치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가 공존함
- 저탄소 식생활 정책은 경제적 지원보다는 강압적이지 않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인식개선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축산과의 갈등 조정이 필요함
- 정책제안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올바른 정보제공,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체험기회 제공, 푸드시스템과 연계한 정책협력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여건분석 결과(기본방향)

- 경쟁우위 강화 방향성
 - 전라북도가 보유한 농생명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푸드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식생활 전환정책 마련

- 식생활 관련 사회적 이슈를 인식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실천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식생활 전환정책 수립
- 향후 확대가 예상되는 식생활 전환(채식) 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연구 및 기반시설 확대정책 모색
- 경쟁우위 보완 방향성
 -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식생활 전환의 필요성을 강화
 - 공공의 선도적 실천, 인센티브 지급 등 식생활 전환 실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지원체계 마련
 -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의 푸드시스템 단계를 고려한 지역상생 먹거리 순환사업 발굴 및 관련체계 정비
- 제약요인 제거 방향성
 - 개인의 여건에 따라 식생활 전환의 다양한 계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저탄소 식생활을 올바른 식생활 전환의 기회로 활용
 - 식생활 전환에 따른 긍정적 정보제공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축산업 등 갈등요인에 대한 의견 수렴 창구 및 공감대 조성
 -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선입견을 불식할 수 있는 식생활 전환 문화 조성
- 문제해결 방향성
 - 식생활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강요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식생활 전환정책 모색
 -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환경부서와 농업부서의 협업을 통한 효율적 식생활 전환정책 추진

■ 정책제안 결과

- 심층인터뷰 및 SWOT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목표를 설정하였음
 - 목표1 :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한 저탄소 식생활 인식 및 가치증진
 - 목표2 :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식생활 문화조성

- 목표3 : 지역과 상생하는 푸드시스템의 단계별 순환체계 정립
- 목표4 : 담당부서별 협업을 통한 효율적 식생활 전환 기반구축
-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으며, 총 23건의 전략별 세부사업을 제안하였음
 - 1. 인식개선 :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식생활은 강제하기 어려운 만큼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시범사업 등의 생활실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함
 - 2. 정보제공 : 저탄소를 포함한 식생활 전환 실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속적인 실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적 정보와 입문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조리법 등 안내서를 제공함
 - 3. 문화조성 :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저탄소 식생활 전환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식생활 전환 정책을 선도하고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4. 지역상생 먹거리 순환 : 지역의 먹거리 체계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의 푸드플랜과 연계한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 등 단계별 순환을 고려한 정책을 제시함
 - 5. 기반구축 :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서간 협력 및 이해당사자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농생명 수도’ 전라북도의 아이টে으로 대체식품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함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과제

■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무관심 극복

-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 탄소중립은 시급하게 달성해야할 목표라고 강조하지만, 개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은 매우 어려움
- 본 연구에서도 인식개선을 최우선 정책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식생활 전환을 위한 정책시행에 앞서 기후위기 극복(탄소중립)의 시급성과 지금 바로 실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최우선 되어야 함
- 저탄소 식생활은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저탄소 식생활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이 아니라,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수단으로 저탄소 식생활’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람직함

- 저탄소 식생활은 ‘개인이 하루에 3번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가장 쉽게 선택(실천)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인 탄소중립 실천방안임
-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 없는 저탄소 식생활의 권유는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받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매우 높음
- 스톡네스¹⁹⁾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실천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심리적 방어벽(5D)으로 설명하고 대응 방안(5S)을 제시하였음
 - 5D 심리적 거리두기(Distancing), 숙명론(Doom), 부조화(Dissonance), 부정(Denial), 정체성(iDentity)
 - 5D 극복을 위한 소통방식으로 1)기후행동의 사회화(Social), 2)단순화(Simpler), 3)도움되는면 부각(Supportive), 4)이야기로 만들기(Stories), 5)신호로 만들기(Signals)의 5S를 제시하였음
- 이러한 소통방식을 탄소중립 교육·홍보와 정책추진에 적용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무관심을 극복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함
- 현재 전라북도 여건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기후변화/탄소중립/환경에 대한 인식교육을 우선 강화하고, 이와 병행하여 저탄소 식생활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탄소중립 및 식생활 정책 협력체계 구축

-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반의 전환이 필요하며, 부문별 업무를 추진 하였던 모든 담당행정에서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이 필요함
- 환경행정의 경우 환경부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총괄 부처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지자체의 총괄부서 역할 수행이 바람직하지만, 총괄부서가 모든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수 없으므로 탄소중립 정책추진을 위한 ‘행정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
 - 총괄부서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업무 조정·협력 역할이며 어느 부서가 특정 분야의 탄소중립을 위

19) 그레타 툰베리 ‘THE CLIMATE BOOK’ 중 5.4 기후 무관심 극복하기, 페르 에스펜 스톡네스, p. 426, 2023, 김영사

해 가장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조정과 협력 역할이 요구됨

- 담당부서의 협력을 위한 ‘행정 거버넌스’ 구축과 동시에 민간이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탄소중립은 행정의 일방적인 추진으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행정력이 세부영역으로 확산하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음
 - ‘협력 거버넌스’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명확한 목표를 가진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저탄소 식생활 정책의 경우 기존의 식생활 담당부서인 농식품 담당부서와 탄소중립 담당부서의 ‘행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식생활 지원 및 탄소중립 지원 전문조직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향후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담당부서의 역할, 참여 전문조직 선정, 조직별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로드맵(추진계획) 마련이 필요함

■ 탄소중립 생활실천 지원을 위한 정보활용

- 기존 식생활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 식생활의 효과평가를 위해서는 정량적인 배출량 산정정보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로컬푸드 사용, 식생활 교육 등 정책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원단위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나, 식재료 생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음식 메뉴에 따른 탄소발자국 등 선행연구와 관련 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농식품부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음식의 탄소발자국²⁰⁾’ 홈페이지 서비스를 통해 음식의 전과정(생산, 수송, 조리)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메뉴별로 제공하고 있음
- 식생활 이외에도 탄소중립 생활실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정보제공은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고 실천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

20)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음식의 탄소발자국. https://www.smartgreenfood.org/jsp/front/story/game1_canvas.html

-
-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원단위)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식생활을 포함한 생활실천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량 정보 및 관련 서비스를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REFERENCE

- BRAIN. (2022). 이제는 간헐적 채식의 시대. 브레인 셀럽, No.96, 60-63
- FAO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공개 보고서. (2021). 재인용
- IPCC. (2019). IPCC 기후변화와 토지 특별보고서_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 STEP위키. (2023. 9. 검색). 세계의 비건 인구 순위. <https://www.step.or.kr/>
- 그레타 툰베리 'THE CLIMATE BOOK' 중 5.4 기후 무관심 극복하기, 페르 에스펜 스톡네스, p. 426, 2023, 김영사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음식의 탄소발자국. https://www.smartgreenfood.org/jsp/front/story/game1_canvas.html
- 농식품수출정보. (2023. 7. 26.). 대체육·배양육 산업 지속성장 전망, <https://www.kati.net>
- 네이버카페 '한울벗채식나라'.(2023. 7. 검색)
- 넥스트이코노미. (2023. 8. 4.). 200만 채식인 시장을 잡아라 '특명'
- 위키피디아_Vegetarianism. (2023. 9. 검색). <https://en.wikipedia.org/>
- 컨슈머와이드. (2023. 6. 22.). 가치소비 기획-비건2, '비건 전문가 3인에게 들었다'
- 한국채식연합. (2023. 9. 검색). <https://www.vege.or.kr/>
- 광주광역시. (2017). 광주광역시 녹색식생활 기본계획 2018~2022.
- 전라북도. (2021). 전라북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주)지역파트너플러스, & 커뮤니티링크협동조합
- 전라북도. 전라북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9.] [전라북도조례 제4962호, 2021. 7. 9., 제정]
-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2022).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채식환경 실태조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탄소중립을 위한 식품소비 단계의 온실가스 감축대안과 효과분석
- 환경부. (2021).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 김도균, 안소은, 정우현, 주문술, 이재혁, 서은주, ... & 홍덕화. (2022). 인류세 도래에 따른 녹색

전환의 가치와 증장기 전략 발굴 연구.

김윤진. (2022. 4. 4.). 채식주의자를 위한 보험서비스 : 해외사례, KIRI 리포트

명수정. (2022).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생활계 온실가스 배출과 인식 조사 연구.

박서현. (2022).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채식환경 실태조사.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박세정, 이소은, 서지현, & 오금식. (2021). '채식의 날' 기후변화 캠페인이 소셜미디어 반응과 캠페인 참여에 미치는 영향: 부산 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2), 888-895.

옥미영. (2021). 학교 채식운동 현황과 과제. farminsight. <http://www.farminsight.net/news/articleView.html?idxno=7600>

우현숙, & 김소영. (2021). 학교급식에서의 채식의 날 적용 사례 연구. 동아시아식생활학회 학술 발표대회논문집, 168-168.

유소현. (2022). 친환경 식생활과 간헐적 채식의 연계성 고찰.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99-101.

이효은, & 오수빈. (2021). 계획된 행동이론 관점에서 본 기후위기 대응방안으로서의 플렉시테리 어니즘 (간헐적 채식주의) 지속 및 확산방안. 환경철학, (31), 57-99.

최경숙, 김지은. (2022). 대학생의 기후변화 대응 식생활 행동의도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31 (6), 799-810.

황영모 외 11인. (2019).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방안 연구. 2019년도 전국 시도 연구원협의회 공동 연구.

허복구. (2022). 미래를 바꾸는 탄소농업, 중앙생활사

Dietary Habit Improvements for Carbon Neutrality in Jeollabuk-do

Namjung Jang · Young-Mo Hwang · Hajin Cho

1. Study Objectives and Methods

■ Research Purpose

- Studies show that dietary choices not only have the potential to cause personal health problems but can also be associated with a large volume of greenhouse gas emissions during the production, consumption, and distribution of food products. In order to achieve a carbon-neutral society, an exploration of low-carbon dietary polici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is necessary.
- Dietary habits are personal and determined by biological, economic, physical, social, psychological, and cultural factors, all of which may lower public tolerance for policies that push low-carbon diet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1) investigate Jeollabuk-do's dietary transition as a carbon-neutral policy alternative, analyzing local conditions for policy establishment; and 2) to identify low-carbon dietary policies that Jeollabuk-do can implement to encourage the spread of carbon-neutral culture, such as creating a vegetarian environment.

■ Research Methods

- To investigate dietary issues and policy demands in Jeollabuk-do,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including suppliers, consumers, and managers, and the interview opinions were summarized.

- To establish a basic path toward a carbon-neutral diet transition, we investigated the dietary conditions in Jeollabuk-do, performed a SWOT analysis, and identified policy goals and strategies.
- A policy project for transitioning to a carbon-neutral diet was present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interview analysis results, SWOT analysis results, goals, and strategies.

2.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 Interview Results

- While many respondents had positive experiences following a change in their eating habits, many complained of discomfort and difficulty in continuing practice.
- The conditions for dietary change in Jeollabuk-do are superior to those of other regions, but it is still necessary to create a culture that dispels existing prejudices.
- Various ideas were presented, including the creation of a dietary culture and policy cooperation linked to the food system.

■ Policy Sugges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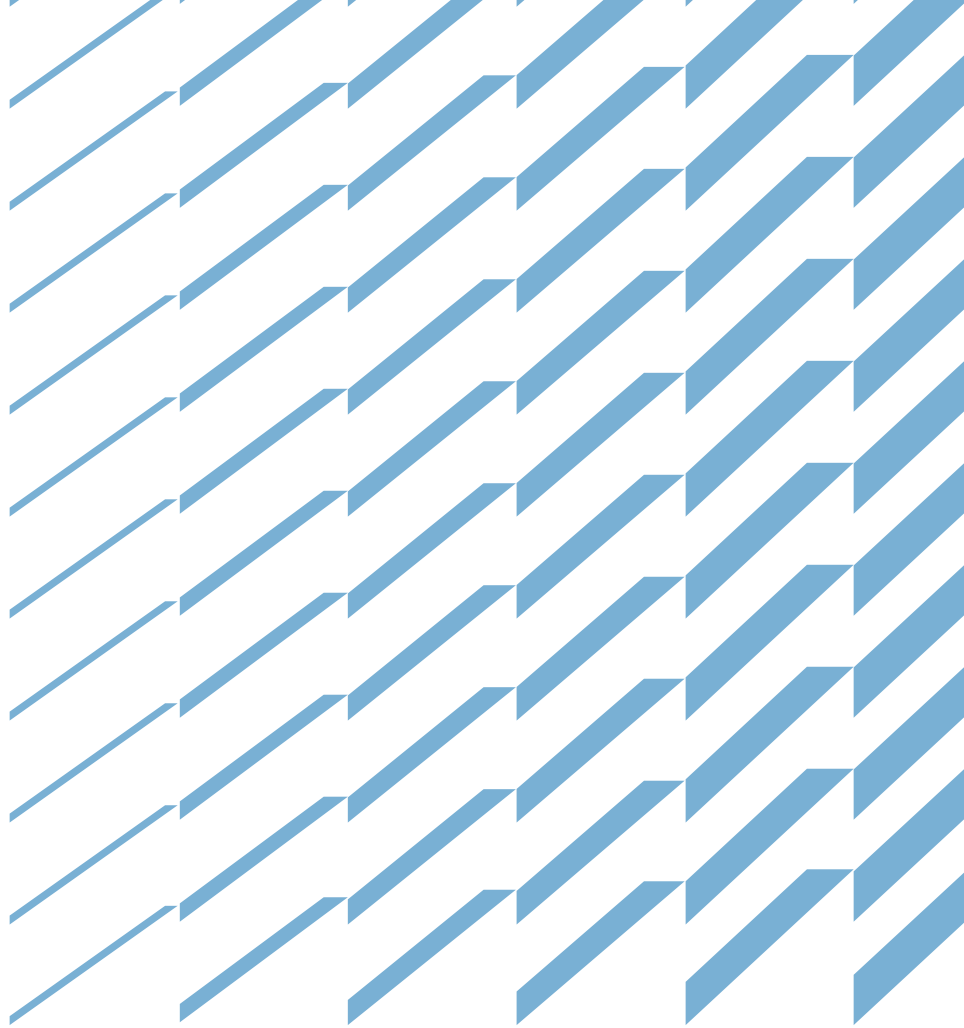
- To promote a low-carbon dietary policy, four objectives and five strategies are proposed, and 23 detailed policy projects are presented.
- The four proposed objectives are: 1) promoting awareness and value of low-carbon eating habits by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2) creating a

sustainable eating culture that respects individual choices; 3) establishing a step-by-step food circulation system that coexists within the region; and 4)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efficient dietary transition through departmental collaboration.

- The five proposed strategies are: 1) perception change, 2) information campaigns, 3) culture creation, 4) local coexistence food circulation, and 5) foundation-building.

Key Words

Dietary transition, Low carbon dietary habits, Carbon neutrality, Local food system, Green-house-gases reduction



부록



전라북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²¹⁾

(제정) 2021-07-09 조례 제496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을 통해 전라북도민의 식생활을 개선하여 기후변화 대응 실천 능력을 함양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생활”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2. “채식”이란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라 전라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채식환경 조성 지원을 통해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채식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식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식환경 조성 기본방향
2. 채식환경 조성의 목표 및 시행 전략

21) 전라북도. 전라북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9.] [전라북도 조례 제4962호, 2021. 7. 9., 제정]

3. 채식환경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4.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채식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채식 교육·홍보 등) ① 도지사는 도민 및 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채식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채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채식에 관한 정보 및 기후변화와의 관계 등을 담은 관련 매뉴얼 또는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7조(채식의 날 운영) ① 도지사는 채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채식의 날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장려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채식모범음식점 인증) ① 도지사는 매년 채식 음식점을 조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참여한 채식 음식점(이하 “채식모범음식점”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도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채식모범음식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채식모범음식점 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채식모범음식점의 정의, 선정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채식생활 실천 지원) ① 도지사는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채식 식단 등에 대해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교육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채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4962호, 20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책연구 2023-25

전라북도 탄소중립을 위한 식생활 개선방안 연구

발행인 | 이 남 호

발행일 | 2023년 10월 3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497-8 9533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2023년도 주요 연구과제

기본연구

전라북도 선행경기종합지수 작성 연구
전라북도 경제와 거시경제의 동적 관계 분석 연구
전라북도 일자리 종합지수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전북 농촌노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
인구감소 대비 농촌마을 기본공간정보구축 기초연구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및 탄소중립 전략 설정
지역문화인력의 근로실태조사와 근로환경 개선방안
전북 해양 역사문화자원 기초자료 집성 및 활성화 방안연구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전북 청년정책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전라북도 재정운용 효율성 분석 연구

기획연구

전북형 물류서비스 산업화 방안 연구
국제정세 변화와 새만금 중장기 글로벌 전략에 관한 연구
만경강·동진강 생태·환경자산 목록화 및 가치창출 연구
전주 남부시장 구슬사를 통해 본 전라북도 여성들

정책연구

전북연구개발특구 공간 확대방안 연구
전라북도 녹색복원 후보지 선정 및 사업화 방안 연구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지방시대에 대응한 전북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방안 연구
전라북도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지원사업 개선방안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 방안 연구
글로벌 스마트 재난대응 연구개발 실증단지 추진 방안
전북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전라북도 문화재활용 문화융합상품 개발방안 연구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방안 연구
전라북도 탄소중립을 위한 식생활 개선방안 연구
전라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방안
소득보전 지원체계 지원방안 마련
「전북형 쌀 생산안정 기금」 조성·운용 방안 수립
전북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방향 연구
전북형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체계 연구
현업축사 매입부지 활용 주민소득창출 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주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